

| 인제군민 생활문화기록 발간 사업 |

화전^{火田}을 일군 사람들

인제문화원

| 인제군민 생활문화기록 발간 사업 |

화전^{火田}을 일군 사람들

정 무 교

인제문화원

정 무 교

전 인제인터넷신문 취재부장 역임
전 한림성심대학교 출강
전 인제문화원 논술 강사
저서 『인제 사람들이 전통음식』

| 인제군민 생활문화기록 발간 사업 |

화전^{火田}을 일군 사람들



목 차

contents

발간사

머리말

1	지긋지긋한 가난 장화영, 장형기, 김생수	11
2	화전해서 돈 벌었어 이천재, 최종업, 엄경섭	47
3	마라~ 울러서 울러서~ 박정운	71
4	화전도 고생 도망쳐서도 고생 함연호	97
5	불을 두드려 끄면 클나요 심재영	109
6	개가 검댕이 묻은 주인을 몰라 짓고 이종관	135
7	죽지 못해 살았지 조학봉, 박병래	161



발간사

인제문화원장 남 덕 우



우리 군민 여러분 앞에 또 한 권의 책을 내놓게 돼 기쁨이 큼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오래 전에 화전을 했던 분들의 증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제군은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드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곳이었고, 면적의 대부분은 산이었습니다. 이 산에서 많은 군민들이 농사를 지으며 생활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화전정리를 하면서 이 분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화전도 아스라한 기억으로만 남게 됐습니다.

화전은 우리 인제 사람들의 삶을 말해주는 하나의 생활문화입니다. 가난해서 살기 위해 산에서 농사를 지은 이야기이지만 그것이 우리네 생활이었고 역사였기에 소중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할 일은 많고 손은 없다 보니 화전을 하던 분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 작업을 늦춰서는 안 될 시점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화전을 하셨던 분들을 찾아 섭외를 해 그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읽어보면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모진 가난을 견뎌온 분들의 체험담이 생생합니다. 그 시절에 누군들 가난하지 않았으며 배고프지 않았겠습니까만 화전을 하셨던 분들은 더 고생을 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좋은 세월을 보셨으니 지난 세월에 고생한 일들이 조금은 보상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자손들이 잘 되는 모습도 보시며 좋은 세월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 인제 사람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어 널리 읽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업을 기획한 사무국과 어르신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책으로 만든 정무교 작가의 수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제문화원은 군민의 생활을 기록하고 보존하며 널리 알리는 일에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말

오늘에 서서 어제를 생각해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진 게 별반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1년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되면 강산도 변화시키는 게 세월이 부리는 마법입니다. 세월이 부리는 마술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조화가 아닙니다. 강산이 하루아침에 변화된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그러한 변화를 포착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변화는 매일 매순간 진행되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훌쩍 건너뛰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비로소 보입니다. 그때가 어떤 시절이었지, 우리가 어떤 시절을 지나왔는지.

지나오고 돌아보는 그 시절은 대부분이 현실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어난 사람은 그 시절을 겪은 사람이 가진 정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상상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밥이 없어서 배가 고팠다”는 회고에 대해 오늘의 아이들은 “밥이 없으면 라면을 먹지요”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이 책을 묶기 위해 만난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그때 겪은 가난을 회고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증언을 듣고 그때 얼마나 배가 고팠고 살기가 힘들었는지 실감했습니다. 올해 일흔이 되신 어느 어르신은 그때를 회고하시며 울먹이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가난은 지나갔지만 이 분들의 몸에는 아직도 그때의 처절한 삶이 각인되어 있고, 그 각인은 정서로 남아 사람이, 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살아있는 한 이 분들이 겪은 일은 현재진행형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분들의 증언을 담은 이러한 책은 그래서 과거와 오늘을 잇는 다리역할을 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오늘 다시 불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오늘의 세대는 지난 세대를 이해하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다리놓기가 무슨 대수로운 일이나고 할지 모르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젊은이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도 모릅니다. 아버지를 모르는데 어찌 자신을 알겠습니까.

문화원에서 화전을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든다는 말을 듣고 참 좋은 기획이라고 매우 반겼습니다. 화전은 인제문화원이 기록으로 꼭 남겨야 할 일임을 누구나 동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을 제작하신 인제문화원 남덕우 원장님과 백창현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뜻 깊은 책을 만드는데 한 몫을 해서 기쁘긴 한데 내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불별더위에 인터뷰를 하시느라 애쓰신 어르신들께 감사를 드리며, 젊은 세대가 상상하지 못할 시절을 지나오신 어르신들께 이 책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 무 교

화전을 일군 사람들

지긋지긋한 가난

인터뷰 날짜 2015년 8월 9일

인터뷰 장소 상남면 노인회관

_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화영이고 상남편 아홉사리로 3221.

장형기고 1946년생, 70세예요. 고향은 하남리 하교동이고 현주소는 상남면 내린천로 3206.

김생수 35년생이고, 81세예요. 고향은 원래 홍천군 서석면이고 49년에 여기에 왔어요. 현주소는 상남면 구름울길 14

_ 그때 하남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장형기

집이 많아. 하교동이 2개 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4-50호.. 우리는 화전을 안 했는데 남들이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경험도 없이 해. 그러다가 산불을 냈어. 혼이 났어. 화전 같으면 주위를 넓게, 방화선을 베고 위에서 내려 봐야 되는데, 내려 봤는데 산판을 한 나무의 가지가 많았는데 바람이 불면서 불꽃이 방화선을 넘어갔어. 불이 붙으니까 우리 아버지



장형기 씨

두 경험은 없구 나도 없구. 모래를 던지랴구, 흙을 던지랴구, 흙을 던지니까, 가을 땀에 던지니까 오히려 더 잘 타는 거야. 그 다음에 바람이 불으니까 밑에서 타는 게 아니라 소나무 중간으로 막 불이 건너오고 소나무 상수에 가서 불이 막 돌고. 그래서 바람에 불에 쌓여 죽을 뻔 했어. 그래서 도망을 친 게, 머리도 타고 눈썹도 타고. 산을 다 태웠는데 그때 아주 혼났어. 산림간수원이 오면 영창감인데 그때 오지를 않아서 영창에 가지는 않았는데 큰일을 한 번 지질렀어. 불이 난 뒤에 삼사일이 지나면 소나무 잎이 빨갛게 돼. 끄실려서. 그래 그걸 아버님이 간수 온다구 어떻게 처치하라고 하시니까 옛날에 손톱으로 베어서 굴러서 집어 넣구. 고생을 한 기억이 있어.

_ 원래 택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장형기

집은... 하교동이 아랫마을 웃말이 있는데 우리는 아랫마을에 있는데 논농사도 좀 짓구 밭농사도 좀 짓구 화전은 안 했는데 그때 따라 하다가, 혼이 났지. 그런데 웃마을 사람들을 화전민이 많았구.

_ 학교는 어떻게 다니셨어요?

장형기

그 시절에는 진학들을 못했죠. 하남초 졸업하고 기린중학교 가는 사람

들이 한 학년에 두세 명 밖에 안 돼요. 아주 부잣집 아들이거나 가고 못 갔지. 학교를 못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한문 공부를 하고 서당이라고 그러지. 부잣집 애들은 중학교 가고, 아마 여기에서 고등학교 가는 사람은 1개 면에 몇 명이었을 거예요.

_ 화전을 하던 말씀을 해주세요?

장형기

불이 난 뒤로 화전을 안 했어요. 혼이 나서. 그 다음에는, 우리는 재미도 못보고 안 했어요. 불에 타죽을 뻔 했어. 불속에 휘말렸어. 눈썹까지 다 타고, 머리 타고. 도망가다 신발 다 잊어버리고. 열일곱 살 땐데.

_ 김생수 어르신도 화전을 하셨어요?

김생수

원래 못사니까, 옛날에 산에서 하는 걸 화전이라고 그랬어요. 산 비알이 이렇게 있으면 산밭을 하는 걸 화전이라고 그랬지요. 남 안 붙이는 거를 했지요. 그 당시 처음에 땅을 붙이면 잘 됩니다. 한 삼사년 해 먹다가 낙후가 되면 그걸을 버리고 또 딴 거를 하고, 없는 사람들은 다시 파서 하는 거지요. 심는 거는 콩, 팥을 심어요.

_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김생수

그때 내가 열여섯 살. 원래 못살으니까 겨우 초등학교 나왔어요. 서석수하리에서 살다가. 거기보다 여기는 산골이기 때문에 여기로 이사 왔어. 상남이 그 전에는 엄술장거리라고 했어. 상엄술 하엄술이라고, 상남이라고 안 그러구. 육이오 사변 나고 상남이라고 했어.

_ 결혼 하셨을 때예요?

김생수

나는 스무 살에 결혼했으니 54년도에 했어요.

_ 이사 오셔서 우선 집을 마련하셨겠네요?

김생수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이 십육만 원을 주고서 땅을 산 게 전체가 2,500평짜리 땅인 집을 산 거예요. 상남 4리 고석평에. 그 해 첫 해 와서 50년에 육이오 사변이 나서 그 해 남의 논 천 평을 얻어서 농사를 지었어. 그 리구 화전, 묵밭을 파서 농사를 짓는데 아버지가 그때에 한 오십 일 세가 되셨는데 천식이 있어서 일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쫓아다니면서 일을 했어. 농사를 첫 해 와서 그 해 50년에 농사를 짓는데 육이오 사변이 나서 모두 심어 놓고 그랬는데 사변이 나서, 그때 육이오 사변이 날 적에 이곳에서 누에를 했어요. 한 장 반 장 씩 면에서 알선을 해줘서 산뽕을 했어요. 그때 녀잠을 자면 누에가 올라가게 되는데, 고치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38선이 터지면서 도망을 가느라고. 여기가 6월 26일 날인가 아마 쫓겨났어요.

_ 누에는 어떻게 치나요?

김생수

농사는 그 전에 육이오 사변 나고 한창 농사를 졌지요. 그러니까 53년도 54년 그무렵부터, 꾸준히, 그때는 반 장 한 장 그랬지요. 가로는 한 십 센치 되고 세로는 한 오 센치 되고 해서 거기 누에알이 뭐 한 천 알 되는지, 한 장이.

_ 그걸 정부에서 나눠 줬나요?

그렇지요. 정부에서 그걸 줘서 저희가 그걸 사서. 그게 신청을 하면, 나는 한 장을 하겠스빈다, 나는 반 장을 하겠습니다 하면 신청한 대로 나오면, 반 장 나오는 거는 한 장을 반으로 나눠서 키우구. 한 장은, 온장은 단독으로 키우구 났었지요. 그래서 오랏뜰에 뽕두 없구 뽕나무 있는 건 토지 있는 사람이나 뚝배기루다 좀 심워서 그것도 다 안 돼죠. 많이 베풀어야 한 반 장 정도 오랏뜰에서 따고 계속 들 산뽕을 가서 땀습니다. 산뽕은 첫 밥, 둘째 밥, 셋째 밥 네 밥을 먹어야, 녀잠을 자야 올라갔습니다.

_ 올라간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올리는 거요. 올려서 집 짓는 거. 집 짓는 거, 옛날에 섶을, 일정 당시에 마룻이라고 짚을 한 십오 센치 되게 짤라서 새끼를 파서 맨 꼭대기에 매달고 비비비 돌리면 그게 일본말로 마룻이라고 섶이 됐어요. 한 일 미터 씩 해서 죽 매달고 그 밑에 잔박을 놓고 누에를 놓으면 거기에 올라가서 집을 짓기 시작해요. 섶은 그렇게 했어요. 한 달을 수고를 하면 올라가요. 집을 지으면 따서 손으로 허물을 벗겨서 고치 받는 판매점에 팔어지고 가면 1등 2등 3등 등급을 잡아서 돈을 주고 그랬어요.

_ 고치를 수매를 했군요?

네. 수매를 했어요. 그걸 누에치기라고 하지요.

_ 누에치기에 가장 어려운 점은 뭡까요?

그때 어려운 점은 누에 맥이는 빵 따는 게 힘들어요. 산에서 빵을 따야 하거든요. 한 장을 놓는다고 하면은 닉 잠 자고 일어나서 일주일을 먹는 겁니다. 일주일 빵을 따으려면 아마 하루 먹는 게 근 오십 킬로 먹어야 돼요. 둘이 가서 따다 대도 힘들어요. 많이 못 따오니까.

_ 네. 많은 분들이 누에를 하실 텐데 그렇게 많은 양의 빵잎을 어떻게 얻나요?

많은 데도 뭐 한 20리 30리 가서 따가져와요. 멀리 가서요. 밥을 싸가지고 가서 가져옵니다.

_ 누에를 하면 수익은 어떠셨어요?

54년도 55년도 그 당시에는 한 장 정도 잘 하면 송아지 한 마리를 샀어요. 잘 되면, 그때는 소값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에를 치느라고 열심히 했어요. 그 당시에 수익이 제일 좋으니까.

_ 정부에서 수매를 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정부에서 수매를 해요.

_ 수매를 해서 어디로 가져가나요?

그게 천 맵그는 공장, 그게 비단이죠 비단.

_ 처음에 정부에서 누에를 하라고 할 때 선뜻 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게 일정 당시부터 했어요. 우리 여나무살 먹었을 때에도 어른들이 그 걸 봤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마 뿔 만들었겠죠. 일정 당시부터 누에가 있었어요.

_ 일제시대에 하던 때가 기억나세요?

그때는 일제가 누에를 공출을 했어요. 누에 파는 걸 공출이라고 했어요. 하나두 남기지 않고 싹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때는 천이 귀하니까 어른들이 고치를 좀 감춰서 천을 맵근 모양이에요. 그런데 일제가 그것도 못하게 했어요. 그때 내가 일곱 여덟 살 때 일인데 그때 생각이 나지요. 고치를 다 가져간 거예요.

_ 왜 다 가져갔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개들이 전쟁을 준비한 거 같아요.*

어릴 때 어른들이 하는 거 보고 내가 직접 해보고 별짓 다 해 봤네. 아주 환하지. 누에를 처음에는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해. 누에를 한 해에 두 번 해. 봄 누에 치구 가을 누에 치구 그래. 봄에 핀 뽕이 가을에는 다시 피지 않고 여물어서 뻗뻗해. 그래서 가을 누에 칠 때는 봄 누에 칠 때만큼 수확을 내지 못하지. 가을에 누에를 치는 것은 그저 한 육십 프로 정도고 봄 누에는 백 프로고 그래요.

요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봄에 누에 씨가 배당이 돼서 나오는데 성냥갑 같은 통에 담아서 주고, 가을에는 뭇야 누에의 나방이가 요즘의 복사지 같은데 다가 알을 부르르 낳아서 붙여버린다구. 그러면 가을에는 그 종이채로 그냥 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 이종관 씨는 누에치기에 관해 더 자세한 설명을 한다.

씨를 어떻게 하느냐? 봄이나 가을이나 씨가 애벌레가 되어 나올 때까지 고거는 쭉 이파리를 뜯어다가 물을 뿌리면 촉촉하잖아? 그럴 적에 그 위에 약간 덮어주면, 이게 습기가 있어야 나오지 습기가 없으면 버쟁 말라 망가지고 말더구만. 그래서 이제 습기가 있게 하려면은 쭉을 가져다가, 여느 것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른들 하는 거를 봐두 쭉으로만 하더라구. 쭉에 물을 뿌려서 쭉을 툭 털으면은 이게 눅눅한 기가 있으면 살살 덮어 놔 뒤. 그게 나올 적에두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게 아니구 오늘 시작해 나오면 내일까지 한 24시간은 걸려야 다 나온다구. 그런데 그게 처음 하는 사람은 그게 시커멓게 나와서 바글바글 하나까 다 나온 줄 알고 거기다 빵을 썰어서 줄 거 아냐? 빵을 주면은 안 나왔던 게 나중 나오고, 그러니까 먼저 나온 놈은 빵을 한 번 먹구 나중 나온 놈은 못먹으니까 누에가 된 놈이 있구 안 된 놈이 있는 거야. 그게 이제 한꺼번에 다 나왔을 때 해야 똑같이 나가는데 나중 나온 놈은 한 입이라도 덜 먹으니까 뭐야 더디 크고 더 먹은 놈은 더 크고 이러니까 누에가 뭐야 다 먹구 녀 잠을 잔 뒤에 그 뭐야 누에솥으로 고치 만들려고 올라가야 하는데 늙어서 실이 질질 나올 때 보면 아주 늙어 꼬부라져서 실이 나오는 놈두 있구 아주 시퍼런 게 청춘두 있구. 이렇게 되면 아주 된 놈이 있구 안 된 놈이 있어서 그게 아주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먼저 나온 놈을 굶겨도 죽지는 않으니까 그게 이제 맨 나중에 나오는 놈이 다 나오기까지 24시간 정도는 기다렸다가 다 나오면 그때 빵을 맥이기 시작을 해야 똑같이 나가지. 누에는 그렇게 하는 거야.

— 빵 이파리는 산에서 따오시나요?

아 뭐야. 촌에 집들 보면은 밭머리에 뽕나무 심어 놓은 게 있잖아? 그런 거 따다 맥이구 산에서 산뽕도 따다 맥이구. 산뽕은 우리 아주 한국 토산품인데 밭둑에 심은 거는 왜뽕이라구 일본에서 들어온 거야. 그래서 뽕이 좀 두터워서 먹을 양이 좀 많구. 우리 한국뽕은 뽕잎이 진수가 다리가 꺾어진 거더라구. 그런데 한국뽕은 얇으면서 영양분이 좀 적지. 그래서 산뽕을 따다 맥이려면은 엄청 많이 따다 맥여야 되구. 왜뽕을 맥이려면은 들 맥여두 영양분이 흡수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산뽕하구 집에서 마을 복판에 있는 뽕과는 차이가 있구.

— 왜뽕이 더 영양분이 좋네요?

그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누에를 올릴 적에 소알이에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소알이가 소나무를 따다가 갖다놓으면 그게 습기가 있어서 누에가 뭐야 고치를 지으려고 하면은 습기가 있으니까 실을 늘이려고 하면은 수분이 실에 염색이 되버려. 그러면 색깔이 멋지게 안 나오고 물이 들고 그러면 고치 파는 데다 갖다 주면은 정말 똥값이 되구. 그걸 깨끗이 잘 해서 모아가야 되구. 그걸 쪼으로 마루시라구 지그자끄로 맨든 게 있어요. 그거에 이렇게 해봐두 이 누에가 거기에 오줌을 싸거든. 그러면 쪼에 물이 들어버려. 어떻하든지 물이 안 들게 하려구 공력을 엄청 들이는 거지 그게. 그걸 그렇게 하는 거야. 누에치는 방법이 별것두 아니구. 누에를 치는 과정에 이웃에서라도 지저분하게, 옛날 민간요법 시절이겠지. 뭐 좀 부정한 사람이 와서 본다, 그러면 이웃사람이라도 와서 “아 이 집 누에 많이 컸네” 이러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듯해 뭐 뱀을 하나 잡았다, 뱀을 잡은 사람이 와서 구경을 했다, 그러면 누에에 물이 드는 거야!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아예 가려야지. 그래서 못오게 하는 거지. 누에치는 게 그래.

— 녀 잠을 잔다는 게 우리 사람처럼 새벽에 일어나고 밤에 자는 것과는 다른 거겠죠?

그게 아니구 누에가 녀 잠을 자거든. 네 번을 자는데 한 번을 하면 오늘 아침서부터 잔다면 내일 아침까지는 자는 거야. 그래 또 일어나면 뽕을 버적버적 먹어대는 거지 뭐. 그렇게 뽕을 아주 잘 뽕이면은 잠자는 것도 좀 빨라지구 잘 안 뽕이면 잠자는 것두 좀 늦구. 한 잠 자구 며칠 먹구 한 잠 자구 며칠 먹구 이래가지구 완전히 네 번을 자구 뽕을 먹구 고치 갖다 팔기까지 한 달 한 5일서부터, 그러니까 삼십오일부터 사십오일 어간에 갖다 파는 거야 그게.

— 누에농사에서 가장 힘든 일은 뭔가요?

누에를 길러서 팔아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좀 신경을 써야 해. 우리 식은밥 먹듯이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하하.

_ 누에가 고치를 짓고 나면은 죽나요?

고치 안에서 실이 뱃속에서 다 빠져 나오면, 실을 내서 고치를 만들잖아? 그러면 우리 시중에서 “뻔데기”, “뻔데기” 하는 거 있지?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거야.

_ 고치 안에서요?

그래.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을 우리 지금 시중의 뻔데기 장사들은, 옛날에는 명주실로 빼서 옷감도 만들려고 그랬고, 요즘에는 옷감이 너무 뻤으니까 누에를 길러서 뭘 하느냐면 고치가 다 되고 나면 그 속에 뻔데기를 꺼내기 위해서 누에고치 끝을 전수 찢아버려. 자르면 말라버린 뻔데기가 그 안에 있거든. 그 안을 털어서 뻔데기만 팔아먹구 누에고치는 내버리는 거야 지금은. 그 시중에 가면은 뻔데기 장사, 그게 전수 뻔데기 빼서 하는 거야. 옷감은 하나두 안 만들더구만 뭘.

_ 네 그러니까 누에는 자기 주변을 실로 감싸서 고치는 만들고 나서 자신은 그 안에서 죽은 거군요?

그렇지. 그 안에서 아주 말라버려. 쪼글쪼글하니 발그레한 색이 나와 있지 아주. 누에가 뽕잎을 먹으면 그 진이 실이 되거든. 그래서 누에가 실을 늘여서 집을 짓구 나면, 사람 죽어 묻으면 살 썩구 뻘다구만 남듯이 그렇게 뻔데기로 남는 거지. 그걸 가져다가 장사꾼들이 “뻔데기”, “뻔데기”하며 팔아먹는 거지.

_ 그러면은 봄에 누에를 했다면 가을에 어디에서 또 알을 받아야 해요?

봄에 했던 누에 나방이가 또 알을 쓰러 놓지. 후손, 누에가 나방이가 나오는 거는 누에고치가 다 만들어져도 그 옆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자동으로. 거기서 나방이 나와. 하얀 나방이 나와서, 그 나오는 것을 보면 알을 쓸개꿈 자리를 만들어 주거든. 그러면 거기에 알을 낳다 싸 놓으면 아주 폴로 붙인 것처럼 멋지게 종이에 붙는다구. 그걸 그대로 뒀다가 가을에 누에가 나오게끔 진사를 해서 가을에 누에를 치는 거구.

— 그러면 다음 봄에는 어떻게 해요?

봄에도 또 역시 가을에 그게 씨가 돼서 겨울을 나지. 그것두 씨가 시간이 됐다고 나오는 게 아니구. 그것두 이제 온도가 맞아야 나오기 때문에 겨울에 날씨가 추우면은 가만히 있다가 봄에 나오는 거지.

— 그렇군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모르잖아요?

아 모르나마나지. 우리가 서울에 저저 냇강마을에서 서울에 홍보를 하려고 행사에 가는데 누에를 가져가 보면, 누에를 가져갈 때 누에가 작은 거 큰 거 뭐 계단식으로 다섯 가지 정도를 가져가거든. 가져가서 다 큰 거는 누에고치를 만들려고 하면은 거기에 고치 만들 수 있게 해놓구. 또 잔 놈은 요게 이렇게 커서 요렇게 됐다. 요거는 아기 요거는 언니 요거는 형아 이렇다 하면서 애들 데리고 놀구. 뭐야 애들이 그걸 가주고 싶어 하면 물컵에 뽕잎 하나 담아다 한두어 마리 집어서 “이거 가져가 잘 키워” 이러면 가져만 가면 뭐 애들이 뭐 입에다 사탕 같은 거 물구 들크무리한 냄새 풍기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달라고 하면 더러 주고. 아주 누에고치를 홍천에는 전문으로 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홍천에 연결해서 서울 가다가 거기 들려서 뽕잎까지 거기서 다 사서 가지. 서울 가서 홍보를 하면은 누에 때문에 애들이 아주 바글바글해. 너무 애들이 버글버글하니까 귀찮더라구.

— 애들이 좋아하는군요?

아 좋아하다마다. 어른두 누에게 뭔지 몰라. 그래서 “옛날에 명주를 아느냐?” 그러면 누에를 모르는데 명주를 알아? 누에가 실을 뿜글어 놓은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 누에 실을 뽑으려면 뽕데기를 꺼내야 되는데 못 꺼내잖아? 고치를 자르지 않으니까. 그래 화롯불 같은 데에 냄비를 올리고 물을 붓구 물이 뜨듯하면은 누에고치를 물에 넣어. 그러면 실이 붙는단 말이야. 그러면 여남은 가닥을 합해야 해. 너무 가늘어서, 열 가닥 이상 합해서 실을 구멍 하나 조그만 하게 뚫어서 실을 넣고는 죽죽 잡아당기면 그 누에고치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실이 풀려 나온다고. 그런 다음에 실이 다 빠져나오면 뽕데기가 물에 붙어서

시중에서 삶아 놓구 파는 것처럼 돼. 그걸 젓가락으로 집어내서 화룻불 가장자리에 올려놓으면 말라요. 마르면 집어먹으면 맛있어! 그래서 그런 것도 집어먹어 보고, 우린 별거 다 해봤지.

_ 그거는 민간에서 실을 뽑는 방법이네요?

그럼.

_ 그렇게 실을 내서 옷감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요즘에 왜 저저 대마 껍데기로 베 짜는 베틀 봤지? 그거야. 그 거로 베 짜듯이 짜는 거야. 똑같지 뭐. 그런데 짜는 바디라는 게 있거든. 그게 아주 바디살이 얇따랗게 만든 거로 해야지, 그 바디가 녀새바디가 있구, 보름새바디가 있구 뭐 그래. 녀새바디는 막 짜는 바디구 보름새라는 거는 곱게 짜는 바디구. 그래서 아주 고운 걸로 짜면은 명주가 되지.

_ 명주가 비단이죠?

그렇지. 그럼. 지금 보면 뭐 ‘비단이 장사 왕서방’이라는 노래가 있잖아? 그 사람이 명주장사야.

_ 명주 천이 아주 보들보들하니 좋잖아요?

그렇지. 지금은 명주로 천은 맨든 걸 볼래야 없어. 맨들지는 않으니까. 그걸 맨들면 품값이 안 나오는데 그걸 맨들어? 그러구 누에두 옛날에는 한 가지 색만 있었어. 고치를 지면 하얀색 하나뿐이었어. 지금은 아주 총천연색이 다 나오네. 누에가 노란색, 빨간색, 알록달록한 거, 뱀이 하나에 여러 색인 것처럼 누에고치가 그런 색으로 나와.

_ 개발을 했나보네요?

그랬나봐. 몇 가지인지도 몰라. 우리도 여러 가지 가자고 서울에 가서 홍보를 했어. 누에를 치는 곳에서 요즘은 뽕데기로 나가게 하려고 치는 거지 옷감은 안 만들어. 요즘엔 누에치는 사람들이 뽕데기 팔라고 누에 치지 옷감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_ 그래서 요즘에 뽕데기가 비싼가 보네요?

뽕데기가 암병이니 뭐니, 누에가루도 어느 병에 좋다고 하잖아? 그래서 팔리는 거야. 약재로 쓰는 거야. 요즘도 동네에서 양술에다가 뽕데기를 삶아서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값이 만만치 않아요. 종이컵으로 하나 담으면 2천 원은 할 거야. 그렇게 해서 팔아먹구. 또 뽕데기가 완전히 건조된 거를 갈아서 이게 무슨 병에 좋구 좋구 하며 팔구. 요즘 누에치는 거는 뽕데기 팔아먹으려고 누에를 치기 때문에 뭐 명주천 만든다는 거는 없어.

_ 아까 38선이 터지면서 도망을 가셨다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셨어요?

김생수

쫓겨가야 많이 못가죠. 홍천 서석으로 가고, 최고 많이 간 사람이 홍천 가고 말았을 거예요.



김생수 씨

_ 전쟁 나던 6월 25일 전날에 이곳은 어떤 분위기가 있었나요?

김생수

어른들은, 여기에 8연대가 있었는데, 현리 운니덕에 갔어요. 웬만한 집은 어머니와 애들은 집에 있고, 어른들은 집 지러 갔다가 피난 가고. 우리는 보파리 사서 5-60리 갔다가, 한 이틀 있다가 도로 왔어요.

장형기

여름 난리는 얼마 못갔고, 겨울 난리에 멀리 갔지. 겨울 난리에 우리는 경상북도 상주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한 해를 묵었지.

_ 겨울 난리가 뭔가요?

장형기

자네들이(북한군이) 여름에 나왔다가 이차로 겨울에 또 나왔단 말이예요. 동짓달 난리라고 해. 그때는 멀리 갔지. 우리 집은 농사를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님이 또 나 열여섯 살 먹었을 적에 교통사고가 나서 일을 못하시고, 우리는 말하자면 내가 다 했어요. 화전불도 그래서 난 거고.

_ 화전 불 난 다음에는 뭐하셨어요?

장형기

집에서 농사를 지었지. 그때만 해도 농약이 없으니까 제초제 안 뿌리고 손으로 논을 매고 했지요. 그때는 물이 없어서 여름에 논을 말리면 제초제가 없어서 땅을 파서 뒤집어야 하는데 땅이 딱딱해서 파지를 못하는 거야. 호미로 파서 얹어서 밭 매듯이 땀다고. 근데 지금은 제초제가 나와서 요즘은 논 말라도 신경 안 쓰는 거야.

_ 논에도 약을 치나요?

장형기

제초제를 쳐야 풀이 안 나오죠. 제초제를 안 치고는 논농사 못 짓지. 풀이 나와서 못해.

김생수

제초제를 안 쓰면 한 되 나올 거 한 홉 밖에 수확을 못하죠.

장형기

옛날에는 백 평에 벼가 두 가마니 나왔는데 요즘은 쌀이 두 가마가 나와. 그러니 요즘 살기 좋은 거지. 옛날에 일단 먹을 게 없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나구. 우선 음식이 해결돼야지. 아까 누에 얘기 나왔지만 내가



울력으로 모를 심는 모습이다.

68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 농가에서 봄이면 누에 안 치는 사람이 없었어. 누에가 모를 심으면 너 잠 자고 올라간다고. 그러면 빵을 많이 따와야 되는데 모 심느라구 바쁘잖아. 그때가 사람이 바쁜 때야. 그때는 주로 산팽이야. 소두 그때는 풀 벼다 먹었지. 가을에 벳짚 나오는 거 지붕에 얹으면 소가 먹을 게 없는데 그러면 베어다 먹었지. 요즘엔 풀을 안 베서 강변에 풀이 천지야. 요즘 젊은 사람들 나라가 잘 살게 돼서 잘 사는 거야.

_ 화전 하시던 얘기를 해주세요?

김생수

나는 화전을 75년도 화전 정리 될 때까지 한 거야.

장화영

그때 내가 현직에 근무했었는데 불이 여기서 사방 저기서 사방 막 나는 거야. 불을 질러가 조 잘되지 쿵 잘되지. 다니면 잡을 수가 없어. 서로 안 왔다는데 어떻게 잡아. 그래서 그 화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불은 무지하게 난 거야.

장형기

지금은 장비가 좋아 불을 잘 끄는데 그때는 불이 나면 도리가 없으니까

맛볼을 지른다구. 저쪽에 불이 나면 이쪽에 같이 질러서 마주치게 해. 그렇게 불을 끄니까 불 탄 산이 많지. 일 년 동안 불에 다 탔으니까 풀도 안 나. 그래서 김 안 매고 하느라고 화전이에요.

김생수

오륙 년 하면 못해먹어요. 그러면 버리고 딴 데 가서 하고, 그러면 몇 개 있다가 다른 사람이 가서 그 밭에서 하고. 그 당시는 뭐 하이튼 645년도에는 불이 날마다 탔으니까는. 그게 다 싸놓은 불이야. 국유림에 일부러 싸왔어.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불을 놓구. 그런 뒤에 비알에 한 일곱 여덟이 한 번에 가서 밭을 팝니다. 꼭대기서 먼저 파고 나가구 밑에서 그 다음에 가고, 돌멩이가 내려오면 밭등 쫘까봐 위에서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례차례로. 첫 해는 조이를 심구고 이태 쟈 가서는 콩을 심구고 삼년 쟈 가서는 팥을 심구고. 그 다음에 다시 조이를 심구고.

장화영

하루같이라는 게 밭 천 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가 가는 거예요.

장형기

소가 갈구 나가면 돌멩이나 뿌레기가 남지. 그러면 할아버지들은 맨손으로 잡아채면 뚝뚝 끊어지는데 우리 어린 사람들은 가서 쥐구 잡아채면 뚝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손이 끊어져. 피가 나.

김생수

애들을 시킬 적에는 호미를 가지구 잡아다녀 끊어라 하지. 어른들은 잡아다니면 끊어지지. 할아버지들은 손을 베지 않아.

장형기

지금은 장갑을 끼고 일하지만 그때는 장갑이 없어. 장갑을 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은 잡아다니면 손이 끊어지고 노인들은 잡아다니면 풀이 뚝뚝 끊어지는 거야. 생각하면 그 일을 어떻게 했나 싶구 그래요.

김생수

그 시절이 그래도 좋았어요. 지금보다 인심 좋구. 일을 해달라고 하면 서로 없어두 돌아가며 마아서 품앗이라구 어울려 했다구. 지금은 어울



상남의 모습

려 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은 돈 없으면 농사도 못 저. 누가 해달라고 하면 나 못해요 끝나는 거지. 옛날엔 못해두 좀 해줘 해줘 하면 그래 그러면 해줄게. 그 시절에 좋았죠. 그 시절이 인심은 좋았죠.

장형기

아파서 병이 나서 김을 못매면 동네 사람이 가서 매주고 그랬어요. 지금은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장화영

그때는 십리인데도 제사 오라고 하면 가요. 가고, 와서 해주고. 품앗이 하고, 또 추수할 때는요. 울력이라고 집집이 가서, 콩을, 산에 있으니까 혼자 못가져오니깐. 등짐을 저서 집에 가져와서, 오늘은 누군 것 지고 내일은 누구 것 지고 밤에 한 짐씩 해다 놓지요.

김생수

울력은 가을이면 저녁 아마 다섯 시면 컴컴할 거요, 네 시쯤 모여서 가는 그래요. 골짜구니로. 콩이면 콩, 팔이면 팔으로 한 짐씩 저다가 주는 거예요.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 시절에 좋았다구.

장화영

말하자면 상부상조야.

김생수

그래야 그 당시 농사를 저 봐야 잘 되면 그저 한 가마 그거 밖에 안 났어요. 묵발떼기 해봐야. 지금은 콩을 심어두 세 알이면 세 알, 네 알이면 네 알을 딱 심는데 그 전에는 한 삼십 킬로 깊어지고 가서 일곱 여덟 알을 심어야 해. 많이 심어야 해. 그 전에는 씨앗 구하기도 힘들었어. 없는 분들은 장리라고 옥수수, 쌀, 콩을 내 먹는 거요. 장리는 한 달 가져오면 이자를 줘야해. 없는 분들은 그걸 내서 먹어. 가을에 가면 갇고 나면 또 없어서 내 먹구, 그 전에는 그렇게 지냈어.

장화영

없는 사람들만 죽는 거지. 오십 프로를 붙여 주니까. 우리 어려서 그맘때 못먹어서 부종난 사람을 봤어. 얼굴이 부는 사람. 얼마나 굶었으면 사람의 얼굴이 부을까.

_ 어떤 모습인데요?

장화영

여느 때 병난 사람처럼 부었어.

김생수

요즘은 드물지. 그때는 이월 삼월 사월에 부종난 사람이 보여.

_ 못 먹으면 붓게 되는군요?

김생수

네. 굶으니까.

장형기

남자는 다니면서라도 얻어먹기도 하는데 집에 있는 아줌마들은 얼마나 배고팠겠냐구?

김생수

마시는 건 물 밖에 없으니까 뭐.

장형기

얼마나 굶으면 그럴까…….

_ 많이 굶으셨나 봐요?

장형기

네. 봤어 그런 사람. 우리두 육이오 나구 굶기야 굶었겠지만, 점심 없이
어려서 살고 그랬지만. 한 집 노인네는 정말 죽었더라구. 죽을까 겁나
드라구. 사람이 안 죽데.

김생수

안 죽어. 그 당시는 한 개 리에 부종난 사람이 서넛은 됐어.

_ 봄이면 그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김생수, 장화영, 장형기

못 먹어서, 못 먹어서 보이지.

장형기

우리 기억으로는 박 대통령 나오고서 통일벼 종자 나오면서 좀 살기 괜
찮게 된 거야. 수확이 많아서.

김생수

그때부터 흰쌀밥이 차츰차츰 늘었죠.

장형기

논에 벼가 백 평에 두 가마도 잘 안 났는데 지금은 두 가마가 나잖아요.

김생수

한 가마 났어. 한 가마.

장형기

벼 털러 가면 비료가 없는 데다 요소만 줘서 벼가 죽어서 쪽정벼만 남고

없어. 그러니 형편없이 사는 게. 여기 내가 보기엔 상남은 나왔어. 장이 있어서 하남은 뤘.

_ 상남은 장거리라요?

장화영

여기는 시장이 닳새마다 한 번씩 켜어요.

장형기

저 화전민 꼴짜기 사람들이 닳새 매다 한 번씩 장보라 나왔지. 장사를 하니까 좀 낫지. 하다못해 음식장사라도 하면 좋은데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돈 나올 곳이 없잖아요. 힘들었어요. 일 년 내내 집에서 필요한 거를 가게집에서 계속 외상으로 갖다 먹구 가을에 콩 털구 팥 털구 해서 저다 주구 하고 나면 먹을 양식이 딸리잖아. 그러니까 뭘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거야.

김생수

가난한 분들은 계속 가난했으니까. 뭘 일어날 힘이 없잖아.

장형기

헤어날 수가 없는 게 먹을 게 모자라면 갖다 쓰고 붙여다 갖다 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반을 붙여다 갖다 주니까 못살 수밖에.

_ 왜 그렇게 이자를 많이 준 건가요?

김생수

그것두 없어. 그것두 누구 말파나 신용이 좋은 사람이나 주지 신용 좀 좋지 않으면 안 줘.

장형기

소두 있는 사람이나 다 가지고 있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소를 24개월을 내가 길러줘야 조그만 송아지 하나 준다구. 겨릿소라고 하는데 그거 근근이 키워서 여러 마리가 되면 괜찮은 데 돈이 필요하면 또 팔아 써야 되잖아. 그럼 만날 일어날 수가 없어. 요즘에 농협에서 이자 싼 거 쓰고 없는 사람 살기가 좋잖아요. 농토도 흔해서 남의 논 도지 많

이 안 주고두 붙이구 뭐. 요즘은 대신에 농산물값이 없어. 없어. 옛날에는 많이 생산이 안 돼 그런지 몰라두 곡식이 그래두 값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지금은 곡식이 있어두 팔 수가 없어. 그래두 배고프지는 않으니까 낫지.

장화영

그때는 옥수수 닻되를 받고 일했어요.

김생수

그 당시는 장정이 남의 일을 하면 친하다구 하면 한 말을 주고, 그리고 좀 서급서급한 사람은 닻되, 엇되를 주었어요. 그걸 갖다가 잡수려면 가난한 사람은 박박 가는 거예요. 갈아서 나물 뜯어서 너어서 죽을 썰서 먹는 거예요. 강냉이죽인데 후루루루 마시는 거예요.

장형기

내가 68년도에 군대를 갖는데 그때까지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모를 심어도 쌀 닻되 밖에 안 줬어. 벼 한 말 주는 집은, 잘 익은 걸 주면 좋은데 어떤 집은 쪽정벼를 줬.

_ 발일보다 논일이 더 비싼 거예요?

장형기

논일보다 발일이 더 힘들지, 힘들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힘 안들이고 자꾸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계속 가난해 지구. 내가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나 싶어 진짜.

김생수

그 당시에 품값이 최고 비싼 일은 갈을 꺾는 거야. 갈이라구 논에다 풀을 깎아 놓은 거야.

장형기

모 심기 전에 떡갈나무 잎을 갖다 부어서 쓰레질을 해서 벼 심는다구.

_ 그걸 왜 하세요?

장형기

아, 거름.

김생수

지금으로 말하면 퇴비예요. 그걸 넣으면 벼가 잘 돼요. 거 갈을 꺾어 넣으면 쌀을 한 말을 주어요. 최고 비쌌습니다.

_ 왜 비싼 거지요?

김생수

힘이 그만큼 들어. 그거는 새벽 네 시 다섯 시에 나갑니다. 그러면 잘 안 뵈요. 어두우면 가만히 앉았다 나무를 해요. 지게루 지고 하루에 일곱 번 왔다 갔다를 해야 해요. 갈품이 하루에 쌀 한 말.

장화영

그걸 논에 갖다 갈구 소루 갈구 그래서 모를 심으면 퇴비가 되는 거야.

김생수

있는 사람들은 갈을 꺾어 넣어서 벼가 잘 되는데 없는 사람들은 품 팔다 보니까 자기 논이 벼가 자꾸 죽어. 자기 논이 있어두 갈 한 번 넣지를 못해. 그 전에는 논에 가면 나뭇가지고 논에 둥둥 있었다구. 그게 썩어서 비료가 되는 거야.

장형기

지금론 벼가 올라와서 벼가 잘 돼서 논바닥이 안 보여. 그때는 논바닥이 다 보였어. 환했다구.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야. 벼가 크지를 못해. 옛날에는 비료가 있어두 제대로 쓸 줄도 모르고.

장화영

비료도 흙으로 나와. 한 포대가 그 동네에 나오면은 흙으로 뒷박으로 나눠서 써. 그러니 뭐가 돼.

김생수

그때 육이오 사변 나고 비료가 나왔는데 서로 반장을 안 하려고 해. 마을 사

람들이 비료를 서로 가지려고 싸우니까. 그때 뒷박으로 나누는데 누구는 더 주구 왜 나는 덜 주느냐고 다투거든. 그러니까 반장을 서로 안 보려구 그래.

장형기

한 육십오 년도까지 그랬을 거예요. 네. 비료를 반장이 뒷박으로 주는 게. 그러다가 가을에 저 비료값 견을 적에는 집집마다 계산해서 올려 줘. 그때 그랬어. 그리고 벼 품종이 지금은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병에 강한데 옛날에 육우도라는 벼는 바람에 잘 넘어가고 병에 약했어. 그리고 거름을 조금 하면 또 죽어. 안 하면 또 수확이 적어. 여름에 쌀 파는 집이 제일 부잣집이야. 농촌에는. 있어서 파는 거잖아.

장화영

장리도 그때 가져가는 거야. 부잣집에서 장리를 주는 거야.

김생수

지금 이런 여름 때가 장리쌀 한창 얻어먹을 때야.

장화영

한 가마를 먹으면 가을에 한 가마 반을 줘야 해.

— 회장님은 그때 뭘 하셨어요?

장화영

나는 영림서를 했지.



장화영 씨

_ 영림서의 권한이 굉장히 굉장했다고 하던데요?

장화영

그때는 불을 지른 사람을 잡아내지 못해. 누가 났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 보면 그 사람들이 화전을 하는 거야.

장형기

75년도에 화전을 정리한 뒤에는 그렇게 불이 많이 안 났어. 그 전에, 저 양반(장화영) 들어가기 전에...그 전에 많이 났어. 산전 정리된 뒤로는 많이 안 났어.

장화영

내가 68년도에 들어갔는데.

김생기

화전정리는 75년에 했는데 사람들을 이주시켰어.

_ 영림서 얘기 좀 해주세요?

김생수

그 당시는 나무를 베두 영림서 직원한테만 안 걸리면 돼. 걸릴까봐 망을 보면서 낭구를 비구 했지.

장형기

장화영 씨 들어간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산림간수가 수갑을 가지구 다녔다구. 현장에서 구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걸리면 현장에서 붙잡혀 가는 거여. 그때 간수가 경찰보다 더 무서운 거야. 나무 지구 오다가 걸리면 간수가 한 대 때리면 그게 오히려 낫지 차 태워서 가면 춘천까지 가는 거야. 그때 켈 무서운 거야. 겨울에 화목을 산에서 해다 땀는데 붙잡혀 가면 그 집은 얼어 죽잖아? 겁나지.

_ 장화영 회장님은 영림서에 근무하면서 대접을 잘 받으셨겠네요?

장화영

원래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그때 너나없이 못사니까 도벌이 심했어. 불

이 많이 났어. 하루에도 몇 번씩 나니까. 누가 노는지도 몰라. 넓은 땅 위에 누가 논 줄 알아? 봄, 여름에 가보면 다 해 붙었어. 그래 부수동 가니까 아주 환한 데다 불을 해놓구 화전을 붙였어. 하여튼 골짜구니 하나가 다야. 그러니까 그렇게 불 놓구 심구 해먹는 거야. 잡을 수두 없어. 그 전에는 나무를 베니까 물이 계속 내려왔는데 화전을 하지 않으면서부터는 나무가 많아져서 물이 부족한 거 같아. 그리고 시멘트로 밭이라도 그렇게.

_ 화전하는 당사자가 누군지 모르시는군요?

장화영

서로 안 했다고 하니까. 가을 되면 걷어 가버리고. 화전 정리하고 조립을 해서 녹화사업을 한 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_ 이주비는 얼마 주셨어요?

장화영

이주비를 누가 줘요?

김생수

그때 이주시키는데, 미산 서 양구를 가는데 17만 환인가 줬어요.

장화영

독가촌이 그래서 생긴 거야.

김생수

김신조 나오면서 독가촌이 생겼어. 68년 1월 21일.

장형기

골짜기 사람 위험하다구 해서 독가촌을 만들어서 화전민을 이주시킨 거지. 그 다음에 75년에 화전조립을 한 거지. 김신조 나오던 해에 독가촌 지어줬을 거야.

장화영

지금 군데군데 낙엽송이 있는 곳이 일단 그때는 산을 푸르게 하기 위

해서 낙엽송이 빨리 자라니까 심은 거야. 군데군데 시퍼런 게 그거예요.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빨리한 데가, 박 코리아라고 하잖아요. 군데군데 낙엽송이 있는 건 조림지다, 화전지라고 보면 딱 맞아. 그 다발이여.

장형기

그 나무가 많이 컸어요. 진짜 많이 컸어.

김생수

처음에는 낙엽송으로 시작이 됐다가 그 다음에 잣나무를 심었지. 지금은 상당히 나무가 좋아요.

_ 화전을 한 게 주민들에게는 사는 일이네요?

김생수

화전을 하지 못하게 한 뒤부터 사태가 나지 않아요. 포락이라고 하는데 산이 뭉개지는 현상이에요.

장형기

화전하는 사람들도 화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공장에서 일하게 됐으니 살지 그러지 않았으면 못살았을 거야. 그 사람들도.

_ 밤에는 뭐하고 노셨어요?

장형기

밤에 놀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낮에 일했으니 밤에 푹아떨어져 자야지. 놀러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

김생수

밤에는 신 삼았지. 쫄신. 여름철에두 식구가 너덧 되면 신을 날마다 삼아야 해. 맥을 못써요. 한 일주일 신으면. 육이오 난 뒤에도 삼았어. 58년도 군대 갈 때까지 쫄신을 삼았어.

장화영

여기 팔십 세 이상 되신 분들은 쫄신, 명석, 삼태기 이런 거 다 만들어.



삼태기

— 다 만들어 쓰신 거예요?

김생수

그럼, 다 자급자족이지. 짚으로 엮어서 삼태기 삼고. 삼태기도 새끼 짜서 하지.

장형기

요즘은 공장 서 만들 거 사다 쓰지만 그때는 자급자족을 했지. 삼태기도 만들어야 봄에 거름도 갖다가 밭에 뿌리지. 그때는 놀 게 없으니까 투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아침에 나와 보면은 머리가 덩수룩한 사람들이 다녀. 밤에 놀음하고 나온 사람들야. 내가 순경이라면 잘 붙잡을 거 같더라구. 동네마다 안 하는 사람이 없어. 그때 노인네들은 질목을 했고, 그 다음에는 화투, 지꾸땅을 했지. 질목은 곱때기로 만드는데 와르밧시 같애. 그 다음에는 화투로 했어요. 우리는 노름에 취미가 없었어. 보면은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없어도 밤에 가서 놀음을 해. 식구들고 생이 말이 아니지 뭐. 그거 하는 분들은 식구가 고생해. 식구들이 다 굶어. 굶으니까 장리 받아다 먹구 가을에 갇구. 아버지 따라 누굴 만났는데 아버지가 어째 겨울 먹을 농사는 지었나? 물으시더라구. 겨울 먹을



듬이는 옷감을 두드려서 펴는 도구다

농사만 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름내 받아다 먹구, 없는 사람은 농사도 질 게 없으니까, 그러구 가을에 갇으면 겨울에 또 먹을 게 금방 떨어져.

김생수

잘 사는 분들은 자꾸 잘 살구 빈곤한 집들은 계속 빈곤하고 그랬어. 가난한 집은 애들 학교도 못보내고, 아마 여기 70년도까지도 겹겹한 사람들이 많았어. 아마 받은 댕을 거야.

_ 살기 힘든 사람이요?

김생수

네.

장형기

부자는 연연이 오십 퍼센트씩 보내서 들어오니까. 없는 사람은 돈을 빌렸으나 갚아야 하니까 가난해 지는 거야. 일어나기가 힘들었어. 없는 사람은 진짜.

김생수

있는 사람은 토지가 있으니까 없는 사람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반만 나누어야 하는데 논 천 평을 주고서 쌀 몇 가마 해오라고, 도지를 주는 거야. 그러면 논 만약에 오백 평에 쌀 세 가마만 부쳐라 하면 나부팀이라두 아무것두 없으니까는 예, 그러겠습니까 해서 그 땅을 붙이는 거야. 가을에 수확을 해서 찢는다, 다섯 가마도 아니고 네 가마 나왔다면 세 가마 갖다 주고 한 가마 남는 거야. 그러면 농사가 해마다 적자가 되니까 그 사람한테도 신용을 못 얻어 땅이 떨어진단 말야. 세 가마 주면 세 가마는 떨어져야 뭐 이것저것 주면 다만 댓말이라도 남는데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은 남의 땅도 못얻어 부치구 만날 장리쌀만 먹게 되지. 빚을 지구.

장형기

논을 쥐서 농사 짓게 하구 반을 받는 걸 병작이라구 했어. 이건 주인이 후덕한 분이구. 다섯 가마 도지를 매겼는데 다섯 가마가 안 들어오면 사서라두 내라구 해. 그런 사람이 있었어.

김생수

다섯 가마 받기로 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세 가마가 나오면 세 가마만 받고 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열에 하나들이야. 후덕한 사람이 지. 못내면은 이자를 쳐서 내라고 해.

장화영

이자를 쳐서 내라고 하니까 못하는 사람은 반나 못살게 되는 거라구. 못갚으니까. 못갚은 게 또 이자를 쳐서 고리대금이 되는 거야. 그게 고리대금이야.

장형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영영 못갚으면 자기 땅을 처음에 팔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가을에 내가 갚으면 이 땅문서를 도로 주고 못갚으면 가지라구. 문서를 싸게 잡히는 거야. 가을에 무슨 수로 갚아. 그러면 그 땅이 지주에게 넘어가는 거야. 부지는 자꾸 부자가 되는 거야. 더 주지도 않고 냉겨 받고 마는 거야. 헤어날 수가 없었어. 요즘은 그래도 저리자금을 쓰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잖아. 이웃에 누가 빚이 있다면, 예전에는 빚이 제일 무섭다구 했는데 요즘은 그런데루 살아. 참 겁났어요 남의 돈. 남의 돈 쓰고 못갚으면 남의 머슴이라두 살아야 해. 부자가 돈 안 받구 그냥 놔두진 않는다구.

_ 그런 부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김생수

거의 다 돌아갔지. 가만히 보면 자손들이 다들 팔아먹구 뭐.

장형기

부자로 살던 사람들이 후덕한 분들은 자손들이 대접을 받고 좀 심한 사람들은 별루 더라구. 후덕해야 되나봐. 어떤 사람들은 5부 이자도 가져 가는 날부터 들어오는 날까지 따져. 어떤 집들은 감해주기도 하구. 야 박한 사람이 있지. 그런 사람들이 별루더라구. 오래가지 않아.

_ 즐거운 일 좀 말씀해 주세요.

장형기

그때는 라디오가 없었어요. 라디오가 오일육 혁명 무렵에 나왔는데. 우리 한 열여섯 살 무렵에 나왔는데.

김생수

그 당시 상남에 텔레비전 딱 하나 있었는데 요만한 거, 그거 구경하느라 구 모여서. 그 당시는 유성이, 돌려서 음악 듣는 거. 그거 상남에 몇 개 안 됐어.

장형기

내가 71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군대생활을 서울서 했거든. 근대 서울에는 부대에 그 텔레비전이 있었다구. 우리 내무반에두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제대해 71년도에 집에 왔는데 홍천에두 텔레비전이 없었어. 우리 아버님이 72년도에 사망하셨는데 홍천을 드나드시면서 텔레비전을 못 본거야. 우리 아버지가 텔레비를 못보고 돌아가셨어. 상남은 75년도 무렵에 텔레비가 들어왔을 거야. 그때 이 지역이 홍천까지두 70년에 텔레비 없었어. 서울에는 내무반에 있었구 다방에는 있었어.

김생수

나도 여기 텔레비는 59년도 여기 텔레비를 부평 미군부대에서 봤어. 59 연대에서. 미8군 공병대가 있더라구. 거기 59년 12월달에 가니까 미군 싸진 사무실에 티부이가 있더라구. 처음 봤어 그때. 그때 서울 가서 전차 구경 처음 하구.

장형기

상남에 지붕개량이 72년돈가 73년돈가 그때 됐구. 전기가 칠십 한 삼년도 그 무렵에 들어왔을 거야.

김생수

우리가 여기서 해서는 우리가 여단인가 거기에 가서 품을 팔았거든.

장형기

군부대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민간에 들어왔지. 그게 73년쯤 될 거야. 그전에는 전기가 없었지.

김생수

그 당시에 하루 정일 가서 품 파는데 전쫓대 11매다짜리가 있구 15매다 짜리가 있어요. 15매다짜리는 열여섯 사람이 미구 11매다 짜리는 여덟 이 미구 그런데 하루 두 개 밖에 미지 못해요. 그것두 그때 하루 품에 이만 원인가 만오천 원인가 그랬어요. 다른 품보다 미쌌아요. 그래 사흘을 가서 미구 했는데 아 여기가 부어가지구서는 사흘씩 하고는 못 맺어요. 한 열흘 있다가 또 오라구 해서 또 갔어요. 갔더니 그땐 또 하루 매 니까 또 부잖아. 그래서 못맺어요. 그때 전기를 우리가 미산까지 했거든. 미산은 75년도에 들어왔겠는데.

장형기

남포를 켜고, 우리 어릴 때 공부할 때는 등잔불이라구 봤어요? 못봤을 거 같은데. 등잔불을 켜 놓으면 누가 문 열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꺼져 바람에. 그걸 놓구 공부하다 보면 툭 꺼지구. 공부 좀 오래하면 기름 많이 없어진다고 노인네들이 불끄구 자라구 했어. 그 요즘 같으면 호롱불 켜고 공부하면 들면 얼마나 들어. 그땐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그 다

음에 남포등이 나왔구. 호야는 웬만하면 켜지 못했구. 여유가 있는 집은 초, 양초를 켜지. 양초 키면 부자지. 등잔불을 반딧불보다 조금 밝아. 그래 이렇게 놓구 보면 애들이나 보지 글씨도 잘 안 보이는데. 공부하는 것두 기름 없어진다고 일찍 자리구 했으니. 얼마나, 내가 한문 공부를 하는데 종이가 없어서 보다가 남은 신문 그것두 구하지를 못해서 헌 신문을 사와. 한 근에 얼마씩 사와. 그것두 붓글씨를 쓰면 쓴데다 또 쓰는 거야. 그러면 시커멓게 바른 거 모냥 돼. 그럼 이제 또 떨어지면 가서 또 사오고 또 사오고. 그렇게 해서 붓글씨 연습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종이 얼마나 흔해. 지금 이면지 보면 아까워서 이렇게 뒤. 이면지 같은 거는 쓸 수가 있는 건데.

김생수

그 당시에는 우리가 여기 암만 대가리가 좋다구 해두 원래 없으니까. 연필이 작아져서 깎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빨루 물어뜯으면 연필촉이 요만한 게 나와. 고게 짧아야 안 부러지는데 기니까 부러진단 말야. 남 공부할 적에 연필이 없으니 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선생이 와서 너 왜 안 쓰냐? 연필이 없어요. 아이 이눔아 연필두 없는데 무슨 학교를 오냐. 선생님이 요런 걸 주는 거야. 왜 이렇게 잘 부러지는지. 깎으면 똑 부러지고 깎으면 똑 부러지구. 연필, 공책 그런 것두 없어서. 그 당시에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름철에 이월 달 삼월 달에 일어나면 여기 저 동네 반장인가 조합장인가 조합장이지. 일본사람 밑에 직책을 맡아서는 아침밥 할 때 술을 열어봐요. 술에 쌀이라두 들어간 집은 체크를 하구 가구 아무것두 없는 집두 체크를 해서 가구. 지가 여기 가서 이제 면사무소에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개 아무개 몇 집은 쌀이 들어갔더라.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갑자기 와서 뺏어가. 우리야 그때 당시에 배를 고르게 육이오 사변 날 때까지 고른 거야. 한 팔년 간 고른 거야.

장형기

그러니까 형님 또래 형님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한 거야. 우리가 다섯 살 때 육이오가 났으니까. 우리 한참 클 나이네 점심 없이 살았으니까. 어떤 애들은 도토리묵을 먹구 왔어. 이빨을 보면 알아 새카매.

김생수

칠십 대까지 고생을 한 거야. 도토리묵이 먹으면 든든해.

_ 새마을운동 할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장형기

새마을운동은 여기는 75년 넘어서 시작을 했죠. 내가 군에 있을 적에 71년도에 평택에 대민지원을 나갔는데 거기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됐어. 내가 농로확장을 했는데. 제대를 해서 집에 오니까 여긴 아직 시작을 안 됐어. 그래서 새마을 농로 닦은 게 70한 3-4년도에 아마 농로를 닦았을 거야.

김생수

여기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게 75년도부터 시작해서 80년도까지 했지. 그때는 뭐 도자가 있습니까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곡괭이 가지구 돌맹이 주어다가 했지. 미산 여기두 주민들이 한 2년 닦았어. 그때 미산 주민이 한 72세덴가 73세덴가 2년을 닦았어.

장형기

처음에 농로확장을 할 적에 땅을 안 내놓으려구 니땅 내땅 다 달래서 넓혀야 된다고.

_ 먼저 농로부터 만든 거예요?

장형기

예. 농로부터. 그때는 차두 없으니까 리어카라두 끌구 다녀야 한다고 해서 닦은 거지. 경운기길이나 리어카길 정도 닦은 거야.

김생수

리어카길로 닦구 차츰차츰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보조로 세멘트를 대주구 해서.

장형기

농촌에 차 들어온 기 90년도 가까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때 75년도 무렵에는 기린 상남에 차 있는 집이 몇 집 없었어.

김생수

75년도 여기 상남에 차 있는 집이가 금철이가 쓰리쿼터가 하나 있었구, 심영란 씨가 있구, 그리고 제무시 두 대 가진 집이 있었구 그러구 없었어.

장형기

내가 군대에 있으면서 중장비를 하면서 수송부도 했는데 차 운전은 안 배운 원인이 평생 가두 내 차도 없을 것 같은데 해서 뭐해. 그래서 안 배웠는데 제대를 하고 집에 왔는데 한 90년도 좀 넘으니까 집집마다 차가 들어와. 그 다음에 면허가 필요해서 92년도에 내가 면허를 냈는데 우리나라가 그 전에는 그렇게 어려웠어. 처음에는 리어카길 땀다가 경운기 길 땀다가 그 다음에 차 들어오니까 찾길을 땀았지.

— 그 새마을운동은 뭐예요?

김생수

처음에 도로를 먼저 하구 그 다음에 지붕개량이 됐어요. 그 당시에 슬레이트로 바꾼 거야. 정부에서 농협에서.

장형기

그게 지붕개량이 되면서 농촌 형편이 좀 나아졌어요. 벧짚이 지붕에 올라가구 모자라거든. 소먹이가 없잖아. 소먹이가 없으니까 그때는 소먹이 줄도 몰랐구. 지붕에 들어가는 벧짚이 소먹이루 나가가 밭에 퇴비로 나가구. 지붕개량 하면서 좋아진 거여. 모자랐다구.

김생수

소먹이 줄 몰랐죠. 지붕을 해야만 안 새니까. 초가집은 한 해만 안 하면 새요. 벧짚이 없는 사람은 산에 가서 억새를 베요. 그거를 엮어서 지붕을 해요.

장형기

박 대통령이 지붕개량을 잘 한 거야. 거기 그러면서 벧짚이 퇴비루 나가구 소먹이루 나가구 그러면서 형편이 나아진 거라구. 집집마다 벧짚이 모자랐다구.

김생수

아이 자기 논이 없는 사람은 어찌든지 산에 가서 억새라두 해야지.

_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을 뭘 했나요?

장형기

육우단지를 시작했지. 육우단지는 박 대통령이 농가에 호당 소 다섯 마리
런지 여섯 마린지를 살 수 있게 내줬다구. 지금두 집집마다 싸이로통
있는 곳이 있잖아? 싸이로통을 만들었다구 세면으루다. 모래하구 돌하
구 실어다 만든 거야. 그게 박 대통령이 만들어서 한 사업이야. 농가에
잘살아 보자구. 한운데 그거를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 있구 머리 허
연 소는 전두환이 적에 전두환이 동생이 호주에서 들여왔지 시멘탈이
라구. 그게 사납기만 하구 안 커서 다 처분이 됐구. 그거 한 사람은 망했
어. 육우단지 해서 돈 번 사람이 있어요. 지금두 한우 한두 마리 키우며
괜찮은데. 안 길러.

김생수

한 마리 기르려면 땀마리 길러야지.

장형기

노인네들이 힘에 부쳐서 기를 수도 없잖아.

김생수

기를 수는 있는데요. 것두 기르려면 축사라도 깨끗이 지어서 해야 되는
데 옛날식으로 하면 일하기두 힘들구.

장형기

왜 내가 그런 말을 하나면 여름에 풀만 먹여도 돼. 사료는 겨울에만 주
면 돼. 저금통에 넣는 것보다 낫지. 옛날에는 부자라야 소를 먹였어요.
일꾼이나 있는 집이나 소를 두어 마리 먹이지.

김생수

지금 소를 먹이구 싶어두 젊은 사람이나 개울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지
나이 먹은 사람은 들어갔다가 올라오지두 못해요. 제방을 해놔서 어디

들어가지두 못해요. 숲이 우거졌지만 들어가지를 못해.

장형기

갈꿀은 뜨지를 얹아. 그래서 이삼일 뒀다가 맥여두 돼. 웬만한 노인이면 한두 마리 맥이면 좋겠는데 안 맥여. 여름에는 사료 안 맥이구 풀만 맥여두. 일찍 일어나서 가면 한두 짐은 비잖아. 요즘은 집집마다 차가 있잖아. 차루 하면 뭐.

김생수

지금은 풀을 비고 싶어두 차가 들어갈 때가 없어.

장형기

맞아 맞아. 내가 또 느끼는 건 소를 멕이지 않으니까 농촌에 거름이 없는 거야. 봄이면 닭똥, 돼지똥을 사서 뿌려. 그건 당일치기야. 그해 뿌리면 그해 다 소멸되는 거 같애. 소를 먹이면 퇴비두 나구. 괜찮을 것 같은데. 끝.

화전해서 돈 벌었어

인터뷰 날짜 2015년 8월 7일

인터뷰 장소 서흥1리 노인회관, 이천재 씨 집

_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천재고 36년생이에요. 올해 80이죠. 고향은, 홍천 서석 살다가 27살에 제대하고 여기 왔어요. 현주소는 서흥1리 1반 851-5.

엄경섭이고 77살이에요. 고향은 홍천이에요. 63년에 이곳에 들어왔어요. 현주소는 서흥1리 1087.

최종업이에요. 82살이고 이곳에는 24살 원주에서 제대하고 들어왔어요. 현주소는 서흥1리 1반 1101번.

대암산 바로 밑에 아홉 집 있어. 이 형님 사는 데는 다섯 집 있어. 반이 하나 있어. 서흥리 전체가 그때 7개 반이 있어. 사천리가 3반 강 건너 신바탈이 무쇠점이(탄광하는 자리가 있어), 잔다리가 4반, 설피골이.

_ 여기는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이천재

동기는, 우리 아버지도 약주 좋아해. 먹고 살기 위해 들어와. 제대하고 땅도 시원찮고, 한 군데 오래 사니 남이 싫은 소리도 하고, 온다고 온 게



서흥리 노인회관에서 말씀하시는 세 분

여기야. 온 목적은 우리 아버지는 술 먹는 게 좋고, 우리 형님은 투전 하는 게 좋아. 나 군대 있을 동안에 훌쩍 말아 먹었어. 그 당시 김인기라는 사람이 뒷골에서 솥산판을 했어. 내가 제대하기 전에 우리 형님이 여기 들어오셨어. 그래서 온 거야. 여기 찾아오느라 혼났어. 산판이 끝날 무렵에 들어왔는데 우리 형님이, 그때는 하루 살 한 말만 벌면 큰 벌이라고 했어. 오니까 산판이 끝난 거야. 솥도 다 해먹고 안 해. 형님 말을 듣고 들어온 거야. 남교리 황철골에. 그때 당시에 그때 혁명을 맞았어. 아는 사람이 목상을 하는데 숲도 굵고 원목도 해. 그래 밥 먹고 살기 위해 거기 간 거야. 3월 25일에 들어와서 한 6월에 황철골로 갔나? 내 머리가 돌대가리야. 산판이 뭔지 몰라. 갔더니 한 달 되면 간조를 주는 지 알았지, 그때는 톱 세 자루만 있으면 목상을 했어. 그때 돈 12만 원이면 지금 천만 원이 돼. 혁명이 나는 바람에 시시껍직한 목상은 목이 날아가. 목상이 있어야 원목도 팔아먹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도로 온 거야. 그때 형님은 여기 있었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농사를 했으니까 화전을 한 거야. 그때 내가 운이 열린 것 같아. 그때는 최종업 씨가 구장이었어. 그때 알아서 평생을 같이 살았어. 그때 당시 거기 해 먹게 없으니까 대암산에 약초가 많았어. 그때 여름을 약속 캐 먹고 살았

어. 흐르레기라는 게 있어. 짬뽕에 들어가는 버섯이야. 흐늘흐늘한 거. 그걸 모기버섯이라고 해 하지 때가 되면 그 전에 커야지 하지가 되면 벌레가 생겨. 그게 모기가 돼 나와. 그래서 모기버섯이야. 그거 한 근이면 쌀이 한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흐르레기가 잘 나는 나무를 몰라. 나는 숲산판에 낭구 많이 벤 곳을 찾아다니는데 굴피낭구에 흐르레기에 많이 있어. 제일 잘 나와. 나는 양지를 찾아다니며 깡파른 곳에 찾아다녀.

_ 농사를 61년도부터 하셨어요?

이천재

62년부터. 화전을 하려면 전해 7월 달에 산에 가서 낭구를 베서 제켜놔다가 봄에 불을 켜. 낭구에 불을 지르지 않으면 곡식이 안 돼. 그래서 화전이야. 아무리 낭구를 걷어내면 안 돼. 재가 비료성분이야. 가랑잎이 아무리 많아도 불을 질러야 돼. 봄에 눈 녹으면 2월에서 3월 사이에 달에 불을 켜.

_ 눈이 안 녹았을 텐데요?

이천재

옹달에는 눈이 안 돼. 양지에서 해야 해. 영림서가 있어서 불 켜놓은 게 금지야. 그래서 저녁에 켜 놔. 그때는 산에 불만 안 당기면 괜찮았어.

최종업

산림간수는 정식직원이 아니고 임시직인데, 아주 못되게 해. 술이나 닭이나 얻어 먹으려고.

이천재

집도요. 집도 질 때 와서 못짓게 해야지 짓고 나면 헐라는 소리를 못해.

최종업

예전에는 다 그랬어.

이천재

그때는 내 산이라도 화전을 맘대로 못하는데 국유림에 하니까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야. 간수가 불 지른 거 보면 왜 했느냐? 그러면 손이 밝이 되도록 빌어야지

최종업

한 60대세가 화전을 했어. 그러니까 맨날 영림서에서 나와서 불 난 거 보고 영림서로 오래. 내가 구장이니까 술집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무마를 시키고, 무마를 많이 시켰어. 부러진 나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게 했어. 정식직원은 그러지 않았는데 임시직원들이 악행을 한다고. 하도 악행을 해서 내가 때려죽인다고 했어. 돈을 주면은 입 닦고, 술도 좋아하고. 하여간 못됐어. 그때는 벌목을 많이 했어. 설피골에서 나무를 하면 물에 띄워. 하구에서 건져. 나무가 많아. 그거 봐도 이 자식들은 말을 안 해. 돈을 먹고 하는 거니까. 그때는 영림서 애들 때문에 못 살았어. 차라리 순경은 나아. 하여튼 영림서는 받아먹으려고.

_ 농사는 어떻게 지으세요?

이천재

그때는 비탈이 강파라. 소가 못갈아. 팽이로 파야 해. 나는 팽이로 파서 했어. 그런데 옷말을 사람들은 호미로 그냥 심더라고. 땅을 살살 파서 씨앗만 묻는 거야. 그래도 잘 되더라고. 골을 만들지 않아. 심 안 들고.

_ 뭘 심어여?

이천재

콩, 팥, 조. 콩과 팥은 팔아서 돈으로 쓰고, 주식은 옥수수, 백옥, 찰옥수수 말고 피옥수수 있어. 그럴 땅에 걸어서 먹고 살았지. 맷돌로 갈아서. 그냥 삶아 먹어도 되는데 주식이 못되고, 맷돌에 갈아야 해. 갈면 갈구, 껍데기, 쌀 세 가지가 나와. 굵은 게 나오면 옥시기 켜쌀. 가루는 켜쌀이라고 해. 진짜 갈구는 송편을 해먹구. 그때 쌀 한 말이면 품 세 개를 사. 밭일은 세 되. 소로 일하는 건 닷 되. 논에 소 모는 것도 닷 되.

_ 소는 누구 소예요?

이천재

소는 주인 소지. 소를 모는 사람을 선군이라고 불러. 여느 일꾼보다 앞



화전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이천재 씨

에 간다고 선군이야.

_ 농약은 안 치셨겠네요?

이천재

그때는 농약이 없었어. 박 대통령 나가고 나왔지. 빈대 약도 없었어.

_ 뒷골에서 화전한 사람은 몇 가구나 됐나요?

이천재

샘물 있는 곳에서 올라가면 넓은 데 나와. 거기에 내가 있었어. 거기 살던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사는 사람은 나와 또 한 가구 밖에 없어. 다 나가구.

_ 얼마나 하셨어요?

이천재

몇 천 평씩 했어. 경주 이씨네가 여기 살다가 전쟁이 나고 피난을 갔어. 수복이 된 뒤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점쟁이가 살 던데 들어가는 건 좋지 않다. 또 태어난 곳은 좋지 않다고 했대. 그분들이 살던 데에 내가 토막집을 진 거야. 나중에 거기를 찾아갔어. 그때 소 한 마리 값이 괜찮았어. 농사해서 돈을 벌어서 소를 키웠어. 그대 등기가 뭔지도 몰라. 그때 대서소에 알아봐서 내 집 지은 땅을 산 거야.

_ 화전해서 돈을 버신 거네요?

이천재

벌었지, 그때 그 땅을 돈 팔천사백 원에 팔았어. 그때 팔지 않았으면 부자가 됐을 텐데.

최종업

뒷골과 섭골이 화전정리 대상자였어. 그때 40여 가구가 나갔어. 그때가 70년도 초반이야. 화전정리는 대상 범위가 있어. 어디서 어디까지가. 선을 그어놓고 철거를 했어.

_ 이주비용을 주나요?

최종업

이주비용을 줬지. 정착금을 줬어. 4천 원인가. 요즘 돈으로 4백만 원쯤 되나.

_ 받고 나오셨어요?

이천재

나는 산 땅이 있어서 대상자가 아니라 받지 못했어. 그땐 내가 쌀 한 말에 품 세 개로 화전할 때에 머리가 좀 있어야 살아. 우리 장인이 머리가 좀 있었어. 그때 우리 저 큰 매형네 소, 그릿소가 있어. 삭소는 큰 소 갖다가 키우는 게 삭소고, 그릿소는 소를 2년 키워주면 송아지 한 마리를 줘 그게 그릿소야. 내가 군대 가기 전에 그릿소 하나를 받았어. 우리 마누라가 키웠어. 제대를 하니까 그 소가 새끼를 가졌어. 그런데 이리로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누구를 주었어. 요담에 송아지 나면 그 송아지는 당신이 같고, 큰 소는 내게 줘라 했지. 그래서 그 큰 소를 팔고 오려고 했는데 우리 장인이 돈을 있으면 쓰니까 두고 가라고 했어. 그래서 그냥 왔다가 화전을 시작하게 돼서 그 소를 끌고 오다가 상남에서 삼만오천 원에 팔았어. 그 돈으로 일꾼을 사서 화전을 했어. 화전을 크게 했다는 얘기지. 그때 애 둘을 데리고 들어왔어. 우리 큰아들이 올해 60인데 개 돌 사흘 앞두고 칠월 초하루에 입대를 했어.

_ 열심히 일하신 거 같아요?

이천재

13살에 해방됐는데 김매고 낭구하고, 일이라면 뭐.

_ 화전을 몇 년 간 하셨어요?

이천재

한 6-7년 했어.

_ 토막집을 지셨다고요?

최종업

나무를 우물 정자로 올려서 진흙으로 막은 집이야. 위에서 보면 우물이야. 여기에 지붕만 올리면 되지. 예전에는 화전민이 다 그 집에서 살았어.

이천재

예전에는 집이 없으면 한 칸에서 다 잤어. 칸을 막으면 두 칸이야. 도끼로 구멍을 뚫어. 그 구멍을 맞춰서 넣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산판하던 사람이 쓰던 토막집을 돈을 주고 살았어. 그 뒤에 이 서방네 땅을 사서 패방집을 지었어. 토막집보다 차원이 높지.

_ 자녀분들은 교육은 어떻게 하셨어요?

최종업

천도리로 학교를 다녔어. 너무 머니까 내가 구장을 할 때에 분교를 내 달라고 요청했어. 담당자가 분교할 땅이 있으냐고 해. 내 보겠다고 하고 임시로 우리 가게를 분교로 쓰게 했어. 내가 가게를 했거든. 그 가게를 하기 전에 비워 두었는데 그 가게에서 임시분교를 했어. 그 다음에 본교를 하려고, 그 당시 나와 자유당 중앙위원과 교육청에 가서 집을 지을 테니까 본교승인을 내 달라, 그렇게 하면 본교를 지겠다. 그때 학생이 180명인가 했어요. 화전민이 있어서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부역을 해서 나무로 집을 지었어. 7개 반이 다 모여서 밤에 산에 가서 벌목을 하는 거야 몰래. 몇 달에 걸쳐서 우마차로 밤에 조금씩 신고 와서 다섯 동을 지었어. 지금의 서흥초등학교 자리에. 선생들 숙소



서흥초등학교 5회 졸업사진이다



엄경섭 씨

도 짓고. 추우니까 구들장을 놔야 하는데 그거 하느라고 사람들이 애를 먹었어. 그때는 학부형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어. 그래서 학교가 된 거야. 그때 서흥국민학교지. 아마 64-5년일 거야.

엄경섭

저 안에 있으면서 부역을 하러 나왔어.

이천재

그때는 이 사람이(최종업) 지도력이 좋아서 다 했어. 지금처럼 말이 많아서 못해.

최종업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이장이 술 몇 명 들고 집에 찾아가서 형님 하면서 하면 왜 안 돼? 예전에는 이장하면 망한다고 했어. 또 망했고. 내가 장사를 하니까 반장들에게 술 안 줄 수가 없어. 어디 가면 구장이라고 그냥 가지 못해. 뭐라도 가져가야지.

엄경섭

그때는 술을 왜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몰라.

_ 그때는 뭐하고 노셨어요?

이천재

그때 금성라디오가 있었어. 바가지를 쓰고 헌 거를 샀어. 그걸 집에 갔다 놔더니 연속극 듣느라고 사람들이 와서 안 가. 먹구 사는 게 포도청이라고 딴 생각 할 게 없어. 일하느라. 하루 밥 세끼 먹으면 상책이라고 생각했어.

_ 세 끼는 드실만 했어요?

이천재

세 끼야 먹었지. 사람을 사서 화전을 했다고 했잖아.

최종업

옥수수 이런 거로 끼니를 해.

이천재

채소는 텃밭에 심지, 판매용으로는 하는 사람이 없어.

_ 산에서 농사 지를 때 어려운 점은?

이천재

그때는 짐승이 없었어. 그때는 대노루가 많았지만 요즘처럼 고라니가

없었어. 고라니는 외국서 들어온 짐승이고, 대노루는 고라니 같이 생겼는데 더 커. 대암산에 산양이 있어. 유명하지. 산양은 바위로만 다녀. 대노루는 싸리순을 먹는데 나무를 심어 나무가 자라면서 그늘이 지니까 싸리순이 없어졌어.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민가로 내려오는 거야. 노루가 참싸리를 잘 먹어.

엄정섭

이 씨네 뒤로 가면 바위거든. 그쪽으로 다녔어.

— 농사를 지으실 때 뭐가 가장 어려웠어요?

이천재

산림간수가 가장 힘들었지.

엄정섭

그때는 기계가 없고 사람이 다 해서 힘들었지.

이천재

그때는 여기에 대장간이 있었어. 그게 아마 서화면에서 하나 였다가 천도리에 하나 생겼어.

— 산에서 농사 하는게 일반 땅에서 농사보다 잘 되나요?

엄정섭

지금은 비료가 있으니까 일반 땅에 농사가 잘 되는데, 그때는 산에 나무를 태워서 그게 비료가 돼서 할 만해.

이천재

한 4년 하면 땅기운이 빠져서 안 돼. 그러면 딴 데로 옮겨. 근데 우리 형님과 다른 사람들은 화전을 비면 좋은 데를 넓게 안 보고 좁은 데만 봐. 그런데 내가 하면 잘 돼네. 좋은 데는 같은 비알이라도 깊은 데가 있어. 농사꾼은 보면 알아. 흙이 많고, 숨이 깊다고 그래. 흙이 두껍다는 뜻이야. 여기에 가면 산비탈이 있는데 가을에 가니까 칩담불이 싹 덮여서 도저히 났 수 가 없어. 그래서 마누라와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요두를 잡으면 꼭다리가 잘 떨어져 무조건 잡아당기는 거야. 그래서 말아. 말

아서 밑으로 굴리니까 멍석처럼 말리는 거야. 그리고 심었어. 그랬더니 가을에 하얗게 났어. 팔이 났어.

_ 산양은 어떻게 잡으세요?

엄경섭

옥로로 잡아.

이천재

산양은 그림만 봤지. 업으로 잡는 사람이 있었지. 예전에 심적에 가면 대노루가 많았어. 양구 사람들이 옥로로 잡아. 그 사람들에게 옥로 놓는 걸 배웠는데 안 잡혀. 딱 한 번 잡아봤네. 어떤 사람은 옥로를 호박덤불을 태워서 해라. 짐승이 냄새를 잘 맡으니까 뭐 말이 많은데 놓는 위치를 잘 놓아야 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칩을 빼내고 껍데기로 옥로를 씌워서 놔라. 돼지는 후각, 청각, 미각을 다 갖추서 잡기 힘들어. 돼지도 땀기 좋은 길로 땀겨. 돼지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새기를 문대. 그러면 새끼가 껍뻑 거리잖아. 그러면 사람이 달려오는지를 본다는 거야.

_ 겨울에는 뭐 하세요?

이천재

금성라디오 듣지. 텔레비는 여기 내려와서 샀어. 나도 노랑이야. 전화도 맨 늦게 났어.

_ 토막집에서 사시면 추우실 텐데요?

엄경섭

오히려 따뜻하지.

이천재

소죽을 쑤면 더워. 나무는 많지.

엄경섭

펼펼 끓어.

_ 나무를 하시면 불법이잖아요?

이천재

소 밭구 가져와서 낭구를 해 가. 큰 나무 베면 걸려. 그러다가 걸리면 이장이나 아는 사람을 앞에 세워. 돈은 우리가 낼 테니까 당신이 교제 좀 해라.

_ 뭐 재미있는 일도 말씀해 주세요?

이천재

산골짜기에 재미있는 일이 있나. 나는 옥수수밥이라도 먹었어. 형편이 나았어. 그때 다섯 집이 사는데, 우리 두 형제, 두 사람 모이면 열 사람 밖에 더 돼. 애들 빼 놓고.

이천재

이 길이 전쟁 때 미군이 닦았어. 한국전쟁 나고 밀고 올라갈 때. 넘어가면 양구 동면이야. 용늪이 상봉 밑에 있어. 양구서는 차가 올라오는데 여기서서는 못가. 군인 주둔지가 양구에 있는 군인이 대암산을 맡아 편입돼. 인제 땅이지만 주도권을 양구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 나물도 양구 사람이 다 뜯어가. 그때 인제 사람이 뜯다가 붙들리면 양구 헌병대까지 갔다 와야 해. 김대중 대통령 되고 나아졌지. 집에서 저기까지는 목상을 하는 성낙신이라는 사람이 닦았어. 성낙신이라는 사람이 죽었겠지. 산판 낭구 실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낭무 무척 나갔어.

_ 어르신이 들어오셨을 때 이 길이 있었어요?

이천재

이 길은 없었고 저 꼭대기 길로 나녔지. 이 길이 69년 70년에 닦았어. 이 전에는 흙길이야. 그때 내 들어온 게 숲산판을 저 위로 했어. 여기 아래로는 안 했어. 숲가마가 지금도 흔적이 있어. 송목은 산판도 하고, 소 낭구는 각자 캐고, 참나무 잡목은 숲을 굽구. 여기도 토막집이 있었어. 내가 살던 곳이 저 집이야. 저기에 꽤방집을 짓고 살았어.



서흥리 노인회관에서 대암산으로 가는 길이다

_ 화전민들 이주시키고 나무를 심었나요?

이전인지 이후인지 모르지만 심었어. 이 골짜기에 귀신이 많았어.

_ 무슨 귀신이에요?

산신령. 정성을 드리는 나무가 많았어. 지금은 없어. 돼지머리 갖다가.

_ 옛날에 부르시던 노래 불러보세요?

그때는 모이면 소반장단치면서 노래하는게 유행이었어. 지금은 녹음기
틀어 놓지. 돈 들어 배운 게 아니라 남 하는 소리 듣고 어깨 너머로 배운
거기 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 그냥 배운 거라 쌍스러운 소리도
들어가구. 조금 하면, 먹구 쉬구, 먹구 놀구, 인생 한 번 죽어지면 허사
로다. 허허.

이천재 어르신 집에서 부인을 만났다.

_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인용이고 80세예요.

_ 여기 들어오실 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몇도 모르고 와. 군인 갔다 제대하고 와. 일루 살러 간다니까 몰라요.
그냥 왔어.

이천재

신랑한테 육 먹었던 소리나 해. 지금도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해. 마누리가 천치 같으니까 나랑 산다. 지금도 내 말이라면 99프로 들어.

_ 토막집 짓고 사실 때 어떠셨어요?

김인용

돈 벌어서 먹고 살 생각만 했지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_ 화전하면서 뭘 드셨어요?

김인용

처음 들어올 때는 농사도 못짓고 했으니까, 산에 약초를 캐러 다녔지, 버섯도 캐러 다니고. 함바에서 밥을 해주는데 반찬을 해줄게 뭐가 있어요. 이불보따리 하나 가져왔는데,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물 캐서 해줬더니 그 사람들이 먹더라고, 지금 같으면 먹지도 않을 텐데 그때는 먹었



이천재 김인용 부부



이천재 씨가 군대생활을 하던 모습이다

지. 산판은 중지가 돼서 벌어먹을 게 없으니까, 뒷골에 시어머니도 사시니까 들어와서 살았지. 시아버지는 나 시집오기 전에 돌아가시고. 화전을 해야 먹는다고 해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불을 질렀지.

_ 불이 확 나지 않아요?

이천재

그때 문 상사라는 사람이 화전을 한다고 들어갔어. 서툰 서방질이 첫날 건린다고, 불을 놓 때 불이 올라 탈 때는 힘이 있지, 그런데 위에서는 힘이 없어. 위에 금을 굶는데 화금이라고 해 화금, 칼퀴로 금부터 위로 굶어. 그리고 불을 싸면 위로 번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산이면 꼭 대기에서 불을 질러서 살살 내려 태워야 해. 그것도 일종의 경험이란 까, 요새 말로 노하우, 모르고 하면 안 돼. 그걸 모르면 큰일난다구.

_ 화전하실 때 힘든 것은?

김인용

그때는 힘든 것도 모르고, 젊었으니까 일해야 먹고산다, 이런 생각만 했지, 살려고 일했지. 낮에는 김매고 밤에 맷돌 돌리고, 아침거리 만들어 와야 아침을 하잖아. 그래서 밤에 타개 놔야 아침에 밥을 하잖아요.

이천재

화전농사, 강파르잖아. 화전을 하면 일군을 사서 하니까, 집에 밥을 먹으러 오면 안 되니까. 그 여름에 애를 업고 밥과 물은 들고, 이게 고생이야. 박 대통령 덕분에 화전 안 하게 됐으니까. 김을 매면 가시에 손이 다 까지고, 장갑도 없고. 나도 친정에 있을 때 그렇게 김을 안 맷는데 먹고 살려니 했는데. 그때는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했어. 신발을 신으면 곡식을 밟으면 모르잖아. 그러면 해가 뜨면 발이 뜨겁지, 손은 가시에 찢리지, 물이 들어가면 물집이 생기지. 그때는 바늘을 가지고 다녔어. 가시가 손에 들어가잖아. 잘 해서 할려고 하는데 가시가 들어가. 그러면 파내고 또 해. 목구멍이 포도청이여. 애를 업고 일하기도 하지만 큰 집에 가서 할머니에게 보시라고 하지. 할머니가 계시니까. 애들을 위해서 아침에 도시락을 싸서 애들 주고 큰집에 보내는데 큰어머니가 우리 애들 식은밥 안 주려고 자신이 드시고, 애들은 더운밥을 먹이셨대. 조카를 식은밥 줄 수 없으니까.

김인용

내가 아줌마들에게 10월 며칠날 저녁에 밥을 지어서 한 그릇 떠 놓으라고 했요.

_ 즐거운 일은?

김인용

학교 운동회 때 놀면 재밌지. 그때는 구경하잖아. 또 이 동네서 한 번씩 일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막걸리 해서 놀아요. 그런 게 더러 있고.

_ 단오 때는 안 노세요?

이천재

단오는 안 놀아.

이천재

72년 돈가 73년돈가 최 구장이 할 적에 대한민국에서 퇴비 하는 걸로 1등한 데가 여기야. 그래서 그때 돈 100만 원씩인가 노났어. 최 구장의 친구가 여기 과장인가 계장으로 와 있다구. 그래서 최 구장이 안면이

있으니까 오면 술을 막 주는 거야, 퇴비도 많이 했지만, 학생도 그래 선생에게 잘 보여야 봐주지, 우리는 안면이 있기 때문에 퇴비상 두 번이나 했단िका. 사람은 좋게 사면 좋게 좋은데. 그때 퇴비하던 사람이 다 이사가고 지금 여기서도 사는데 오히려 뒤에서 구경만 하던 사람들이 덕을 보지. 추석에도 우리는 퇴비했다니까. 조금만 하면 1등을 하니까.

_ 여기서 몇을 낳으셨어?

김인용

여기 와서 셋 낳았지.

_ 애는 어디에서 낳으셨나요?

김인요

낳는 날도 일했어.

_ 애기를 받은 사람이 있나요?

김인용

혼자 낳았어.

이천재

우리 둘째 아들이 지금 52이야. 가가 날 적에 새벽에 애를 낳는데, 나도 천치야. 미리 쌀을 샀어야 하는데. 그때 그 애가 날 적에 박 대통령이 국가재건 의장할 땐가 그래. 그때 원통에도 쌀이 없었어. 애를 낳고 원통에 갔더니 원통에도 쌀이 없어. 서울인가 어서 쌀이 와야 한 대. 쩡일 기다리다가 쌀이 왔는데 살만 안 팔아요. 한 말 샀는데 좁쌀 한 말을 끼워 팔아. 쌀만 안 팔아요. 불쌍하지, 요새 말로 하면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한 거야.

_ 미역국은 드셨어요?

김인용

첫국밥을 못먹었지만 사 가져왔더라고요. 어머니가 끓여 주셨지.

이천재

우리 큰딸이 된랫 살인데 그때 곡식이 귀하잖아. 그때 우리 어머니가 밥을 해주니까, 애가 할머니 보고 그랬대. 난 못봤어. “할머니 나보고 이 밥 먹으라 소리하지 말고 엄마만 줘” . 얼마나 먹고 싶으면, 헤헤.

김인용

내가 먹고 있는데 들어와서 벽에 기대앉아서는 “내가 바래도 주지 말아요”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 달라는 소리보다 더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냉겨주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애 주지 말고 먹으라고 할까봐, 먹다 냉겨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주고 얼른 먹고 나가라고 했지. 자기가 그렇게 말해도 주니까 먹지요.

_ 그때 음식을 드셨나요?

김인용

음식 뭐 그때는 옥수수밥이지. 농사 질 때는 옥수수밥 먹지만 농사 시작하기 전에는 보리쌀도 사다 먹구. 그때 납작보리가 있대요. 그런 거 사다 먹구 그저, 농사 지면 옥수수 먹구, 그래도 우리는 이 아래에 논을 조금 붙여서 쌀도 좀 섞어서 먹긴 먹었어요.

_ 반찬은요?

김인용

반찬이야 그때 집에서 심으니까, 배추로 김치 해 먹구, 감자나물도 먹구. 지금은 사다 먹지만 그때는 사다 먹는 걸 몰랐어요. 그때는 호박도 심구 오이도 심구 그러면 오이김치도 하구.

_ 겨울에는 김장도 하세요?

김인용

그렇죠. 겨울에는 김장도 하구. 겨울에는 김장한 걸로 먹구요. 그때 사는 건 진짜 뭐든지 심어가지고 만들어야 먹으니까요. 점심 먹으려면 김매서 들어와서 뜯어 와서 씻어서 끓이든지 해야 먹지요. 바쁘게 살았어요.

_ 일할 때는 도시락 가져가지 않나요?

김인용

그렇죠. 둘이서 일할 때도 군인들 밥, 항구라구. 반합. 거기 숙뚜껑에 반찬을 담고 밑에 밥을 담고, 그거 하나만 들고 가면, 물이 있으니까 물가에 앉아서 그거 먹는 거예요. 지금은 뭐 새참을 먹는데 뭐 먹는다 하는데 그때는 새참이 없어요. 아침에 밥 먹고 가면 한나절 엎드려 김매다 그거로 점심 먹으면 끝이에요.

_ 몇 시에 집으로 돌아오세요?

김인용

그때는 시계도 없고 해 넘어가면 오는 거지요.

_ 아침에 일찍 가세요?

김인용

일어나서 밥 해 먹으면 가는 거지.

이천재

그때는 라디오에 앞서가는 농어촌이라는 게 다섯 시에 나와. 그때는 그것도 듣지 못하고 나갔어. 5시가 되면 여기가 환해. 내가 대가리가 좋은지 나쁜지 몰라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큰 밭을 매야 하면, 사람을 얻어서 김매야 하는지 알아. 셋을 얻어야 하는지 넷을 얻어야 하는지 그걸 사람을 사는 거야. 그래서 일해. 그래서 다 하면 오는 거야. 농사는 김매는 게 일이야.

_ 가을에 추수할 때 힘든 없어요?

이천재

왜 없겠수. 등짐을 지다가. 콩단 있잖아. 콩단이 다섯 우쿰이(손아귀로) 한 단이야. 그런 그거를 그때 기운데 삼오십오 백오십 우쿰인가? 그게 지면 딱 내 심에 맞아. 그걸 서른 단씩 모아. 한 짐씩 딱 모아 놓고 몇 단이 남으면 나눠 붙여. 한 번 더 다니기 싫으니까. 그걸 한 석 단 들으면 힘에 붙여요. 그때 골병드는 거야.

_ 지게로 지는 거예요?

이천재

그때 리어카도 없고, 등으로 져야해. 산길이라 그런 거 끌 수도 없고. 그때 60년대는 논 리어카도 서흥리에 없었어. 임태종이란 사람이 지금은 죽었지만 그 사람이 처음으로 서흥리에 리어카 들여온 사람이야.

_ 콩을 저 오면 마당에 말려요?

이천재

낫가리라고 해. 4미터 되는 나무를 세 개를 묶어서 세우구, 세간에가다 세 개씩 여섯 개가 돼. 그러구 칩으로 둘러 감아. 그래구 콩으로 가래. 나무 끝까지 사다리를 놓고 가렸다가 가을걷이 끝나고... 가을에 비가 많이 오면 농사꾼은 골치 아픈 거야. 가을비가 많이 오면.

_ 콩을 말리려고 하는 거죠?

이천재

그렇지. 풋콩을 갖다 놓면 썩거든,

_ 바닥에 놓으면 되잖아요?

이천재

바닥에 놓으면 자리를 공정을 많이 잡잖아. 비가 오면 젖어. 그런데 낫가리로 가리면 비가 와두 콩은 안으로 들어가 있구 그루터만 비를 맞아. 비가 미끄러져. 그러구 밑구녕에 구녕을 한 세군데 내놔. 사람 하나 기 들어갈 만큼. 그러면 통풍이 돼서 잘 마르지. 말려야 도리깨질을 해. 지금은 기계로 하지만 그때는 도리깨로 떨었다구. 안 마르면 안 까진단 말이야.

_ 그러니까 비를 맞아도 다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이천재

비스듬히 생겼으니까 맨 위에는 짚이나 콩단을 덮으면 비가 안 들어가지. 비가 들어간다고 해두 복판에 떨어지지 콩단에 안 떨어지거든. 꼭 대기는 빠죽하니까.

_ 그렇군요. 그래서 다 마르면 도리깨질을 하는 거예요?

이천재

그렇지. 그걸 뜯어다가 마당에 퍼놓고 도리깨질을 해. 지금은 풍채도 있지만 그때는 키로 까붙어야 해. 이 사람이 그거 하다 골병든 사람이야.

김인용

콩을 낮에는 돌이 도리깨질을 해서 마 놓구. 저녁에 그걸 또 다 까라야 해. 다 깔아야 그 마당을 비게 되고, 내일 또 떨잖아.

_ 키질한 다음은요?

이천재

먼지가 다 나가면 콩은 콩대로 갖다가 팔지.

_ 콩 사러 오는 사람이 와요?

이천재

아니 근데 여기 원통에 박춘근이라고 지금은 죽었어. 그때 그 사람이 잡곡장사를 했어. 쌀장사도 하구.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담아가지. 군대 차 얻어가지구. 헌병대나 보안대 군용차를 얻어가지구 와. 그래 와서 되가자구 다 가져가지.

_ 콩 외에 어떤 잡곡을 하셨나요?

이천재

팥. 주로 많이 하는 게 콩, 팥, 아까 그 사람은 조 얘기 했지만 난 조는 김매기가 아주 더대. 품이 많이 들어 안 하구 옥수수 하구 세 가지야. 깨 뭐 들께 조금 심구 그제.

_ 추수 하실 때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이천재

기분이 좋기는 뭐. 죽지 못해서 먹구 살라구 억지로 하는 거지. 무슨 기분이 좋아!

김인용

힘들어요. 정일 해야 하고.

_ 봄에 심어서 여름에 김매서 애써서 가꾼 걸 가을에 열매를 보니까 좋잖아요?

김인용

그쵸 아무래도 기분은 좋죠. 많이 해서 돈 받으니.

이천재

그래 내가 아까 얘기 했잖아. 칩담불 내려 굴러가지구 다 부러진 줄 알
았더니 하얗게 됐다구. 하하.

김인용

김을 매러 가니까 칩이 짹 깔린 거여. 화전을 칩발을 일켰거든. 그랬는
데 칩 요두가 한 발씩 되는게 짹 많아. “이걸 어떻게 매냐?” 그러니까
내려 굴러자구 해. 멍석말이를 한다든가. 멍석말이는 팔이 다 망가지
는데 하니까 망가져두 그렇게 하자구 해. 꼭대기서 요구 다 뜯어가자구
말았거든. 그렇게 해서 진짜 멍석말이를 하니까 팔이 짹 내리 깔렸어.
저게 어떻게 되나 했더니 그 다음에 가니까 그게 일어나서 팔이 하얗게
열린 거여.

_ 기분 좋으셨겠네요?

김인용

좋죠. 지금은 웃고 말하지만 이 양반이 어떻게 그 생각을 했는지 몰라
도 뿌리더라고요 팔을. 뿌리고 그냥 굵어요. 이렇게 팽이루. 근데 그게
그렇게 짹 나왔으니.

_ 참 열심히 일하셨네요. 열심히 일하셔서 땅을 사신 거예요?

이천재

처음에는 콩, 팥을 해서 소를,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소가 한 마리에
서 세 마리 되기 힘들고 세 마리에서 여섯 마리 되기 힘이 들고 여섯 마
리에서 열 마리 되기 힘이 든다고 그러더라고 어른들이. 딱 그 말이 맞

아. 소를 나 혼자 못 맥이고, 사람을 사서 맥이는데 아까 그릇소 삭소 말했지? 24개월 맥여서 받은 송아지를 이 사람이 불을 내서 타죽였어요. 요새는 나이롱 바도 많지만 그때는 바가 없으니까 피라는 거 알아? 산에 가면 피나무라고 있어. 그걸 뺏겨다가 바를 들에(만들어). 나는 그걸 할 줄 알지만 소를 먹이던 사람은 이북에서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걸 모른다구. 그래서 그 사람이 전화선으로 고삐를 해 맏는데 철사 걸의 골탄은 타지만 철사가 안 끊어지잖아 타도. 그래서 소가 끊지 못하고 죽었다구 마구에서. 열 마리를 채운 건데 죽었어. 이 집이가 흥가터로 소문이 난 집이야. 이 집이 65년도에 진 집인데 김복령이라고 그 사람이 이장을 여러 해 봤지. 우리 큰형님하구 동갑인데 그 집이가 여기 살다가 2월달에 마누라 죽구, 7월달에 영감 죽구 애들은... 이 양반이 폐병이 걸려가지구 병원에서 빗을 많이 지고 죽었어 김복령이란 사람이. 그러니까 빗쟁이들이 니들 아버지 빗, 땅이라도 팔아서 내 놓으라, 그럴 거 아냐? 그래 이걸 팔았다고, 그 애들이. 근데 난 소가 한 마리 죽어서 아홉 마리 밖에 없잖아. 근데 이 동네 사람이 이 집을 사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소를 팔아서 이 집을 사려니까 계산을 해보니 돈이 모자라. 그래서 중개인에게 “아저씨 나는 소값도 모르고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소 아홉 마리 밖에 없어. 크고 작고 아홉 마린데, 한 마리는 내가 놔두구 갖다가 냉겨 팔아먹든 밀지든 여덟 마리 가져가고 땅을 사게 해주슈.” 아주 처음엔 안 된대. 아 그거 안 돼, 하더니 가만히 소 보면 알잖아 장사꾼은? 자기가 밀지지는 않겠으니까 이 집이 소 여덟 마리하구 바꾼 거여.

_ 아 집과 소 여덟 마리를 바꾸신 거네요. 그러니까 소를 키우신 거예요? 콩을 팔아서 소를 사고 소를 키워서 땅을 사신 거네요?

이천재

그렇지. 1차는 농사, 2차는 소 그리구 여기 온 거요. 69년도에 여기 내려 왔으니까 엄청 오래 됐지유. 그 아까 그 회장도 산골 사람이라고 흥할까봐 말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소가 더 많았다고, 내가 땅을 살 때에 소값이 한참 올라갈 때야. 소 몇 마리 더 해서 홍천, 원주 쪽으로 나가지 여기서 땅 안 산다고 했다고. 그러자 그만 소값이 하락이 되

구 떨어졌어. 그 사람이 자기 먹구 살 건 되지만은 그 때에 그 소 팔아가 지구 땅을 샀으면 조금 지금보다 약간 돈이 많을 텐데. 그때만 해도 저 사람 몇 살 안 됐지, 삼십 살 안팎인데 그 어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이거야(엄지손가락을 들며). 그 어머니가 땅 사지마 빨갱이 나오면 죽어, 그래서 땅을 안 산 거야.

_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을 열심히 하시고, 땅도 사시고 잘 하셨네요?

이천재

나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야. 근데 이승호가 군수할 때, 이승호 알우? 제민약국? 그 분이 내가 농사 잘 짓는다고 그땔돈 30만 원을 내가 탄 놈이야. 다른 군수 할 때도 퇴비 많이 하구 뭐 시시껍적한 상 여려 개 탔어. 내 자랑하는 거지 하하. 끝.

마라~ 울러서 울러서~

인터뷰 날짜 2015년 7월 10일

인터뷰 장소 월학3리 노인회관

_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정운이고 1942년 생이예요. 여기서는 75세고. 고향이 신남인데 수몰 되기 전에 여기 들어와, 여기 수복 막 돼서 들어왔어요. 나이롱 카브에, 거기에 헌병대 초소가 있었어. 그때가 57-8년. 수복이 56년에 됐어요.

_ 그때 여기는 어땠나오?

집 몇 집이 안 돼. 군인 관사가 있었구 집은 몇 채 안 됐어.

_ 오셔서 집을 지셨나?

지은 게 아니라 샀어. 낡은 게 있구 그래서 샀어. 그 밑에 집이 하나 있어서 샀어. 있다가 군인들이 가서 관사가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 샀어. 지금의 백마촌 7번지를 샀지. 그때 뭐 부연대장 집인지 그랬어요.

_ 지금도 거기 사세요?

네.

_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부모님 따라 들어와 학교 좀 다니다가, 내가 병이 걸렸었어요. 뇌막염이,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한 2년 있다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부모 슬하에서 일두 좀 하구 그랬죠.

_ 부모님은 농사 지셨구요?

그렇죠.

_ 어떤 농사를 하셨나요?

대개 그때만 하더라두 여기 농토는 묵은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동네에서 화전이라고 하잖아요. 화전, 이렇게 까끌막에 가서 불싸 놓고 파서 팔도 심고 콩도 심고 뭐 조이 같은 거 심고 그랬죠.

_ 여기 분들은?

여기 사람들도 화전 안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박 대통령이 화전민을 내보냈어요. 얼마 전에 부군수하던 최상기, 그 분이 여기 담당이었어요. 그분이 서울루두 이주시키구 그래서. 여기서 나간 사람이 많아요. 한 삼십 집 됐어요. 판 데루 나간 사람이.



박정운 씨

_ 어르신은 농사도 지시고 화전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뭐 내가 혼자는 못하잖아요. 일을. 그러니까 같이 품앗이도 하고. 우리도 그분네거 해주고 그분네도 우리거 해주고. 우리 아버지도 그때 나이도 많이 잡수셨으니까 내가 일을 잘못해도 그때 가서 하고 그랬어요.

_ 부모님 따라 일가가 이곳에 들어오신 거네요?

그렇죠.

_ 미혼이실 테고요?

그렇죠. 내가 혼인을 62년도에 군대를 갔거든요. 그랬다가 65년도 10월 16일자 제대를 했어요.

_ 군대는 어디로 가셨어요?

논산. 논산 가서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철원, 철원에 가서 근무하구 그러구 왔지. 우린 36개월 15일 했는데.

_ 화전하실 때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 화전을 하면 콩, 조이, 팥 대게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곡 상회라고 있어요. 콩사구 밭 사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갖다가 얼마씩 받고, 돈두 내سن 거 빗 갚구. 그때 화전 안 한 사람 별로 없어요. 저기 운 애동, 그쪽 비알에 보면 웬만한 곳은 다 화전이었어요. 그래서 하구선, 소 있는 집은 편안한 데루만 하구. 고랑을 쪽 내서 콩 많이 심구, 팥 심는데 팥 심구. 옥수수도 심는데 그때는 뭐 옥수수는 잘 안 심구. 감자두 심구. 별 거 다 했죠.

_ 소를 부리실 줄 아세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소 안 부리면 되나요.

_ 어린 소를 훈련시켜 보셨어요?

어린소를 훈련시키려면 겨울에 밭구라고 있어요. 거기에 나무를, 그뎜

나무가 귀하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끌차에 달고 거기에 나무를 싣고 오면 소가 끄는 건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말을 하면서 돌리구. 평지에서 그렇게 하면 말을 잘 들어요. 말을 안 듣는 소는 별 짓을 다하구 야단이지.

_ 그런 소는 어떻게 훈련시키나요?

글쎄 그렇게 해서 한 거리가 두 마리잖아요? 멩에를 지우면 이쪽에 하나 끌고 이쪽에 하나 끌구 이렇게 메워서 끄는 거지요.

_ 두 마리로요?

그렇지 두 마리.

_ 왜 두 마리로 하세요?

여기는, 그 내력은 모르는데 대개 강원도 여기는 두 마리에요. 다른 데 나가니까 한 마리도 하데요. 논산 그쪽으로 가니까 한 마리, 그때 하더라고요.

_ 여기에 돌이 많아서 그럴까요?

그래서 그러지 몰라도 두 마리로 다 했어요. 비탈도 많구 그러니까. 한 마리로 하면 힘이 약하잖아요. 두 마리로 하면 힘이 세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겠지요. 그때 논에서도 한 마리로 하는 게 별루 없었어요. 두 마리로 했지.

_ 소를 부릴 때 하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럼, 뭐 이 놈 봐라 하면서, 아냐 ---- 아아아 -- 이러면서 가잖아요.

_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소가 심심하니까 사람이 소리를 하는 거지요. 내려서라 -- 고랑이 젖으면 소가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잖아요 소가? 그러면 마라 올려서 -- 어.



소로 논을 가는 모습

_ 올라서요?

올라서라는 거예요. 고랑으로.

_ 그것 참 귀한 말이네요. 그런 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소는 대게 큰 소고 말 좀 듣는 소거든요. 그러구 마라소가 좀 약해.

_ 마라소요?

마라소. 마라.

_ 바깥쪽 소를 말하나요?

그렇지. 마라소라 그래. 안소라 그러구. 안소는 그래도 좀 오래된 소거든요. 그러면 안소처럼 잘 나가면 되는데 마라는 안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마라가 내려서면 마라 —— 아 울러서 울러서, 고랑 위로 올라서라고. 울러서 — 어, 이리지.

_ 그럼 말 듣나요?

듣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고삐를 땡겨야 해. 고삐를 두 개 땡잖아요? 이렇게 땡기면서 마라 울러서 — 어, 이렇게 하고, 또 안소가 내려

가면 안소의 고삐를 땡기구 올라서게 하는 거지요.

_ 안소에게는 뭐라고 하세요?

안소두 울러서 울러서 그래요. 뭐 별소릴 다하지요.

_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게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소가 잘 안 가면 어떤 사람들은 욱두 하구 그러는데 대게가 그래두 잘해. 그런데 그때만 해두 다른 기계가 없으니까 소를 많이 시키거든. 그러면 소가 어떤 때 힘들어서 가지두 못해요. 그러면 세워놓구 쉬게두 하구. 그때는 봄에 드래죽이라구 콩을 갈아서 드래죽을 썰서 며칠씩 멕이면 좀 나요 소가 힘이. 모 심을 때 소구 사람이구 그때 전부 기계가 없구 사람이 하니까 소 발축도 까지고 사람도, 뭐 그때만 해두 뭐 장화가 있어요. 그냥 맨발로 쫓아다니는데. 그때 참 고생들 많이 했어. 시방 우리나라 정책이 복지정책이 다 좋긴 한데 그 전에 비하면 복지정책두 많이 해. 우리 그 전에 비하면, 시방 군대도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래도 우리 세대 가운데 우리집은 그래도 논마지기나 조금 있으니까 난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 그땐 장리도 곱장리에요. 쌀을 한 가마 가져가면은 가마 반을 줘야 해 가을에. 그러니 그 집이 맨날 머슴 살다가 볼 일 못보지. 먹긴 해야 되겠구 그러니까 그래두 장리쌀 갖다 먹구 이랬지. 뭐 농사 지면 뭐해. 그래서 고생 많이 했어. 60년대 하구 70년대 초반까지는 고생 많이 했어요. 시방은 참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뭐 돈만 있으면야 무슨 짓을 못해. 그렇지만 그때만 해두, 여기여기 차가 없었으니까 뭐. 그 전에 74년인가 75년에 이 길이 비포장이었거든(원통-서화간). 그때 이 길을 닦는데 한꺼번에 못하구 드문드문 공사를 했지.

_ 소 얘기를 더 해주세요. 그건 요즘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요?

소요? 아 그건 안소 울러서 울러서 — 어, 이러면서 하지요. 그리구 마라소는 마라 마라, 이러면 이제 돌잖아요? 이렇게 쪽 가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 돌아야 되잖아?

_ 그렇죠.

그러면 고삐를 잡아당기며 우우우우우우 --- 하면 우로 돌아가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_ 우우우 이러면 우로 가고 좌좌좌 좌좌좌, 라고 하나요?

아니, 대개는 소가 우로 많이 돌아가. 그래서 안소가 실한 거예요.

_ 소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하나요?

고삐를 뺏기면서 와와와와 하지. 가다가 와와와와 하면 소두 아 이게 쉬라고 하는 거구나 알아. 그대 멍을 썩운단 말이야. 풀이 있으면 소가 뜯어 먹으려구 모가지 이쪽으로 틀구 저쪽으로 틀잖아. 그래구 소를 그렇게 부리다 보면 소의 목이 이렇게 부어.

_ 멍에를 매니까 붓는 거지요?

그렇지. 멍에를 붓는 거지. 그냥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자꾸 틀게질을 하구, 그리구 이게 목적기라구 있어요? 멍에를 이렇게 해서 소를 붙들 어 매야잖아요. 매니까 틀게질을 하면 목이 부어요.

_ 소를 잘 돌봐야 되겠네요?

아 돌봐야 되나마나, 시방은 소를 기업으로 하잖아요? 축산을 70-80마리씩. 그때는 한 집에 두 마리 세 마리 키우면, 소두 없는 사람이 많았지요. 황소 한 마리 팔면 논 한 천 평씩 샀어요. 그게 재산이었지요. 시방은 그때다 되면 소값이 강아지값이지. 소가 없는 집이 많아서 소를 한 거리로 하려면 다른 집 소와 짝이 돼서 해야 해. 짝을 해서 그 집이 안 소면 내 소는 마라로 하구, 마라 있으면 내 소는 안소로 하구. 서루 짝을 해서 하지요. 제짝 두 마리씩 가지구 있는 사람이 별루 없어요.

_ 품앗이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소가 있는 사람이 갈아놓으면 소 없는 사람이 콩두 심구, 팥두 심구, 감자두 심구 그렇게 짝이 돼 했지요.

_ 소 없는 집에 소를 빌려주고 돈도 받겠네요?

돈은 그땐 별루 안 받았구, 그때는 일을 해서 서루 품앗이지. 그러니까 뭐 더러 받은 사람도 있어요, 한 거리에 그때 돈이 만오천 원인지, 만이 천 원인지, 하루 가 일하면 그렇게 받았어요. 소 둘 사람 하나, 이렇게 가서.

_ 소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돈 받구 한 사람은 별루 없구. 이제 모 심을 때는 받지. 논은 갈아가지구 심어야 하잖아요? 소가 한 거리가 할 수 있는 게 천이백 평 내지 천오백 평이에요. 그것두 갈아가지구는 안 되구 다 갈아놓은 거. 쓰레질을 하는 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냐. 한 번 하구 또 해야 해. 그거 천이백 평에서 천오백 평 하는 거 그거 힘들어요. 소를 모는 사람을 성군이라고 해요. 우리 어른들도 고생 많이 했지. 우리들이야 그때 모나 심구 그러지만. 그때 어른들은 대우는 좋기 했지만. 갈 꺾어서 비료가 없으니까. 한 짐에 얼마씩 팔아서 그걸 했는데. 모 심는 것도 아침에 네 시에 나가야 해요 네 시에. 네 시에 나가서 모 쪼야 해. 잣놀이 라고 밥 먹기 전에 모를 다 쪼야 해. 그래 놓고 밥 먹는 게 보통 6시에나 아침밥을 가져 온다구. 그럼 그거 먹구 놀러 심기 시작해 네 시나 다섯 시 반이면 끝나요. 두 마지기. 그것두 그렇게 해서 쌀 한 말 받구. 품값으루. 아휴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래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으니까 좋지.

_ 인터뷰를 하기 위해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배고팠다는 말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먹구 살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 땅이나 파구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거나 잘 됐으면 말이지. 내가 65년도 제대를 하니까 천육백 평에서 벼를 열여섯 가마를 얻었어. 벼를. 그땐 울육우라구 있었어. 시방 하는 그런 벼가 아니구. 강원도 지방에는 울육우를 했어. 그랬는데 그걸 떨어 보니까 열여섯 가마가 그렇게 했어. 근데 뭐 그걸루 먹구 쓰구 해야 하니 빚 안 지구 살겠어. 그땐 조합비 낼려면 힘들었어요. 그래두 땅덩이 있는 사람이나 조

합비 내구 그러지 않았으면, 그때만 해두 서로 보증을 서서, 엇보중이라 구 그러잖아? 엇보증을 서가지구, 내가 보증 설 테니까 내 보증두 서다 우,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동네 망가진 데 많아요. 여긴 본토박이는 얼마 안 돼. 들어온 사람들이지. 내가 알기론.

_ 그때 동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차라리 그때 분위기가 더 좋았어요. 그때는 모 심으려고 하면 아주머니 들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와서 밥 해 나르고. 그때는 아침을 먹잖아요? 그러면 잣놀이라고 있어서 아침 나절엔는 칼국수라도 끓여다 주구 막 걸리 한 동이 가져가야 되구. 그리구 점심 먹구, 날이 따뜻하면 또 콩물 이라두 해서 주구.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모를 심는지 타작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아 저 집이 우리 모 심는데 간다구 해서 서루가 품 앓이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분위기는 그때가 더 좋았어. 근데 시방은 서루 먹구 살라구 아우성을 치구 하니까 모 심을 때 관계도 안 하구 그렇게 하구 그래. 그때보다 시방이 더 안 좋지.

_ 그때는 뭐하고 노셨어요?

그때는 뭐 할 게 뭐 있나요? 그때 뭐 한다는 게 겨울이면 나이롱뽕 좀 하구. 그 다음에는 옷놀이나 하구 그랬지. 그 다음에 뭐.

_ 밤에는 뭐하셨어요?

가마니 찢지요. 그때는 마대가 얼마 안 돼요. 전부 가마니였어요. 또 봄에는 그때는 모판을 이만큼 줄을 띄워서 했으니까 그것두 해야지. 뭐 놀 게 없어요. 가마니 없으면 가마니를 사와야 하니까.

_ 가을에 쓸 걸 미리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죠. 타작을 하잖아요. 타작을 하면 매상을 하잖아요. 그때도 매상을 했어요. 매상을 하려면 묶는 거 맨들어 놔야지. 또 그때는 초가집이 많잖아요. 그때만 해두. 그래서 초가집 엮으려고 하면 이영 엮어서 하려면 새끼 써야지. 또 이영 엮으려면 혼자 못 엮잖아요? 그것두 울력을



기계로 새끼를 쪼는 모습

하구. 그러니까 맨날 놀을 겨를이 없어. 밤에두 보통 12시가 넘어야 자구 그러지요. 시방 젊은애들 참 좋은 거예요. 이 콤파인이 타작할 때 보면 10시에 나가잖아요, 10시. 왜냐면 이슬이 말라야 된다는 거야, 기계가. 이슬이 있으니까 없어야 한다는 거야. 벼를 베는 것도 농기계가 하루에 오천 평 육천 평씩 베잖아. 그러니까 한 집이 뭐 한 집이 만 평을 불이구 이만 평을 불이지. 그 전에는 한 집이 보통 사천오백, 오천 평 하면 대농이라고 했어. 그래서 가을에는 이영을 엮어서 지붕 해야지. 그 래두 그때는 군에서 대민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군인들이 그런 거 잘 해. 그래서 이영두 와서 엮어주구. 우리는 그 대신 짚을 얼마씩 주지. 그때만 해두 군대두 군대막사 지붕에 짚을 했어요. 그게 나오니까. 군 인들도 막사 해 일라구 하면 뭐이 있어야 하잖아요? 군인들은 강에 가서 갈대를 베다가 엮어서 해 있었어요. 그런데 짚으로 하니까 나오니까 대민지원을 해서 연구. 고생이 많았어.

— 불을 지를 때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있지요. 그때만 해두 산에 불을 싸놓지 말아야 하잖아요. 나무를 베서 쪽 놓으면 위해서부터 불을 달아야지. 밑에서부터 하면 산을 홀라당 태 워요. 위에서부터 슬슬슬슬 달아가지구 몰아서 해야지. 내리쬘지.

_ 불을 내보신 적은 없으세요?

아이, 그런 적은 없어. 저기 해안에 있는 윤병만이라는 이가 화전한다구 하다가 어떻게 불을 냈어. 그거 끄느라구 어휴. 그때만 해두 군인들이 불을 안 꺼줬어요. 불이 더 이상 밑으로 못오게 밑에 불을 줬지.

_ 영림서 직원들이 불 못놓게 하지 않았나요?

그런 그 다음이구. 그러다가 자꾸 불이 나니까, 그때는 영림서 직원들이 대단했어요. 나무 쪼그만 거 하나 못했잖아요. 79년도 넘어가니까 조림사업이라구 해서 나무 켈나무를 해야 하는데 조금씩 베서 했지. 영림서 오면 닭 잡아주구. 그 전 어른들이 영림서 직원들을 보구 살팽이라고 하잖아, 살팽이. 살팽이가 닭은 잘 먹잖아요? 허허. 그래서 살팽이라고 했어. 좋은 세상이 되니까 맥두 못쓰구. 세상이 얼마나 좋아.

_ 가을에 곡식이 익으면 타작은 어떻게 하세요?

타작은 발로 밟는 거 있잖아요? 앵앵이라구. 시방두 더러 어디 있어요.

_ 뽕글뽕글 돌아가는 거요?

예. 맞아요. 그걸루 했어요.



타작하는 기계다

_ 벼를 대면 털리는 거죠?

그럼요. 밭로 밟아서. 돌이 밟아서 빙빙빙빙 돌리면서 벼가 털리면 벼
짚을 집어 내버리고. 나오는 까레미는 저쪽에서 도리깨로 치구. 그때는
벼를 전수 저 들여서 했지요. 리어카가 가 있어 뭐가 있어. 전수 저 들
여서 했어. 가을이면 마당에 진흙을 퍼다가 깔구 흙매질을 해서 밟아서
다져서 하죠.

_ 마당에서요?

예. 마당매라구. 그 전에는 이런 평평한 곳이 어디 있어요. 집에 앞에
마당에서 하지. 그게 해마다 밟아야 해요. 마당매 밟는다구 하지.

_ 마당을 만드시는 거군요?

그럼요. 본 마당은 있는데 깨끗하게 해야 돌두 안 올려올 거 아뇨. 잡곡
같은 거 떨어면 그래서 마당에 진흙을 저다가 퍼놓구 물을 해서 그 다음
에 사람이 밟아. 두둑하게. 그래서 탄탄하게 멩글지. 그러니 뭐 맨날 일
이지. 요새는.

_ 겨울에는 뭐하세요?

겨울에는 그때는 가마니 치구, 그 이듬해 준비를 해야 하니까 가마니 쳐
서 한 삼사십 장씩 맨들어 놓구. 싸웠다가 꼬메야 되잖아? 꼬메기 위해
착착 싸놓구. 새끼 파야 되구. 시방은 겨울에 그냥 놀잖아. 그때는 그렇
게 놀 시간이 없어요.

_ 어르신 풍채를 보니 젊으셨을 때는 힘이 무척 좋으셨겠어요?

아, 그때는 이렇게 뚱뚱하지 않았어요. 군대 가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빼짝 말랐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구 하니까, 뇌경색이 있어서 춘천
병원에 다녀. 많이 나아진 거야.

_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녀들 교육은, 그래두 우리 애들은 대학을 다 졸업했어요.

_ 초등학교가 여기에 있었나요?

초등학교 있었죠. 내가 들어오니까 초등학교가 있더라구.

_ 월학초등학교인가요?

네.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자꾸만 늘기 시작해서 우리집게두 백마촌 백마촌이라구 했는데 군인들 가족이 있으니까 애들이 한 이백 명 정도 됐어요. 그러다가 화전민이 떠났지, 군인들 여기서 나갔지 그렇게 자꾸만 줄어서 서른 명 정도예요. 우리가 그때 급식소도 졌어요. 그걸 나중에 때려 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급식소를 다시 지어달라고 하니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야. 우리가, 왜 자꾸 해달라니까 애들이 육십 명은 되야 짓는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애기지 그게. 그렇잖아? 우리가 그때 십시일반으로 30만 원 낸 사람, 쌀 두 가마 낸 사람, 세멘트 몇 포 낸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급식소를 진 거야. 그럴 지어야 만이 밥을 먹게 해준다구 해서 지은 거야.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현재까지는 별 방침이 없습니다, 해. 애들 밥을 따끈따끈하게 해서 고기서 먹게 해줘야지. 그걸 판데서 배달을 하게 해. 우리 애는 고등학교 졸업하구 춘천 나가서 초등학교 하구, 중학교에 넣었는데, 교육을 시켰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구. 그래서 에이, 자식이랑 부모랑 같이 있어야지 안되겠다 해서 원통중고등학교에 데려왔지.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구 대학교 갈래?, 하니깐, 그 전에 애가 씨름을 했어. 인제대학교에 가보니더니, 아이 난 안 갈래요, 그래. 안 가면 어떻게 할래? 하니깐, 난 안 간대. 그래서, 여식아가 셋이에요. 남자는 그 애 하나구. 여기저기 넣어서 큰 대학은 아니래두 사립대학 나와서 하나는 인제군청에 있구, 하나는 서울 가 있구.

_ 그러니까 보통은 월학초를 나와서 원통중고를 가겠네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내보내기도 하고. 그랬더니만 안 되겠더라구. 왜냐하면 할머니가 애를 데리고 있었는데 안되겠더라구. 돌로 들어왔지요. 여기서 졸업했지요. 대학생이 되면 미팅인가 뭐 하지요? 그게 연애 거는 거야. 대개 보면. 그렇게 남자를 만나다가 졸업하면 시집 가 버

리구. 그러면 돈두 벌지 못해. 저 가지구 갈 것도 못벌어요. 크게 해준 건 없지만 안 되겠더라구.

_ 여기 군인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분들도 있었겠네요?
있었죠.

_ 무슨 장사를 했나요?

그때는 막걸리 장사, 라면 같은 거 뭐, 막걸리를 주로 많이 했지. 그리고 과자 같은 거 갖다 놓구. 그때는 군인 피엑스가 별로 없었잖아. 그러니까 막걸리 갖다 놓구 두부 같은 거, 찌개 해주구 얼마 받구. 그때만 해두 군인들이 전방에서 있다가 오면 1년 씩 있어요. 1년 있으면 돈이 쓸 데가 없어. 돈을 가져 와. 그거 여기 술집이, 월학3리에 술집이 열한 개가 됐어요. 색시 놓구. 저기 고개 넘어에 내가 있었는데 거기만 해두 네 집이 있었어요. 네 집.

_ 색시들이 다 있고요?

그럼, 보통 둘, 하나, 어떤 데는 다섯, 여섯 뭐.

_ 젓가락 장단에 노래하고요?

그럼, 그것두 하구 뭐 하여간 그런 거지 뭐, 살기가 어려우니까, 뭐 어디 나가서 할 게 없으니까. 그 여자들은 팔려 온 거야. 백만 원에 온다든지, 백오십만 원에 온다든지. 참 그런 세상이었지. 시방은 가게두 잘 안 되잖아. 왜냐하면 교통수단이 있으니까 마트에 가서 사오지. 뭐 비싼 거 뻔히 알고 사요. 그때만 해두 여기 뭐 그저 여름에 갖다 먹구 가을에 계 산하면 콩 몇 가마, 팥 몇 가마 이렇게 줘야 되잖아. 장부에 달아놓고 허허, 술 한 병 먹는 것도 달아놓고.

_ 투전도 하셨나요?

그럼 했지요. 나도 투전 좀 했어요.

_ 뭘 하세요?

지꾸땅.

_ 화투로요?

그렇지. 화투로. 아 근데 노인네들이 진목이라구 있었어요. 그러서 하는 거. 요만큼씩 해서 꼭대기로 그러서 하더라구. 그건 별 거 아니었어. 음력 정월 보름께 음력 명일 세잖아요? 초하루 넘어가면 한 5일쯤 되면 돌아가며 노인네들 오시라고 해서 술 한 잔씩 드시라구, 하구 그걸 해요. 화투는 밤에 하지 낮에는 못해요. 낮에는 나무해야지, 소죽 썰야지, 밥 해야지, 군불 떼야지, 나무해 대기두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조금씩 그저 하다가 겨울에는, 막국수집이 있어요. 시방은 허가를 내야 되잖아요? 그 전에는 허가도 없이 그냥 겨울에 막국수 놀러서 한 그릇에 2천 원도 받고 팔아요.

_ 술도 만들어 드시고요?

그럼. 아 술은 그때는 막걸리도 있었는데 그때는 반주 막걸리지 반주. 그래서 주전자에다 넣어서 팔았지. 고량주도 있었구, 독소주도 있었구.

_ 독소주가 뭘니까?

그 왜 새우젓통 같은 거 있잖아요? 맥주통 같은 거 있죠? 나무로 만든 거? 그런 게 있었어.

_ 도수가 높았나 보네요?

그게 아니라 소주를 싸게 만들었던 모양이야. 독 안에 넣어서 배달해 파는 거지. 그걸 어떤 사람들은 주전자로 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구 그랬지.

_ 여기 사정이 좋네요. 그런 거 전혀 모르는 곳도 있는데요.

독소주?

_ 네.

왜요. 알지.

_ 수산리 같은데요.

수산리는 모를 거야. 그때만 해두 여기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발전이 됐어. 수산리는 깊이 들어가면 사람 사는 게 형편 없었어. 시방은 거기두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용대리 저쪽에 가면 되는 게 없어요. 감자하구 옥수수 밖에 안 돼. 그것도 한 해 하면 그 다음 해는 못해. 그래 어떤 때 장날에 원통 가서 술을 먹으면 용대리 애들이 대가리를 빼육 내밀어 우리가 술 먹는 거를 구경해. 술을 먹구 싶은 데 돈이 없는 거지. 그런데 시방은 땅값이 올라서 우리가 아주 졌어. 아유. 하하. 그때만 해두 우리 술 먹는데 들어오지두 못했어. 거기가 자갈밭이라 돈이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출잖아? 용대리 한계리. 한계리는 좀 들하죠. 용대리부터 뭐 거기서부터 1리 2리 3리는 다 추운데 아니예요? 그러니까 벼 심어 봐도 잘 안 되지 그러니까 감자, 옥수수 그거 하는 거지. 그러다가 전두환 씨가 거기 와서 백담사가 알려지면서 설악산이 관광지가 되니까 큰 거지요.

화전하며 재미있는 일은 울력할 때야. 내것 좀 저다와, 그러면 내 것도 하려면 가야 되잖아? 아침 일찍이, 한 네 시나 다섯 씨 쯤 일어나 가지. 한 짐 저다주고 밥 먹고 한 여섯시 반 되지. 그럼 또 일하고. 울력두 마당에다 짚을 갖다 놓고 불을 놓구서는 한 열다섯 명 스무 명이 모여서 하지. 끝.

화전도 고생 도망쳐서도 고생

인터뷰 날짜 2015년 8월 10일

인터뷰 장소 하늘내린센터 강의실

_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함연호. 나이는 67세. 생년은 49년 3월10일생, 주소는 그때는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미산 1리 83번지 지금은 인제읍 덕산로 4번 678-7호

_ 고향은 어디세요?

원래 고향은 미산이야. 어른들이 거기 살아.



함연호 씨

— 그때 태어나셨을 때 가구 수는?

미산 1리에 그때만 해도 6개 반이 있었는데 1개 반에 적게는 12집이 있었구 많게는 25집이 있었어. 그때만 해두 골짜구니에 들어가게 되면 천 평 정도 밭을 해먹을 곳이 있구 물이 나면 집을 지었다구. 그것두 통나무집. 통나무집은 근처에 가까운 곳에서 통나무를 베어서 도끼나 톱으로 해서 짊어지구두 오구 메구두 오구 끌구두 오구. 그때는 뭐 몇 자 몇 자가 없었구 이만하면 돼 식으로 하지. 통나무로 열기설기 집을 짓는 거야. 나무의 틈새는 짚으로 막아. 우물 정자 집이지. 그때 어릴 때 자라고는 기억 자 자 밖에 없더라구. 각을 잡기는 해. 지금처럼 줄자가 있으며 아주 쉬운데 줄자가 없으니 칩줄로 하는 거야. 말하자면 주먹구구 식이야. 소를 기르려면 마구를 지어야 하는데 마구는 부엌 가차운 부분에 짓는데, 소여물 끓이려구 부엌과 가깝게 지는 집두 있구. 땅이 한 천 평 있으면 먹구 살아야 하나까 거기부터 시작해 나가는 거야. 한 집에 식구가 다섯 여섯은 되는데 사는 게 아버지 어머니는 안방에서 사는 데 큰애를 장개를 보내면 동생들과 살 수 없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골짜구니에 찾아서 갈 수 밖에 없었어. 지금 같으면 뭐 돈이나 많으면 사면 되지만. 그래서 화전민이 된 거야. 화전민이 되는 게 결혼해서 시간(세간)을 나면서 화전민이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 갈 적에 우리는 그때만 해도 어렸으니까 형들 가는 걸 봐서 그렇지 애길 들어보면 옥수수, 콩 한 말 가지구 나갔다고. 그걸 먹으면서 농사일을 하는데 화전을 하게 됐다 해. 나도 화전을 해봤어.

— 화전은 어떻게 하나요?

화전이 어떻게 화전이 되나면 메밀이 부침기, 막국수 뭐 이런 걸 해 먹는데 그게 빠르구 맛이 좋거든. 옥수수보듬은 맛이 좋아. 그러구 농사가 잘되구. 그래서 그 밭을 일굴라구 하면 한 6월 아마 중순께나 갔을 거야. 그때 가서 나무가 대충 보면은 굵은 거 자른 거 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거의 굵은 거는 도끼나 톱이 있다구 해두 이게 뭐 갈을 줄 알아 도구가 있어야지. 하루 오래 쓰다 보니까 진짜 자르기 힘든 거야. 이게. 그래도 도끼는 쇠돌에다 갈아서 쓸 수가 있으니까 도끼를 많이 이용하지. 그때는 화전밭 깎는다 그랬어.

_ 화전발 짚는다?

어 화전발을 짚는다. 그러니까 나무가 되는대루 넘어가는 거 짹 깔아놓는 거야.

_ 아름들이 나무도요?

아름들이도 있는데 그런 거는 뭐 벨 수두 있구 안 벨 수두 있어. 너무 크니까, 그래서 꺾질을 까놓든 자연사로 고사되게. 워낙 크니까. 몇 날 며칠을 그걸 하는 거야. 그걸 하는 이유가 이렇게 보면은 너무 봄에 일찍이 불을 놓게 되면은 산불이 번져갈 우려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날나무를 이파리가 있을 적에 베는 이유는 이파리는 그래두 열흘이나 이십일이면 짹 마르잖아요? 말랐을 적에 짹 베놓구 불을 놀라구 하면은 요게 밭이라구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경사가 졌거든요. 여기에 불을 놀라면 여기에(위에) 십 미터 이상은 갈퀴로 긁어서 놓구. 밑에는 한 일 미터 이상 파서 덮구. 말하자면 또랑을 치는 거야. 위에 불이 붙으면 솔방울이나 이런 게 내리 구르게 돼 있단 말이야. 구르면 저 밑에 가서 불이 날 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일 미터를 걷구 또랑을 파구. 그리고 불을 놓을 적에는 내려놔야 돼. 위에서. 내려놓으면 위는 긁어 댔으니까 불이 붙을 때가 없지. 내려서 타면 서서히 타서 내려오지.

_ 그 일을 혼자 하셨어요?

이것두 이웃사람들과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하는데 품앗이지. 불을 좀 봐야 되겠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구. 그러면 쪽 와서 위에서부터 가생이까지 다 내려 타면은 어느 정도 타면은, 대부분 밤에 불을 놓지. 다 타면 굵은 나무, 젖은 나무라 잘 안 타지. 큰 나무 다 태울 라면 날밤새 두 해야지. 그래서 화전을 하는 이유가 불을 태우고 그것 때문에. 그러면 나무가 제멋대로 막 가서 시커멓게 끄실르고 그것만 남잖아. 어느 정도 한 삼일 말려. 그러면 불에 한 번 그실른 거라 잘 말라. 그러면 그 위에서부터 뭐 이런 한 이미터 이상 되게 잘라서 굴리는 거지. 굴리면 검댕이가 까매.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 옷이구 뭐구. 같이 가서 일

하면 서로 보구 웃구 그래. 내가 나를 못보니까. 그러면 이걸 걸어마서 한 무대기를 모아 놓구. 또 무대기가 있으면 마 놓구. 또 며칠 있다가 불을 놓지. 그러면 마르고 쌓아놓은 거라 잘 타. 그것두 역시 밤에 가서 해놔야 돼. 왜냐하면 지금이나 그때나 불법이거든. 정당한 허가가 없구. 어디서 연기나 나면 볼까봐. 밤에 불을 놓구 밤에 받을 만드는데.

— 주로 뭘 심으셨나요?

밭을 만들어 놓구 대부분 메밀을 심어. 화전밭이 그래. 메밀은 중복 전에 파종한다고 하는데, 심지. 심는데 그렇다 보니까 경사지구 뿌리가 많다 보니까 소로 갈지 못해. 갈 수가 없어. 밭의 위에서부터 대충 고랑이라는 시늉만 내는 거지. 씨가 한 천 평 정도라면은 두 뒷박 정도를 씨를 해서 그것두 거름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불 떼고 나오는 재를 인분에 섞어 놔다가 그 재에 씨를 섞어서 삼태기에 담아 밭에 뿌려. 심구 그런 건 없어. 뿌리구 대충 득득 굵으면 덮어져. 메밀의 모가 세 몬데 옛날 노인들이 한 모만 땅에 들어가면 나온다 그랬어. 그냥 굵기만 해. 그러면 잘 나와. 화전민들이 메밀을 심기 위해 화전을 일군 거야. 그 다음 해에 나무뿌리가 썩구 밭이 되면 그때는 팽이로 파기는 파 위해서부터. 밭에서부터 파면 먼저 판 곳을 밟고 올라가게 되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위해서부터 내려 파오는 거야. 혼자면 혼자서 나가구, 둘이면 둘이서, 셋이면 셋이서 쭉 나가구. 갔다 왔다 하는 거야. 두 내외가 한대구 보면은 애기 엄마는 씨앗을 놓구 종대래きを 차구 호미루 심어. 종대래키는 싸리나무로 만들어. 싸리나무를 벨 때가 되면 햇순이 올라와. 그걸 우리가 동배리채라고 불러. 그것두 1년생 그 이듬해 베는 경우도 있구 한 9월달쯤에 가서 한 1미터 이상 커요. 그걸 매끈하게 큰 거를 베다가 다른 싸리나무를 꺾어서 젓가지 모양을 만들어. 쭉 트면 꺾질이 벗겨져. 벗겨서 싸리나무의 밑의 부분을 칼루다 삼각형으로 세 가닥으로 갈라. 그걸 해놓고, 그 다음에 원 줄거리 모양을 만들어 짜게서 끈을 매서 돌리면 나무가 비틀어지게 돼 있어. 돌리면 순서대로 돌아가. 돌아가는 걸 다시 펴보면 갈라져. 쭉 트면 하얗게 나와. 방석 엮듯이 묶어. 모양새를 만들어서 쭉 네 귀퉁이가 나와. 돌려돌려돌려면 대리키가 돼.

차구 호미해서 심으면 돼.*

그렇게 해서 밭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해에는 볼 농구 할 이유가 없는 거지. 뿌리두 썩으면 소로 가는 거지. 그 전에는 뿌리 때문에 못해. 이렇게 굵은 뿌리에 걸리는데 무슨 장사라구 갈구 나가나. 그래서 화전민들이 했던 지혜가 첫 해에 메밀을 심구, 그 다음해 콩이든 팥이든 심구 또 다시 메밀을 심구. 그래서 화전민이 살아가게 된 거야. 곡식이 나면 떡두 해 먹구, 조금 여유가 있으면 나무 잘 생긴 게 있으면 잘라서 디딜방아를 만들구. 그것두 할 줄 아는 사람이 만들지. 보통 골짜구니에 가면 4킬로 6킬로 되는데 그걸 무슨 수로 가져 가. 그렇게 해서 화전을 일궈요. 이걸 산골짜구니 비탈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물을 먹으러 가려면 안 먹구 말아. 일하다 보면 금방 목마른데 어떻게? 그래두 그 덕택으로 샘물이 나오는 게 있으면 구덩이를 파보면 거기만 조금 있지 흘러가는 것도 없더라구. 그러면 어른들이 그 물을 먹기 위해서 한 번 뜨려면 5분 이상 걸려야 돼. 살짝 가만히 기다리며 떠야 흙물이 안 나지 덜렁 들면



종다래키

* 종다래키는 짚이나 싸리 등으로 엮은 주둥이가 좁고 밑이 넓은 바구니다. 콩이나 팥, 조 또는 감자를 심을 때 씨를 여기에 담아 뿌린다. 또, 들이나 산에서 캔 나물이나 고추를 따서 담기도 한다.

앞에 사람 밖에 못먹어. 물이 맑을라구 하면 할아버지들은 장을 떠서 물에 놓으면 위에 떠 있던 흙물 같은게 확 밀려나더라구. 그래구는 떠 먹구 그랬어. 야 저런 지혜두 있구나 그랬어.

_ 장을 넣어요?

순갈에 떠서 물에 담구면, 이게 나가더라니까. 나가면 물을 떠서 먹었어. 곡식을 갈아먹구 찜구 그럴려면 땀돌이 있어야지. 천지가 없더라두 그건 있어야 돼. 그건 있어야, 옥수수를 제일 많이 심는데 그게 있어야 갈아 먹구, 호밀두 많이 심는데 호밀두 갈아먹구. 옥수수묵 해 먹을 즉 에 그것두 갈아먹구. 콩을 갈아 두부를 해먹구 콩탕두 해 먹구. 갈아야 하니까 못사는 집에두 있어야 해. 그 다음에 방아, 방아하기 전에 절구가 있었지. 절구다 찌 먹어야 하니까. 떡두 해먹구. 쉽게 말해서 지금에 와서는 애들에게 이런 말 하면 이해를 못해. 예를 들어 1년 농사를 했다구 보면 천 평 이 천 평 한다면 지금은 비료가 있지만 그냥 아주 뻔단 지지. 씨만 심어서 땅이 좋으면 잘 크구. 땅이 메마르면 못크구.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게 뻔단지야. 거름이라야 볼 때구 난 재, 그거 밖에 없었거든. 소나 키워야, 아주 그 부잣집에 가서 쉽게 말해서 빌려오는 거야. 빌려서 만 2년을 길러주면 그릿소라구 해서 송아지 한 마를 줘. 계속 맥이면 2년에 한 마리씩 오겠지. 소를 키울래두 먹을 게 있어야 키우지. 먹을 게 없으면 팔아먹어야지. 없는 사람은 항시 그렇게 못살아. 지금처럼 뭐 더덕이든 송이버섯이든 지금은 돈인데 그때는 사는 사람이 없었어. 약초라는 거는 봉양 좀 했는데 그거두 많지 않았구. 어쩌다 산삼 하나 만나면 부자됐다고 하는데 그건 극히 힘든 일이구. 우리 조상님들이 이때까지 살아오는 게 그렇게 힘이 들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농사를 천 평 했을 적에 옥수수든 콩이든 다섯 가마 나왔다고 보면 일단 사먹는 거는 소금은 사 먹어야 하니까. 어디 장에 나오든지 양양에 가든지 그날 하루는 그거 갖다가 오면 끝이야. 장을 보러 가서 하루 갖다 오면 끝이구. 농사 진 거를 겨울에 먹구 여름까지 먹으려면 아껴야 하니까 죽을 씨 먹었지. 봄에 나물 나오면 뜯어다가 나물죽을 쑤 먹구. 그래서 이제 곤드레 뜯어다가 곤드레밥을 해먹구 그랬는데 그때 해먹던 곤드레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야. 곤드레밥 맛두 없어. 해해. 그때 시작이 된 거지. 근데 지금 이어 나오는 거지.



그 시절에 맷돌은 집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도구였다

_ 곤드래밥은 어떻게 만들어요?

다른 건 없어. 곤드래 뜯어다가 삶아서 쪽 찌서 쌀을 끓일 때 같이 넣고 끓이는 거지. 식구가 다섯이라면 양식이 안 되잖아. 그러면 나물을 그 만큼 넣어서 불리는 거지. 밥을 반딧박을 했다면 한 식구에 두어 숟가락이 돌아가겠지. 곤드래를 많이 넣으면 한 그릇씩 되겠지. 그렇게 먹구. 그때 풍속이 지금 와서 별미다 했지.

_ 간장을 쳐서 먹었나요?

간장은 부잣집이나 장 담아 먹었지 가난한 사람은 소금이지. 아니 먹을 게 없는데 장 만들어 먹을 게 어디 있어. 부잣집이나 장 만들어 먹었지 없는 사람은 없었어.

_ 여름에 김도 매나요?

거의 안 매. 메밀은 거의 안 매.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말도 있지만, 꽃이 피는 게 나오는 싹이 일정하게 크는 거 같아두 매달 달려. 이 꽃은 하얀데 꿀은 검게 나와. 그리고 메밀향이 아주 짙어. 퀴퀴한 냄새 난다고 하잖아? 퀴퀴한 냄새가 아주 짙어. 발 오기두 거기서부터 쿼퀴한 냄새

가 나. 꿀이 조금 독해. 왜 독하나면 꽃에 어떤, 뭐라고 할까, 꽃에 독성이 좀 있구. 그때 메밀 꿀을 벌이 따다가 꿀을 10월쯤에 채취를 하지. 그 다음에는 꿀에서 메밀 향내가 나고 톡 쏘는 맛이 나. 그래서 자꾸 토종꿀 토종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메밀 심은 데가 없잖아? 그래서 토종꿀이 없는 거지. 없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토종꿀은 목을 탁 쏘다 탁 쏘다 그런단 말이야. 한 삼십년 전에 토종꿀을 자꾸 찾구 양봉꿀은 설탕물이라구 인식을 하다 보니까 양봉꿀에다 양젓물을 탔다구.

_ 양젓물을 탔다구요?

목을 탁 쏘아야 하니까. 양젓물을 넣으니까 탁 쏘거든, 아 이거 진짜다 그랬지. 그래서 꽃이 하야면서도 꿀이 검게 나오는 게 밤나무가 그렇구 들깨두 그래. 그래서 일등급이 아카시아. 싸리, 제주도 가면 감귤 이렇게 세 가지를 일등을 치구. 이등은 자운영, 뭐 그런 거. 토종꿀이, 메밀 꿀이 삼등급으로 들어가. 냄새하구 톡 쏘는 맛이 있는데 약은 들 되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인식하기를 봄서부터 가을까지 됐으니까 이거는 온갖 잡탕꿀이 되어서 더 좋은 건 없다고 토종 토종 하는데 지금은 양벌두 있구 토종두 있다고 하면 토종이 가서 꿀 빼오는 게 따로 있나? 없지. 아카시아면 토종두 빼먹구 양벌도 빼먹는단 말이야. 근데 단 양봉은 자꾸 관리를 하니까 빨리 차고 빨리 차면 빨리 뜰 수밖에. 토종은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마냥 새끼치구, 마냥 해서 가을에 한 번 채취해, 뜨는 거. 그렇게 밖에 없으니까 많이 못하지. 그래서 아직두 꿀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토종이야. 토종은 싸봤자 한 병에 30만 원이구 비싸면 50만 원인데 우리 같으면 안 먹지. 30만 원 주면 양봉꿀 한 말을 사는데 많이 먹지.

_ 그래도 진짜를 먹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쉽게 말해서 삼도 장뇌삼 인삼 뭐 그런 게 있는데 이치가 똑같은 거야. 가짜가 있으니까 진짜도 있겠지. 그런데 삼에 대한 그것두 분석을 해보면 천종, 쉽게 말해 답이 없는 거야. 우리가 사람이 태어났잖아? 어디서

나왔을까? 알에서 나왔을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닭이 없는 거야. 산삼이 진짜가 있었겠지. 그 진짜에서 씨를 받아서 시작이 됐겠지. 그래서 천연으로 나오는 삼을 천종, 그 다음에 사람이 천종의 씨를 받아서 인간이 심었다구 해서 인종, 그리고 이제 새가 씨앗을 배설해서 나왔다고 해서 지종, 그 다음에 인삼밭에서 씨를 받아다가 심은 걸 장뇌삼, 그리고 장뇌삼이라두 인삼밭에서 자라는 걸 갖다 심은 거냐, 아니면 씨를 뿌린 거냐에 따라 뿌린 장뇌냐, 심은 장뇌냐. 이런 게 가격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나이를 많이 먹은, 묵은 게 약이 더 되겠지.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인삼을 심으면 6년근이라고 하잖아? 6년을 키워야 제대로 큰다고 하는데. 그런데 산에 있는 것을 내가 심어서 키우기도 하지만 남이 심은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야. 남이 심어 놓은 거. 아 그러니까 캐지 천연삼을 어디서 그렇게 많이 캐.

— 진짜 산삼을 캔 게 아니고요?

어디에서 몇 뿌리를 캐다, 얼마를 했다, 하는데 내가 심어서 캐먹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건어들린 거지. 캐가면 자기가 안 심었으니까 이게 인삼일까? 생긴 모양새를 보구 해설자가, 말 잘하는 사람이 딱 보구는, 대부분 인삼이 사람 모양 비슷하게 생겼어. 머리통이 있구 양쪽에 팔처럼 난 게 있구.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요두가 있으면은 산에서 자란 삼들은 머리통 있는 데가 가늘어. 가늘구 머리통 양쪽에 하얀, 굵기는 실만한 게 거의 원뿌리 한 반 넘어오게 양쪽으로 내려와. 그 걸 뭐라구 하나면 우리는 머리라구 하는데 그 사람들은 턱이라구 봐 턱수염. 우리가 볼 때는 팔인데 턱수염이라구 해. 그리고 육구라구 하게 되면 이파리가 다섯 개 또 다섯 개, 가닥이 여섯 개를 육구라고 하거든. 육구만달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거의 없는데 육구만달하게 되면, 옆에서 나오는 건 거의 없다고 봐야지. 육구만달, 칠구텃석부리. 나도 의문점이 가는 게 그, 실이 실 같은 그게 크면은 굵어야 되는데 그거는 크면은 떨어지구 새로 나오는 것인지 그냥 그대로 있는 건지 의문이 가긴 가. 근데 반드시 하튼 같은 삼일지라도 턱수염이 있는 삼이 가장 좋은 상품이 되는 거야. 그게 없으면 그냥 인삼이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삼을 볼 적에 턱수염이 있나, 첫째는 턱수염이 있나 봐야 되구, 그리고 이

삼이 봄에 켜나, 여름에 켜나, 가을에 켜나를 봐야 해. 가을에 켜으면 반드시 여기서 고패삼이라구 내년엔 나올 싹이 생겨가지구 있어.

_ 고패삼이요?

예. 고패삼. 요게 반드시 있으면 이젠 가을에 켜구나, 없으면 봄이나 여름에 켜구나.

_ 가을에 캔 삼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 약 효과가 있구 단단하구 그래. 그리고 턱수염이 있어야 되구. 중국에 가면 삼이 싸잖아. 나도 돌아다니다가 하나 사먹었는데 턱수염이 있더라구. 턱수염이 양쪽에서 하얀 게. 그래서 그걸 사먹었는데 그 사람두 그걸 몰라. 그거는 거의 자연산이 가까운 거야. 뭐 옮겨 심기두 하지만. 그게 없으면 장뇌삼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구. 그러니까 그 생김새를 보구 입담이 좋은 심마니에 따라 천 원짜리를 만 원짜리로 만드는 거야. 듣는 사람은 야 이거 먹으면 금방 뱀이 될 거 같거든. 먹기 마련이야.

_ 그때 농사를 지으실 때 벌어진 이야기는?

뭐 힘들었던 거는 산림간수들이 가장 무서웠지. 대부분 그 사람들두 그렇게 골짜골짜구니에 누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오지 않거든.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까지 와서 잡아다 하면 뭘하겠어? 그때는 벌금 그것두 없었구. 워낙 나무를 많이 베면 징역은 좀 살게 했겠지만 거의 없었지. 오면은 그 사람네들이 오면은 겁두 나니까 이장들 통해서 대부분 닭을 사다가 삶아주구. 먹을 게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했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거의 봐줬던 거지. 그 다음에 체일루 산관이나 그런 거는 없던 시절이니까 간수들이 감시했던 게 피나무.

_ 피나무로 뭘 하나요?

피나무가 굵으면 컵 정도, 가늘으면 뭐 더 가늘구. 요런 거를 피나무밭에 들어가면 쪽쪽 뺀 게 있어 낚시대처럼 쪽쪽 뺀 게. 그걸 어떻게

벗기면 두릅 따는 칼କୁ리를 만들어서 저 맨 상수를 걸어 잡아다녀서 확 휘게 해서 그 끝에는 부러뜨리면 부러져.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쥐고 벗기면 이 속은 하얗게 남구 전체가 벗겨져. 전체가. 밑둥아리까지. 나무를 까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오그라졌잖아. 그러면 여기는 반대루 꺾 데기 있는 부분이 겹으로 나오도록 꺾어. 꺾으면 뺏뺏하니까 하얀 속껍 데기는 남아. 죽 벗기구 이쪽두 죽 벗기구. 그러면 하얀 속들이 부드러운 게 나와. 그러면 밑에, 뿌리있는 부분을 강제로 벗기면 떨어져. 돌에 다가 탁탁 치면은 이 종이보다 얇게 겹겹이 생겨. 겹이.

_ 하얀 속살이요?

예. 속살이. 겹이 생기면 터털터털 해. 그러면 그걸 갖다가 바짝 말리지. 말렸다가 이제 그 다음에 말려야만 보관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 오거나 그러면 그 바 들이는 자세가 있어. 자세가 뭐냐면 자연산 나무가 구부러진 게 있으면 여기에 구멍을 내서 자세를 만들었다구 보면 한쪽만 이렇게 눌러놓아야 하는데 땃들을 눌러 놓지 고정시키느라구. 이걸루 바를 만드는데. 줄, 줄을 만드는데. 줄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쓴 게 피나무 꺾질이야.

_ 얼마든지 길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지.

_ 줄을 어디에 써요?

소를 기르면 코뚜레를 만들어서 줄 매서 끌구 다니구. 그 다음에 지게 밧줄. 그러구 아니면 뭐 끈을 쓸 때 이걸루 쓰지.

_ 천연밧줄이네요?

그렇지 천연이지. 칙줄 아니면 그런 거 밖에 없었으니까.

_ 그래서 피나무를 간수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를 많이 벗겨가니까 벌써 가서 보면 허엿게 서 있으니까



이종관 씨가 작업실에서 소 바를 꼬는 모습이다

알지. 그런데 나도 이제 뗏기다 바는 만들어 보구 하기는 했는데 더 위의 조상님들이 힘 쓰는 사람들은 장사였잖아? 그러면 뗏기는데 간수가 쫓아왔으니 저 늑한테 건어들렸으니 매를 되지게 맞지 않으면 붙잡혀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힘이 장사인 사람들은 한 삼 미터 오 미터짜리 나무를 잘라서 이 뒤루 해서 묶었다는 거예요.

— 간수를요?

예. 간수의 어깨에 나무를 올려 놓고 그 가로놓은 나무에 간수의 양팔을 묶는 거야. 말하자면 나무 하나를 옆으로 짊어지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나무 사이를 지나서 와야 하는데 똑바로 가면 나무에 걸려서 가지를 못해. 그러면 옆으로 꺾어서 가야 하거든. 개똥씨는 거 아뇨? 그러니까 못오게 하느냐구.

— 한 번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짊어지구 가야 하니까 밤새 산을 헤매는 거지. 그렇게 골탕을 뵈이구. 많이 그랬다는데. 내가 쓰기 위해 필요해서 나무를 켜는데 나는 죄가 아닌데 법적으로 볼 때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렇게 했대.

_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그렇게 했다고요?

에. 일본 사람들이 정치할 때. 그 놈들 죽이면 난리 나잖아. 그 놈들이 내려와서 찾으려고 해두 벌써 마을 사람들끼리 통해서 일체 말을 안 해. 모른다는 거지 모른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산림간수가 오면은 벌써 저 입구에서부터 개가 짖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마을 마을루 전달 전달해서 온다 그러면 뭐 산에 들어가서 언덕에서 보구서 있으면 잡나 못잡지. 그러면 안 오지. 일본놈들이니까 그때 그랬지.

_ 미산에서는 언제 나오셨어요?

내가 화전밭을 우리 아버지하구 같이 일켰을 적에, 한 거는 한 아홉 살 때에 같이 일을 했는데 하기 싫은 걸 억지루 했지. 그래두 그 기억이 빠듯하게 남아 있는 거야.

_ 힘들어서요?

에. 원래가 힘들었으니까. 그러구 내 혼자 자작으로 한 거는 한 삼백 평 정도, 고추를 심을라구 그거는 내가 밭을 일켰어. 고추를 심을라니까 봄에 해야 되는데 봄에 안 되더라구. 그래서 여름에 나무를 베구 뭇 심었냐 하면 무를 심었어. 한 열세 살 때 같아.

_ 미산에서요?

에. 화전무라고 해서 무가 맛있구 달다구.

_ 화전에서 무 심는다는 말은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화전에서두 심어요.

_ 왜 무를 심으셨어요?

아. 밭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봄에 밭을 일굴라니까 불 번질까봐, 큰 일 나잖아. 그것 때문에 화전은 이렇게 하는 거다, 알게 됐거든. 근데 고추를 심을려고 했어. 고추를 화전밭에 심으면 병이 옮구 잘 된다고 하시더라구. 그러면 내가 한 번 해보겠다구. 열세 살 된 게 뭐 알아. 그래

서 이제 큰 나무를 못 뺐어. 밑에 꺾데기만 까 놓구. 자른 나무는, 그때 톱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갈아 주니까 웬만한 나무는 톱으로 자르는데, 아 참 힘들데. 그거를 한 삼 백평 정도를 한 열흘 정도 한 거 같애. 그것 두 아버지가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밭 위에 올라가서 검불을 아래로 갈퀴로 모아서 하구. 양쪽 가생이두, 쉽게 말해서 밭 요만큼 만들려구 한 천 평 이상 한 거 같애, 느낌이. 여기에 불을 놓으려구 하니까, 번져 나가면 안 되니까. 이 일대를 다 하구. 밑에는, 내가 할 때는 파기가 힘들어서 조금만 파서 했는데.

_ 고랑을요?

예. 이게요. 이런 나무토박 뭐 툇 떨어지면 텅텅텅 불이 붙은 게 구르는데 끄냐구 죽을 둥 살 둥 했지. 다 탄 후에 덜 탄 거는 태우지 않았어. 그냥 위로 옆으로 걷어 내구 그 다음에 대충 판다구 해봐야 파져. 찌그덩 찌그덩 걸리기나 하구. 그래두 고랑이라구 나는데 한 삼일 뺐을 거야. 하다가 앓졌구. 앓졌다가, 쉽게 말해서 에이 안 할래, 그러다가 아버지가 하라구 시켰나 내가 하는 건데 에이 해야지 하구 하구. 또 하다가 에이 안 해, 하고 또 하다가 하구. 해해. 그때만 해두 무씨를 사다가 심는 거는 장다리무라고 해서 겨울에 묻어놔다가 나오니까 씨가 달리대. 아버지가 그 씨를 심으라구 하더라구. 씨가 얼마 안 되니까 한 포기 에 하나나 두 개 씩만 놔, 그러시더라구. 씨를 요만큼 주니 뭐. 하나씩 났어. 뭐 비둘기도 먹는다구 하더라구. 진짜 비둘기가 먹었는지 한 고랑에 20뿌리 났나? 그렇더라구. 그래두 그때 메밀밭하고 무밭은 다르더라구. 여기서 나무 순이 나는데 순이 꽤 크더라구. 낫으로 뺐어. 어쨌든 김장할 적에 한 두 짐 세 짐 정도? 얼마 안 돼, 그래두 농사했다구. 그때 우리 어머님이 그 동치미 하면 좋겠다야. 요만씩 해 띄굴띄굴한 게.

_ 많이 자라는 건 아닌가 봐요?

아. 뭐 그거 같다가 깨끗이 씻으니까 이쁘긴 하더라구. 해 먹구. 그 이듬해 고추를 심는다구. 고추는 일찍 심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는 토종인지 뭔지 한 가지 씨 밖에 없었어. 그 씨루만 심었으니까. 우리 어머

니가 주길래 갖다가 파구선, 아이 하이튼 내 혼자 한다구 그랬어. 내가
 한 거니까. 고생이 되든 죽든 내가 한다구 한 거야. 아예 오지두 못하게
 했어. 심어 놓구 꽤 컸는데 그때 내가 도망을 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
 두 전망이 없어. 그때 도망을 와서 어느 부잣집에 갔어. 일을 좀 했던 게
 있어서 여름에 간 것 같은데 그 집에 무장적 들어갔어. 가만 앉아 있으
 니까 어디서 왔네. 미산서 왔다니까 왜 왔냐? 그래서 살기 힘들어서 왔
 다구 했어. 배가 고파서 밥 좀 먹으려구요. 그러니까 들어오라구 하더
 니 밥을 주더라구. 그 집이가 김 맨다구 가네. 따라갔어. 죽기살기루 했
 지. 그러니까 너 잘한다, 너 잘한다 하더라구. 애들 때 잘한다 잘한다 그
 러면 더 잘하잖아. 죽기살기루 했지. 그 집에서 야 너 어디 가지 말고 우
 리집에 있어라. 그 집이가 외아들이라구. 딸은 셋인데. 아예 너 일 잘하
 니까 수양아들 하자. 알았어요. 그렇게 있는데. 그 집은 소두 두 마리
 키우구,, 꿀두 비오구. 같이 일하구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게 되면 눈치
 루 살게 되잖아. 뭘 한다구 하면 자기네끼리 얘기해. 그럼 내가 듣구 먼
 저 나오면, 너 어떻게 알구 나셨니? 힘들지 않니? 재미있어유. 그렇게
 해서 살다가 한 열 네 살 때 나와서 열일곱 살 때에 저쪽 방아다리 그쪽
 에 셋째 외삼촌이 살았는데 우리 어렸을 적에는 그 사촌들끼리는 나이
 가 비슷하니까,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제사도 보구 모이
 게 되잖우? 그때는 뭐 한 열 명 이상 되더라구. 놀구 하던 기억이 있어
 서 외삼촌네 집엘 갔지. 사촌형이 나보다 한 살 위예구 또 그 밑에는 나
 보다 한 살 아래구. 그렇게 놀다 보니까 이젠 일하기가 싫어. 그렇게 하
 구 있는데 해안에 계시는 우리 이모부가 거길 왔더라구. 와서 야 너 어
 땡게 왔니? 어떻게 해서 도망을 와서 여기 왔는데 아 좋네요, 하니까 그
 래. 너 해안으로 가자. 알았어요. 그래서 해안으로 따라갔어. 따라가서
 이모네집에 가니까 해안은 논농사두 많이 하구 거기는 진짜 쌀밥을 먹
 더라구. 야, 이런 데두 있구나, 하구. 거기서 한 3년 있다가 그 이듬 봄
 에 스무 살인데 누가 벌 키우는데 가자구 해. 알았어요. 꿀두 실컷 먹구,
 전국으루 돌아다니니까 구경이나 한 번 해보자구 나셨는데 그렇게 1년
 돌아다니다가 집에 오니 뭐. 우리 아버지가 불구자였었는데 왜 불구자
 였냐면 그 일본놈들 시절에 미산국민학교지, 진다구 나무를 베오라구
 해서 베다가 나무가 내리쳐서 다리가 두 동강이 났어. 그러니 뭐 일을

제대로 해. 그래서 우리는 학교도 제대로 못뎡졌어. 지금 우리는 눈치루 다 하는 거지. 뭐 없어. 그래가지구 또 오니 뭘해. 별하는 주인에게, 나 여기 쌀 한가마니 주면 겨울에 벌 보고 있을 게요. 주인이야 좋지. 봐 주니까. 그렇게 하구 있으니까 고구마 캐구, 뭐 보리 심구 그런 일을 하더라구. 나도 주인네 일하는데 따라 도와줬어. 도와주구 뭐 보리씨, 유채씨 뿌리는 게 메밀씨 뿌리는 것과 비슷하더라구. 뿌려보니까 자기네보다 더 잘 뿌리구 빠르거든. 야 너 잘한다 야, 잘 한다, 장가 안 갈래? 해. 일잘하구 그러니까 누가 중신을 서더라구. 옛다 모르겠다 있던지 없던지 애초에 없던 놈이 뭐 장가를 가면 더 잘살겠지 흐흐. 이래서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과 거기서.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한 살 많아, 그때 집사람은 스물두살, 나는 스물한살. 우리 집사람 처형이 해녀들이 전복을 따면 그 저울 가지고 다니며 사서, 우리 집사람 언니는 그 걸 사서 물에 바꾸니를 만들어서 담귀 났다가 어느 정도 양이 차면은 부산으로 가지구 나가더라구.

— 아주머니의 고향이 제주도세요?

예. 우리 집사람이. 근데 한 번 배 타고 나가면 팔구 와야 되니까 삼사일 걸리잖아. 그럼 우리 집사람에게 대신 맡아서 전복을 갖다 달라고 그러더라구. 그래서 우리가 벌통 났던 주인집의 방이 세 칸인데 그 집이 신혼생활을 하구 두 식구야. 방 하나는 우리가 벌 키우면서 쓰고 있구. 요 하나는 이 저 전라도 무안 그쪽에 있는 사람이 살면서 애기 하나 낳구. 고구마 공장에 서리로 다니더라구, 전 서기, 전 서기 그렇게 부르더라구. 그런데 우리 집사람 언니가 조그만 초가집 하나를 가지구 있었는데 언니는 팔아서 서귀포 시내로 집을 하나 사서 나가구, 옆의 방의 그 사람이 그 집을 사구 갔어. 그 집두 애기 하나만 있구, 방이 두 칸인데 거기에 우리 집사람과 장모님이 살았어.

— 옛날 제주도에 물이 귀하지 않았나요?

그때만 해두 물이 없어서 공동우물을 파 놓구 두레박을 드리워서 그 물을 썼어. 밥 해먹고 나면 뭐 벌 정리 대충 하면 할 게 없어. 그러면 물통

을 짊어지구 그 집엘 오는 거야. 오면 물통 거기에 놓고 놀구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해녀들 나가면, 그 집 아주머니도 해녀를 나가는데 해녀를 나가면 전복, 소라 따가져 오면 얼마씩 받아다가 났다구. 그런데 사람들이 저 아가씨 보라 농담으로 그래. 예 알았어요. 그러다가 그 언니가 또 왔어. 가질리. 전복 자른 거는 상품 가치가 없다구 날거루 까먹으라구 주대. 나는 안 먹어 봤으니 저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왜 안 먹냐고 그래. 날걸로 먹어두 되나유? 그럼 날거루 먹어두 되지. 그래서 아주머니가 날걸 장에 찍어서줘서 먹었더니 입에서 우두둑 우두둑 그래. 별맛은 모르겠어. 안 먹어봐서 그런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잘 먹더라구.

_ 혼담은 또 없었어요?

이제 다시 그 해 벌을 가지구 나왔다가 월동을 하구 그해 다시 들어갔더니 얘기가 점점 더 잘 되는 거야. 알았다구. 한 번 해보자구. 어딜 가든지 혼자니까. 쉽게 말이 떨어져서 하루 또 만나자구 해서 만났는데 경험 있어야 얘기도 할 텐데 뭘 얘기를 할 줄 알아. 그냥 멀뚱 멀뚱 있다가, 나보고 어떻게 살아요? 아예,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잘 살구요. 밭두 한 오천 평 있구요. 다 잘살아요. 난 내가 혼자 살겠다고 나왔어요. 그럼 결혼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어떻게 하긴요. 여기서 살아야죠. 그래서 거기서 사는데 장모님은 건강이 안 좋으시더라구. 한 3년 있다가 돌아가시구. 하여튼 우리가 지금 사는 집 짓구 이사를 몇 번 했느냐면 스물두 번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두 신혼이니까 거기 집에는 집세라는 건 없었구, 와서 살라구 하더라구. 살다가 나가야 하면 다른 집에서 오라구 하구, 또 오라구 하구 해서 글루 가구 글루 가구 일년에두 몇 번 이사를 했어.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저 집을 짓구 마지막에 왔는데.

_ 지금 사시는 합강리 집이요?

그렇지. 처음서부터 술담배를 애초에 생각도 못했으니까 그런 거는 없었구. 그러구 그래두 결혼을 하는 게 빠르더라구. 여기에 와서, 배터개라구있어. 다리 놓기 전에 나룻배가 건너다녔는데. 우리 큰 집이 고사

리 순깨에서 살았는데 벌 하구 돌아다니다가 해안까지 와서 보구 추석 때면 큰집에 왔었지. 오다 보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더라구. 삼십 한 오년 된 것 같은데 송이를 하루에 따서 삼십만 원씩 벌더라구 송이를 따서. 야, 조카가 그러는 거야. 작은아버지 가지 말구 송이나 따 요. 몇 십만 원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한 달 땀는데 하루에 만 원씩은 벌게 되더라구. 한 삼십만 원 벌었어. 조카랑 형님들은 몇 백은 했지.

— 벌은 그만 두시고요?

그렇게 시작은 하나까 이게 벌도 벌이지만 송이도 따면서 벌두 할 수 있겠구나 했지. 제주도에서 살면서 애기가 하나 생겼어. 벌을 하면서 일년에 얼마씩 받기로 하구 왔다 갔다 했어. 그게 안 되더라구. 아 벌을 그만 두구 낄일이라두 노가다나 해봐야겠다, 시작을 했는데 여기저기 해 봐야 일거리가 많나? 없지. 그때만 해두, 그때 전복장사하던 집사람 언니가 서귀포 쪽에서 굴 성과장을 크게 만들어 놓구 성과를 선별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 걸 하래. 거기에 방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아주 글루 이사를 와라, 그렇게 된 거야. 거기에서는 집세라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거기는 시내다 보니까 1년 집세를 삼십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구. 어쨌든 일을 하나까 하겠다구.

— 부인도 같이 하셨겠네요?

우리 집사람은 성과장에서 기계가 텅텅텅 돌아가면서 성과를 고르면, 로라가 돌아가면서 1번 구멍으로 2번 구멍으로 12번까지 있어. 그 구멍으로 성과가 나와. 우리 집사람은 그거 하구. 나는 나가서 굴 따는 거 차로 실어오고 내려놓구. 굴을 한 박스 담아져 나오면 아가씨 세 명이 쪼로록 서서 나라시를 해. 내려오면 후다라구 해서 판대기 덮구 못 박는 일을 하는 총각이 있었어. 그건 기술이 있어야 해. 포장두. 그 작업을 하루에 많게는 천 짝, 작게는 오백 박스 해. 나는 굴두 실어오면서 철사 묶는 거를 해. 못 박는 거는 기술자가 혼자 하지만 철사 묶는 거는 둘이 해야 해. 묶어서 옮겨 놓는 것까지 해야 해서 미쳐 해내질 못해. 그

런데 못박는 사람은 못 한 주먹을 쥐고 툇툇툇툇 치면 한 방에 들어가. 우리는 철사를 돌려서 쌓구. 그런 작업을 계속하는데 밭에서 따온 굴이 해를 본 건 노랗구 그늘 쪽은 퍼렇잖아? 그러니까 먹는 사람은 굴 전체가 노래야 먹지 퍼리면 안 먹거든. 이런 거는 선별하는 아가씨가 따로 골라놔. 골라 놓으면 그걸 방처럼 맨들어 놓은 곳에 차곡차곡 쌓아 놓구 아주 비니루로 밀봉을 시켜. 그리구 카바이트를 한 2킬로 이렇게 놔. 강통에 놓구 물을 붓구.

_ 성과를 하는 거군요?

그렇지. 그런데 철사를 감는 아저씨가 그 일까지 하는데 그날 하필 일을 안 온 거야. 그래서 내가 하게 됐는데 카바이트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가서 사왔어. 원래 사려면 덩어리로 한 5킬로를 사오는데 없어서 3킬로를 사왔는데 덩어리를 가져 왔더라구. 난 하는 것만 봤지 얼마가 들어가야 하는 건 모르지. 나보고 하라구 해서 그 누무거를 반만 넣어야 하는데 3킬로를 다 쏟았어. 아주 다 비니루로 다 싸고, 문을. 베니다로 된 문이 밀착이 안 되구 벌어져. 난 비니루로 그 틈까지 막았어. 뭐 짱 소리가 나는 거야. 뭐야? 그 소리가 나구선 정신이 없었어. 내가 저기 나가 떨어졌더라구.

_ 폭파가 된 건가요?

맞아. 일어났는데 뭐가 잘 안 보이더라구. 이렇게 보니까 희미해. 아 요 기서 아가씨가 쑥 일어나는데 베니다 파편에 맞아서 얼굴에서 피가 나오는데 귀신 같애 꼭. 아이구 귀신! 가만히 보니까 일하는 아가씨야. 사람들은 밖에 나가 다 서 있구 나도 나오구 그 아가씨두 나오구. 정신없이, 그 아가씨가 그렇게 있길래 그 아가씨를 잡구 있는데 사람들은 큰 일났다, 말만 하구, 병원 병원 말만 하지 누가 가겠소릴 해? 어떻게. 병원이 꽤 먼 텐데 말로만 택시 택시지 없는 늣의 택시가 와. 웅성웅성대기만 하구. 가만히 있으니까 정신이 나더라구. 보니까 그 창고 천정이 없어. 어디로 났는지. 일단 그 아가씨를 데리고 병원에 갔지. 그 아가씨가 나 어떻게 됐지요? 괜찮아요. 피가 조금 나와서 그래요. 병원에 데려

다 놓구, 간호사와 의사가 뭐라면서 들여다보더라구. 난 지금 일하다가 급하게 이 아가씨가 다쳐서 데리고 왔는데 주인도 이제 밭에 일하러 가구 없어요. 다시 현장에 가봐야 돼요, 그러구 오니까 하여튼 동네 사람들은 다 나와서 둘러 싸구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경찰들두 나와 있구 그러더라구. 근데 내가 걸어오는데 발자국 소리가 귀에 쿵쿵쿵쿵 소리면 나구, 점점점점. 땀다 튀면서 고막이 나간 거야. 야 고막이 나갔는데 큰 일났대. 경찰두 왔지만 형사가 어떻게 된 거냐구 묻더라구. 난 여기 일하는 사람이라구. 이 집하구 어떻게 되냐? 우리 집사람 처 언니되는 집이라구. 그럼 주인들은 어디 갔느냐? 밭에 일하러 가서 아직 안 왔어요. 그럼 폭파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일단 경찰서로 들어갑시다. 조그만 지프차에 타구 갔지. 갔는데 가면서 귀로 뜨거운 바람이 훅 나오더라구. 아유, 그 다음에는 말이 도통 들리지를 않아. 뭐라구 그러긴 그러는데 내 소리는 뭐 벼락치는 것처럼, 못듣겠다구. 그럼 앉아 있으래. 한참 있다가 말을 하니까 어느 정도 되더라구. 이제 되니까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라구. 카바이트 폭파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냐? 김 씨가 했는데 오지 않아서 내가 했대.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됐어. 보니까 카바이트도 허가증이 있어야 다루는 거더라구. 그러니까 그런 허가가 있느냐? 없는 거지 뭐. 거기서부터 잘못됐대. 얼마 있으니까 그 언니가 굴착업 하다가 왔더라구. 3킬로 폭파가 됐는데 한 백 미터 둘레 구간에 2층 집들이 있었는데 2층집들 유리는 박살이 나구. 백 미터 둘레루.

— 굉장하네요.

예. 그러구 위력이 얼마나 됐는지 성과장 건물의 벽이 나가면서 밖의 돌담을 쳤는데 문짝이 없어. 틀만 있구 유리두 다 깨졌어 흰해 집안이. 그런데 들어가 앉았는데 다친 사람은 그 아가씨가 제일 많이 다치구 나는 여기가 다치구. 거기에 내 외사촌 처남두 거기에서 일을 했는데 알구 보니까 범인은 그 사촌처남이더라구. 그 처남이, 그 문틈으루 공기가 새 나오는데 틈이 새서 공기가 나오면 밀봉하려고 불을 대본 거야. 그런데 그게 쉽게 말해서 휘발유에 불을 붙인 격이 된 거야. 그래서 폭파가 된 거야. 내가 들어앉아 있는 게 낫지 그놈이 불을 붙였대구 그러면 더 큰 죄가 나야? 그래서 나만 알았지. 경찰은 카바이트를 많이 넣어

서 팽창해서 폭파가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구. 유치장에서 8일 동안 있었구. 또 교도소에 넘어서 일주일을 있었어. 면회는 오는데, 집 사람두 오구 동네 사람두 오구 몇 번 와. 얘길 들어보면 주위 사람들 문과 유리창 보수는 3백만 원 들어서 다 해줬다고 하더라구. 그래 그 아가씨가 입이 찢어졌는데 성형수술을 세 번 해야 하는데 오백만 원이 든다구 그 돈을 요구해서 오백만 원을 보상해 줬다구 하더라구. 그러구나니까 그 모양이 됐는데. 그 놈의 일하다가 유치장에두 가보구. 허허. 끝.

불을 두드려 끄면 클나요!

인터뷰 날짜 2015년 8월 9일

인터뷰 장소 심재영 씨 집

_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심재영이에요. 나이는 78이에요. 현주소 남면 수산리 무학길 153-3.

_ 고향이 여기서라고요?

예, 그전에는 이곳이 춘성군 북산면 수산리 무학동. 이 집터는 전에 번



심재영 씨

지가 621번지. 여기서 우리 증조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 나, 지금 애들까지 5대가 이제, 지금 나가 있지만 왔다갔다 해. 5대가 이 터에서 살고 있는 거야. 오래됐지. 여기 터줏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지.

_ 태어나신 해가?

38년인데 4월 8일.

_ 어린 시절에 이곳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뭐 산전을 화전을 많이 해먹구, 자기 땅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땅에 다 하면서 그것도 부족하면 산에 화전을 해서 자급자족하다가, 우리는 왜정 전서부터 살았으니까. 이곳 수산리에 물 차기 전에는 280호가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수몰되니까 보상 타가지고 나갔고, 그 다음에 박 대 령 때 산을 살리자고 해서 화전이 나갔지. 그때 당시에 한 가구당 이주비가 40만 원이야. 그 돈은 지금 치면 4천 만 원 쯤 될 거야. 그거 타서 집두 사구 논밭 산 사람도 있구 이해서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로 가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부흥이 되니까 공장이 생기니까 가서 일들 해 먹구, 나간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요. 지금도 왔다 갔다 해. 그때는 산 전부가 화전밭이었지, 시뻘췌어요. 화전 정리하는 바람에 산이 푸르지만 요 가금방에 썩 다 해먹었지.

_ 그때는 산전이라고 했나요?

에 산전, 화전밭, 나무 베어서 개켜놨다가 불싸 놓고. 뭐 콩, 팥, 조 심어서 자기들 배고프니까, 나머지 팔고. 또 적게 짓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면 미리 대개다 먹는 거야. 그때는 5부야 이자가 한 말을 가져가면 닷 말을 계산해서 열닷 말을 줘야해. 지금 5부라고 그러면 엄청나잖아? 그때는 그것도 싸다고 했어. 급하면 그것보다 더 주고도 갖다 먹구. 그때는 조합에서 융자 주는 게 없었어. 가을이 되면 모곡상이 있어. 신남에 큰 상회가 있구, 지방에는 여기, 저 밑에 마을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세 집이 파서 서울도 가져가구.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국수 같은 것도 갖다 놓면 짝으로 갖다 먹구. 밀기울도 갖다 많이 먹었어

요. 화전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게, 가축사료야 그런 것두 다 갖다 먹구. 나물에 섞어서 범벅해서 먹구. 자유당 때 배고픈 시절에 그렇게 먹었지. 나는 왜정 때 태어나서 1학년 다니다 해방이 돼서. 요 밑에 학교가 있었어. 초등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지.

_ 분교인가요 본교인가요?

그때는 춘성군 북산면 수산리 수산초등학교. 이렇게 명칭이 됐구. 그 다음에 사변이 나구 그 다음에 잠잠해지구 수복되구, 뭐 학교도 다 불타구 천막을 쳐 놓구 이제 학생들이 다시. 나두 난리 때 1학년 2학년 뭐 대전까지 쫓겨 갔다가 들어와서 부평국민학교가 먼저 섰지, 거기에 5학년에 들어갔어. 한글도 사실 잘 떼지도 못했어. 지금 아이들은 유치원 가기 전에 다 한글 알구 하지만 그때는 지금 상상도 못하지. 거기 부평국민학교에서 난리 전에 3회가 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4회 졸업을 맡았는데. 부평초등학교도 그 전에 건 없어요. 우리 4회서부터 올라간 게 돼 있구. 거기서 졸업을 맡구 신남중학교를 땡기서 지금은 중고동창회가 생겨서 초기에 회장을 내가 1대 2대를 했고. 그 다음에 5대 회장이 고려관 그 사장이 5대야. 전번에 체육대회도 동문회가 했는데 메르스 때문



옛 초등학교의 옛 모습

에 서울서도 많이는 못왔어. 그래도 많이 모였더라구. 회장이, 80이 넘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팔순잔치를 해주겠다고 해서 후배들이 전부 인사를 하구. 내가 회장 보구 착안 잘 했다. 우리가 많이 고맙다, 그렇게, 처음이거든. 지금 팔순 된 사람두 자식들이 팔순두 못해준 사람들이 많아. 그날 바빠서 몇 사람 못왔었는데 팔순잔체도 그렇게 해줘서 고맙게 됐구.

_ 그럼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화전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밭이랑 많이 있으니까 일꾼들을 두고 했거든요. 일꾼들 대여섯 명을 두니까 면적이 적으면 산전두 했구. 줄 맞은 땅 외에 그 옆에 해 먹을 때가 있으면 그 옆에 더 해 먹구.

_ 줄 맞은 땅이 뭔가요?

그게 몇 번지에 몇 평, 이런 게 있잖아? 토지 지번에, 그게 줄 맞았구 그러지. 왜정시대에 전부 측량을 해서, 등록된 땅을 말해. 그 외에두 많이 해 먹은 거지. 내가 농사를 계속 해 내려오다가 중학교 졸업을 하구 부모님들 연세가 많구 하니까 내가 후임으루다 여태 농사 짓구 소두 맥이구. 우린 옛날부터 소를 계속 맥였으니까. 한 50마리 맥이다 잘 안 되구 그래서 13마리 맥이구 있어요.

_ 그럼 하시는 일이?

소 맥이구 논 붙이구, 밭 좀 하구. 둘이서, 애들이 와 거들지만 두 내외가 논을 한 만평 붙여요.

_ 여기 논이 그렇게 있나요?

보이는 건 다 내가 하는 거야. 모 심은 건 내가 다 경작하는 거야.

_ 그럼 트랙터로 하세요?

트랙터, 콤파인 다 있어요. 이양이두, 그 전에는 쫓아다니며 했는데 지금은 타구선, 그래서 다 하는 거지.

_ 기계를 사용해서 만평을 하시면 이익이 되나요?

그러니까 다 따지면 별게 없죠. 내가 기계를 구입해다 하니까 연차적으로 조합에서 일 년에 얼마씩 물어라 이렇게 하구. 내 땅이니까 할 수 없이 묵일 순 없구. 옛날에 다 따지면 장값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지금두 똑같은 현상이야.

_ 먹는 장이요?

예. 먹는 장값이 다 따지면 모자랬대니까 하하, 지금 농사나 옛날 농사나 똑같아요. 요즘 고추 뭐 이런 거 해서 1억 올렸다 2억 올렸다 하는데 숫자는 그만침 올렸지만은 인건비 그만큼 나가는 거야. 사람, 중국사람 다 사가지구 하니까. 연말 가서 통장에 쌓인 돈은, 내가 농사 지니까 별로 없어요.

_ 화전은 어떻게 하나요?

화전은 산에 가보면 여기는 곡식이 잘 되겠다, 돌각사 같은데는 잘 안 되니까 그런 자리를 보구선 나무를 짝 비는 거예요. 도끼로, 그때는 도끼가 많았지. 짝 벼서 해놨다가 빠짝 마르면 봄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심재영 씨가 군복무 시절에 찍은 모습이다

_ 몇 월에 불을 지르세요?

금까 보통 2-3월 달에 바짝 가물잖아요? 그러면 불 날까 꼭대기를 끊어 내려서, 저쪽으로 번지지 않게 해서 불을 놓아요. 그거 할 적엔 공동체 루 해서 몇 사람 같이 가서 불을 놓면서 자기 것도 가 봐주구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불을 놓구. 그러면 불이 번져나가는 수두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꺼버리구. 지금처럼 대형산불은 안 났어요. 밭이 고기고이 있으니까, 지금은 붙었다면 산 전체니까 베지 않으면 끄지도 못하는데 산에서 해먹어 와서 불을 끄는 요령들이 지금 사람들과 달라요.

_ 잘 끄신다는 거지요?

예. 텔레비로 이렇게 보면 소방대두 가서, 그렇게 하면 헬기 안 오면 진압이 안 돼.

_ 어떻게 불을 꺼야 하나요?

이제 여기도 이제 산불이 나면 동네사람 빨리, 그땐 전화도 없구 그러니까 산에 가면은 무조건 팽이나 갈퀴를 가져가요. 가져가서 불이 쪽 올라가면은 능선을 아 올라간다고. 올라가서 불이 올라오는 금은 딱 그 어가지구 양쪽으루 사람이 갈라져가지구 불을 이렇게 달아서, 불을 달아가지구 내려온다구.

_ 단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불을 붙여가지구.

_ 맞불을 놓는 건가요?

맞불을 놓는 것과 비슷한데 더 번져나가지 못하게 자꾸 갈퀴로 끊으면서 이쪽으로 해서 불을 끊어 내려오면 타잖아. 타서 이렇게 내려오면 그 다음에 뭐 올라가던 불이 위로 못올라가니까 옆에서 내려 왔으니까 슬슬 타올라 가니까 더 번져나가지 않을거든요. 아, 끌려고 할 게 아니라 불이 올라가는 곳에 미리 가서, 불 올라간 데를, 올라가서 끊어내린다구 이렇게. 끊어내림서 옆으로 번지지 않게 끊으면서 타면 뒤에서 불

을 달아서 내려온다구. 쪽 내려오면 이쪽은 굽었으니까 안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아래까지 내려오면 고 주위에만 타는 거지.

_ 보통 불을 끄면 가서 두드리잖아요?

그거 두드리면 클나요. 나 텔레비서 보구 그거 펑 치면서 갈땅이 돼서 저건 텔레비두 잘못 비쳤다. 우리는 그렇게 안 켜거든요. 사람 뭐 다섯 여섯 가면 반씩 나뉘가지구 짝 해서 뒤패들 오면 같이 협동해서. 그때는 산을 많이 안 테웠어요. 요즘은 뭐 텔레비 보면 밑에서 저거 하구 꼭대기는 헬기가 하는데 불을 내려 잡아야 하는데 어물대니까 다 올라 타구.

_ 방법을 전혀 모르는 거군요?

모르더라구. 그 전에 여기두 미사일을 군축령 쪽으로 쫓는데 수산리 여 중간에 떨어졌어요. 제 거리를 못 간거지. 그게 쇠통이 달귀졌으니까 갈땅에 불이 나서 올라 타. 그때 우리 집에 유선전화가 있어서 아무데 산불났다고 해서 몇 사람 데리구 가서 쫓아 올라가니까 이제 헬기가 와서 그 사람들이 뭐야, 소화기 소화기로 뿌리니 그게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올라가니까 올라타는데 딱 금을 그어서 하면 얼마 안 타서 그러니까 신남에서 소방대하구 군인들 못해 엄청나게 들어왔어. 그 사람들은 잔 불정리나 하고 나갔지. 산불을 잘 켜어요. 그래서 화전 이주민 가구 호수가 줄구 해서 동민들이 얼마 안 되지. 그래두 서울 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구 그래서 지금 한 55세덴가 돼요. 여기저기 골이 엄청나게 깊죠. 여기가 그 전에는 3개 군을 거쳐서 장에 갔어요. 홍천 사람들이 이리워서 가구 삼지사방에서...

_ 홍천 사람이 이곳에 와서 어디로 장을 보러 갔나요?

궁까 원동서 나와서 신남장 보구. 여기가 전쟁 때 중국 사람들 루트선 이에요. 양구서 이렇게 게 나오면 그때 댐이 없으니까 강 건너와서 일루 해서 매봉산을 넘어 원동으루 와서 쪽 빠져 나가면. 자들은 중국 사람들, 중공군은 비행기가 무섭구 그러니까 도로로 안 가구 산길을 탔다구. 두촌 나가서 샘재로 들어서 단풍리로 해서 절루 빠져나갔어. 그러

니까 여기가 아주 사변 땐 인민군들 낙동강 뺏기구 이리 들어갔지 밤
 낮. 여기 전투지역이었어요. 전투 많이 했지. 쫓겨가는 패잔병들. 옛날
 에 그 군인들이 못나가구 포위된 거야. 우리가 숨겨서 식사제공을 했는
 데 우리 혼자 못하니까 여러 집이서 쌀을 어디다 뇌라 그러면 밤에 가질
 러 내려왔지. 가져가구 쌀이 떨어지면 연락이 오구. 장, 그때는 주로 장
 이니까 그런 거 해서 먹구. 그 패들이 낙동강까지 나갔다가 쫓겨 가니
 까 8월 15일부터 이곳에서 작전을 했어요. 무기 있는 걸 가지구 패잔병
 을 붙들구 총 다 뺏구. 그전에 여기 총이 엄청났어요. 다 미구 땡기구 여
 기 아주 대부대가 됐지. 그래가지구 수복 된 다음에 인제경찰서에서 무
 기를 한 차 싣구 갔지. 전과를 많이 올리구. 접전을 많이 했어요.

_ 마을 분들이 총 들고 싸우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전부. 사변 전에도 청년들이 삼판선에 가서, 군인들이 얼마 없으니
 까 호에서 자구. 몽둥이 들고 보초 섰어요. 그러다가 뭐이 나타났나 하
 면 군인들 깨우면 그 사람들이 총 들구. 지금은 아마 전방에서 보초 설
 때 몽둥이 들고 서라면 설 사람이 있을까? 없을 거 같애. 그때는 청년들
 이, 군대 조직이 말한 마디면 짝 움직였으니까.

_ 산에는 뭘 심으셨어요?

산에 주로 옥수수, 콩, 팥, 조 뭐 오곡을 다 심었죠.

_ 가파른 비탈인데 어떻게 농사를 지으세요?

그때 저 소로 갈 수 있는 건 소로 갈구, 소를 두 마리루 갈구. 그렇지 않
 으면 사람이 팽이루 밟죠. 팽이루 팔 적에는 맨 꼭대기루 올라가요. 꼭
 대기에서 내려 판다구. 사람이 줄을 서가지구 한 사람이 파구 나가면
 그 밑에 고랑을 또 그 둘째 사람이 파구 나가구 또 그 밑에 사람이 파
 구 나가구. 다섯 사람이 하면 다섯 고랑이 되잖아. 먼저 파구 나가면 흙
 이 내려와서 자꾸 무너지지 않게 그 다음 파구 그 다음 파구 맨 밑에까
 지 파구. 씨앗두 위에서부터, 조씨를 뿌리면 슬슬 끌고 나가면은 조가
 다 묻혀가지구 되구. 고랑을 파구선 사람이 심죠. 팔도 그렇게 심구. 그

러다가 그렇게 하는 게 힘드니까 앞사람이 씨를 똑똑 떨어주고 가면 뒷사람이 밭로 치구. 그래두 그때 당시에는 비둘기 뭐 이런 짐승이 얼마 안 돼서 자 자랐는데 요즘은 여기 비둘기가 엄청나요. 참새때도 없더니 참새때도 다니고. 지금 뭐 조수피해 뭐 어찌구 하는 거 말하는데 예전에는 산돼지두 있었지만 옥수수밭에 망을 치구, 들어오면 쇠통 같은 거 두드려서 쫓구. 지금은 우리 논에두 다 돌아댁겨가지구 다 망가뜨리는데 조수피해를 해 달라고 하니까 뭐 누가 총에 맞아서 안 내주더라고 포수들. 작년에는 밤에 와서 잡구들 했는데 요즘은 안 내줘. 그 전엔 자루가, 지금은 마대가 많지만 그 전엔 가마니를 짜구 해서 만들어 콩, 팥을 거기다 넣어서 운반하구. 그 다음에 저장할 땐 채독이라구 항아리처럼 크게 엮어서 그 안에 흙을 바르고 겉에 쥐가 못들어가게 해서 거다 집어 넣고 따깡해 넣고. 해서 팔구.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지구 없지. 그 박물관 같은데 그 채독을 갖다 놓았더라구 옛날 것. 그 전에는 다 그런 걸 비 안 맞는데 해놓구 콩, 팥 넣었지.

_ 채독을 싸릿대로 만들어요?

예. 싸릿대를 역어서 뼈대를 만들고 흙을 붙여. 흙을 붙여야 쥐가 들어가지 않으니깐. 그게 보온역할도 되고 습기방지도 되고. 옛날 사람들이 지혜가 좋았어. 장독도 숨 쉬고, 장맛이 좋다구. 항아리에 넣어야 김치 맛도 좋구. 지금은 김치냉장고에 넣지만 항아리에 넣어 땅에 묻으면 맛이 좋고 오래 가더라고.

_ 돌이 산에 굉장히 많을 텐데요?

돌 많은 데는 안 하고 돌 없는 곳에 하지. 흙이 많은 데를 하지. 짠 자갈이 있는 데는 팔이 잘 돼요. 잔돌이 짹 있는 거 팔 심구. 밭이 아주 나쁜 데는 된팔이라구 찌다란 게 있어요. 그건 그런데 심으면 잘 돼구. 그러니까 농촌 사람들이 밭을 보구 아 여긴 팔이 된다, 콩이 된다, 조 심어야겠다,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지요.

_ 김매는 게 힘드시잖아요?

김도 지금은 아주 뭐 제초제 쳐도 자꾸 풀이 나오는데 화전밭은 그렇

게 풀이 안 올라와요. 광대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늬는 다 죽어두 그 늬은 뽑아두 뿌래기가 안 죽고 계속 나와요. 상당히 강한 늬이야. 등 지호미로, 낫이 없으면 등지호미로 꼰두 베는데 그걸로 슬슬 굵어 나가 구. 그래서 화전을 많이 하는 거야. 김매기가 쉬우니까. 지금 저런 발은 한 번 두 번 매도 꼰씨가 계속 올라오는데 거 뭐 콩두 심어놔서 한 번 매 구 두 번 매면 그 다음에 세 번은 매지도 않아요. 콩이 우거져서 그 밑에서 풀이 자라질 못해요.

_ 콩도 잘 되나요?

잘 됐지요. 그 전에 콩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은 가을에 20갈이씩 콩을 하구.

_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옛날에는 기계방아가 없었구 발방아가 있었죠. 우리집에두 있었구. 발방아두 낫게 사는 집만 있구 없었어요. 아침 나절에 누가 찢구 저녁 때는 갑돌이네가 찢구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찢죠. 품앗이 하면서. 디딜방아지.

_ 두 사람 이상이 해야 되잖아요?

두 사람이 찢구 옆에서 목두 밟아주구 또 벼 같은 거 할 때두 쓸어 넣어 야지 하니까 한두 사람 가지고는 힘들어요. 울력이라고 해서 공동으로 했지 주로. 서로 도와가면 하는 걸 울력이라고 해. 산에 가서 콩, 팥 가려 놓으면 새벽 일찍 울력들을 돌아가며 했어요. 새벽엔 누가 진다, 저녁에 누가 진다 순서를 해서 열이구 스물이구 저다가 그 집에 놓구 돌아가며. 그 전에는 울력이 참 많았죠. 울력하러 가자 소리를 지르면 다 일어나서 지게 지구 나오구. 저녁 때 일하다가 울력진다 하면 다 놓구 그 집에 지구. 식사를 또 얻어먹구.

_ 그 집에서요?

예. 아침에 자다 일어난 건 지구 와서 아침을 얻어 먹구. 울력 지면 그

집에서 콩 있으니까 두부도 해주구. 그땐 뭐 참 식사들이 지금 사람들은 상상도 못해요. 사발에다두 담으면 그 위에 하나 더 올라가게 해서 퍼요. 그래두 어떤 사람은 그거 먹구두 더 먹구. 지금은 고기두 먹지만 그때는 산에서 토끼나 잡고 돼지 같은 거 옥로를 놔서 잡으면 좀 먹었지 고기는 못 먹었어. 주로 김치짬지에다 장, 장도 풍부한 사람이나 놓고 먹었지 잘 못사는 사람은, 장도 1년 전에 떨어지면 장 많은 집애가 얻어다 먹구. 할머니 장이 떨어졌는데 장 좀 주슈. 지금도 많이 담구지만 옛날에는 우리집에 장 얻으러 계속 와요 이집 저집에서. 그래 우리 할머니가 확실히 퍼 주지 그거를. 한 사발 가져가야 여러 식구서 얼마 먹어요? 그래서 소금 간을 더 넣구 해서, 장국도 시레기국 해서 먹구, 그때 사람들, 화전하는 사람들 지금 생각하면 비참했지요 뭐. 지금은 잘 먹구하니까.

_ 밥은 어떻게 드셨어요?

밥은 없는 사람들은 좁쌀을 해서 좁쌀밥. 쌀밥은 우리처럼 농사나 짓구 벼농사 짓는 사람들이 주로 먹구. 화전하는 사람들은 제사나 지낼 적에 쌀을 사다가 멍밥 지어서 먹구. 부잣집에서 일하면 쌀밥 먹구. 감자 심어서 춘궁기 되면 감자가 요만큼씩 돼. 하지 전에 전부 감자를 캐서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보릿고개 보릿고개라고 말하는 게 그개 보릿고개야. 지금이야 보릿고개하면 보릿고개가 뭔가? 하지. 그때 배고파 본 사람은 다 알지만 지금 애들은 보릿고개가 뭐냐고? 내가 우리 애들에게 옛날에는 배고파 죽을 뻔했다 그러면 할아버지 사발면 사 잡숫지 왜 배고팠어요? 라고 해. 지금 애들에게는 보릿고개가 호랭이 담배피던 애기와 똑같은 거야. 지금 애들은 옛날 그런 거 보면 깨달은 점은 많이 있지.

_ 밤에는 뭘 하고 노셨어요?

밤에는 기름도 없잖아요? 속갱이라고, 화전하고 나면 소나무뿌리에 송진이 배면 아주 속갱이야. 갖다가 집에 싸 놓구 도끼로 조그맣게 쪼개가지구 코쿨에 해서 거기에 불을 해놓고 그걸루 주로 밤에 불을 키구. 할머니들 길쌈하는 게 무명으루 옷을 짜 입었는데 속갱이불 켜놓구 밤

새 하는 거지. 발로 이렇게 하구. 우리 할머니는 물레 자가지구. 무명옷 해 입구. 무명을 밭에다 심었다, 무명을 따다가 쇠에다 실을 빼가지구 그걸, 그 전에는 솜틀도 별루 없어서 활, 활이라구, 지금의 활쏘는 거 모 냥으루 그런 식으루 맵그러 가지구 줄을 매가지구 통통 튕기면서 목화를 거기다 대구 하면 달달 해지면서 구름 같이 되지. 그걸 갖다가 놔뒀다가 낚다 비비면 초 모냥으루 돼요. 그걸 가지구 물레에다 대구 이렇게 실을 뽑으면서. 지금 애들은 본 애들이 없을 걸.

_ 그걸로 옷을 만드신 거예요?

예. 거기에 풀칠을 해가지구. 그 전에는 집집마다 웬만한 집은 다 했지. 삼도 심었지. 지금 대마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막 심었는데 그 전에는 대마초 피는 것두 몰랐어. 근데 지금은 대마초를 집안에서 키워서 해다 들켰다구 텔레비에 나오대. 그냥 이런 밭에 전부 심었죠 뭐. 그리고 똑다리라고 이만큼씩 큰 거, 밧줄을 만들어. 요즘엔 단속이 되니까 하나 못하지.

_ 옷도 직접 만드셨어요?

그럼, 할머니가 만들었지. 만들어서 해가지구 뭐 자방(재봉틀)이 있어? 그냥, 그 전에 보니까 뭐 그냥 놓구 그리더라구, 옷 지금 그거를. 바느질 루다가 해서. 그때 생활은 텔레비 없으니까 조금 자다가 물레 잠구, 또 일꾼들 있으니까 옷을 빨아 주구, 떨어진 데 꿰매주고 뭐. 지금 사람은 편안하지, 세탁기 있으니까. 지금 애들에게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살았나 하는데, 옛날 사람들이 불쌍해.

_ 라디오도 들으셨어요?

그때 육이오 사변 전에는 라디오도 없었어요. 육이오 사변 후루다가 전쟁이 휴전으로 들어가니까 미군들이 라디오 듣구. 그때 라디오방에서 조그만 거 망가진 거 근처서 밧데리 해가지구. 이 동네도 라디오 있다 하면 저 만치서 들어요. 여기서 틀어 놓면 일루 가득 했어요. 라디오 들으려구. 그것두 밧데리로 하니깐 하나 갖다 놓면 계속 틀으면 못들으니

까 한 두 시간 있다가 이제 끝구 내일 들읍시다, 하면 자구. 저녁에 라디오 들으려 전부 왔었지요. 그러다가 텔레비전이 나오니까, 텔레비도 수산리 전부 있는 게 아냐. 한 집 있으면 전부 가서 텔레비전 보느냐구. 신남에서두 그 전에 흑백텔레비 애들이 한 시간에 얼마씩 돈을 내구 봤다구. 그러다 이제 많이 사놓니까, 집집마다 두 대 세 대 있어서 집집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텔레비두 없구 라디오두 없구.

_ 동네에서 가끔 놀 때가 있잖습니까?

네. 그 전에는 5월 단오에는 여기 소나무에 그네를 매구 짚을 전수 걷어다 줄을 해가지구, 그걸 안 매면 노인네들이 야 그네 매라. 그네터에 그네 안 매면 사람이 빈다. 우리 쪼끄말 때는 할아버지들이 그네 매라고 시켰어요.

_ 사람이 빈다고요?

그네터에 그네를 안 매면 사람이 빈다가 뭘 소린가 했더니 맞는 얘기에요. 그 전에 매고 뭘 때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게 화전하는 사람들이 다 나가니까 그네를 안 매. 지나고 보니까 맞는 얘기더라구.



당시의 마을 어르신들이다

— 사람이 떠난단 말이네요?

예, 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많이 살으니까 남자도 뛰고 여자도 뛰고 그랬는데, 뱅뱅 돌아가는 것두 하구. 지금 뭐 가끔방이나, 내가 62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여기서 그네를 매구 뛰었거든. 인천 가서 근무를 했는데 거 가니까 5월 단오 때도 그네 하나 못보겠더라구. 여기 단옷날 그네 안 뛰냐구 하니까, 아 여기 그거 없어진지 오래 됐어요 해. 까마득하다는 거야. 몇 십년 전에 다 없어졌대. 그 당시에 우린 여기는데. 그만침 촌하구 시내가 달라졌더라구.

— 그네줄을 벗짚으로 만드셨어요?

네. 벗짚을 파서 만들었어요. 세 사람이 이렇게 둘둘 말아서 짜. 그러면 안 끊어지지. 지금 뛰는 거 보면 로프바 해서 나무 세워서 하는데 지금 저 그 전엔 그네터 나무 위에다 땀어요.

— 가지예요?

네. 가지에다가. 나무 잘 올라가는 사람이 올라가구. 정 힘들면 이제 줄을 해서 확 던지면 그 위로 넘어가구, 줄을 땀겨서 그네줄을 잡아땀겨가지구 그 줄을 타구 올라가서 나무 위에데 해서 묶구 줄을 타구 내려오구. 나무 잘 타는 사람은 올라가서 땀는데 높구 하니까 그런 식으로두 하더라구.

— 단오에 음식은 뭐 드셨어요?

뭐 저, 취차떡을 해요. 지금 수리취라는 거. 그때는 집집마다 취차떡을 다 했어요. 찹쌀로 하는 게 조찹쌀이 있거든? 화전을 하는 사람들은 조찹쌀루 하구. 논농사 진 사람들은 지금 찹쌀 그걸루 했는데. 내일 단오다 그러면 산에 가서 취를 뜯어다가 떡을 다 했지요. 취떡이 여름엔 많이 쉬니까 조상들이 취떡을 했더라구요. 여느 건 찰떡이나 해 놓으면 빨리 상해요. 취를 넣고 하면 빨리 상하지두 았구 됐다가, 그땐 냉장고가 없으니까, 곰팡이가 피잖아요? 그럼 물에 씻쳐서 먹어두 병두 없었구. 취가 빨리 상하지 않게 해요. 송이가 뭐 일 능이 이 표고 삼 송이라



당시의 부녀들이다

고 하잖아요? 송이가 세 번째라는데 능이가 들어간 음식은 빨리 상하지 않아요. 능이가 제일 좋구 이 표고 삼 송이라구 했지. 여름에 음식 할 적에 빨리 변하지 않구 맛이 있어요. 요즘은 송이값이 제일 비싸잖아요? 하하.

— 능이가 지금도 산에서 나오나요?

그렇죠. 지금도 나와요. 어찌 보면은 털이 숭숭하고 시커먼게 이렇게 별어저요. 무섭죠 일찍 보면. 그래두 쪽쪽 찌 가지구 초장 해 먹으면요 아주 맛있어요. 송이는 사실 냄새나 그렇지 능이만 못해 비싸기는 해두. 옛날 노인네들이 일 능이 이 표고 삼 송이라구 잘 진 거 같애. 그러구 옛 선인들이 지명을 질 직에 어떻게 알구 졌는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수산리가 물 수 메 산, 물하구 산만 있다는 거야. 옛날부터 여기 물과 산이 있을 줄 았았어요. 댐이 들어오니까 산하구 물만 있다는 거야. 요 밑에 동네가 상수리거든. 상수리는 물 꼭대기에 있다고 상수리야. 또 하수리, 하수리는 물 아래 있어요. 신문에, 하수리에 큰 제당나무가 있었는데 수물 되니까 그냥 두니 바짝 마르니까 고대루 나왔잖아. 전에 강원일보에 두 났더라구. 그때 당시에 하수리 제당나무가 컸어요. 자유당 때 국회의

원이 나왔었죠. 이재순 씨라구. 그 어머니가 봄 가을에 돼지를 잡아서 그 제당나무에서 치성을 드렸어요. 자기 아들이 국회의원 하구 잘 되니까. 그때 5선인가 6선인가 했어. 그 양반이. 재순 씨 어머니가 치성을 드려서 하수리 사람들은 고기 잘 얻어먹었지. 돼지 한 마리니까 동네 사람들 다 주구 가구. 근데 수몰돼서 떠나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_ 추석 때는 어떻게 노세요?

추석 때는 지금은 뭐 저 송편하고 지짐 좀 해서 먹지만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청년들이 이집 가서 떡 얻어 먹구, 저 집 가서 떡 얻어 먹구. 막걸리 옥수수동동주 해가지구 좁쌀 동동주 하구. 화전민들이 돌아다니며 술떡만 얻어 먹구 땡기는 거야.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뭐.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지구 뭐 떡 먹으러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구 하는데 옛날에는 아주... 좋았죠.

_ 술도 직접 만들어서 드셨어요?

예. 집에서 다 만들었지. 옥수수 갈아서 엿물해서 동동주라구 옥수수를 많이했지. 그때는 누룩두 자연산 밀기울을 해서 집에서 피대가지구 띄워서 하구. 그땐 약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누룩을 많이 넣으면 독주가 되가지구 한 사발만 먹으면, 아 저 집 술은 독해. 누룩을 많이 넣구 적게 넣으냐에 따라 독주가 되구. 위에 뜬 거는 맑으니까 맑은술이라구 해서 밑에는 막걸리, 걸러서 먹구. 집에서 다 이렇게 품에 넣구 발로 밟아서 다 띄우지, 달아매구. 띄우면 술내가 엄청 잘나지. 말려 뒀다가 술 할직에 빠가지구. 쌀하는 집엔 거나 넣구 버무리구. 옥수수술 하는 사람들은 거다 넣구 하면 그렇게 해서 방에 놓으면 몇 시간만 되면 벌써 부글부글 술내가 방에 들어가며 막 나구. 삼 일 정도면 떠먹었다구. 급한 사람들은 막 퍼다 떠먹었다구. 술 먹구 싶으니까. 그런데 그게 가스가 많으니까 먹으면 트림이 막 나구. 완전히 된 걸 먹어야 되는데. 술 좋아하는 사람은 되구 안 되구 먹어야 된다구 퍼다가 하하. 옛날에는 그렇게들 살았어요. 그때는 집에서 다 해먹었죠. 술과는 집이 저 밑에두 있었지만은 할머니들이 술동이를 해놔가지구 술 담근 지 사흘 정도 되면, 소문 나니까 뒀다 하구 사람들이 전부 몰려가서 술을 먹구 얘기하다 술 취면 싸움도 하구 하하.

_ 술파는 할머니도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예. 오늘 해놓구 내일 해놓구 연연히 이제 이쪽 거 다 먹구 저쪽 거 다 먹구. 술집이 술이 안 떨어지게 많이 해 놓죠. 그래서 먼저 된 건 먼저 먹구 두 번째 한 건 두 번째 먹구. 여 덕거리라구 그 전엔 쌀 안하는 날이 없었어요. 거리라는 데가 아무데고 시끄러워. 지명에 거리라는 데가. 안거리, 뒷거리 거리는 데가 있잖아요? 그데 그 전엔 다 술집이 있었구 술덜 먹으면 싸움을 하구 밤낮 시끄러워. 여기 돌아가면 덕거리라구 있어. 술 먹구 취하며 그때는 장구치구 뚜들기구 놀구. 아무래두 동네 거리라는 데는 시끄럽더라구. 조용한 마을이 아니야.

_ 박 대통령의 뜻으로 산전을 못하게 될 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당시에 화전민을 이주시킨다 해서 1반, 2반, 3반 해서 쪽 해서 화전한 사람 다 보내니까. 그때만 해두 돈 주는 게, 현찰이, 먼저 나가 자리잡으려구 서로 빨리 탈려구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일 주동자가 동네에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그 사람들의 도장을 받아야 빨리 타가는 거야. 순서들이 쪽 있지만두. 지금도 그렇잖아요? 좀 순서가 1, 2, 3번이 있더라두 5번이 와서 먼저 할라구 알랑거리는 식으루. 그때 내가 새마을지도자 했구, 저 밑에 누가 이장을 했는데 다 와서 우리 좀 빨리 보내달라구. 아 순서가 있는데 되느냐구. 면서기 오면 우리 좀 빨리 가게 해달라구. 갈 적에는 집을 다 헐어야 돼요. 자기가 살던 집을.

_ 스스로요?

네. 본인이 살던 집을. 화전을 더 못해먹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다 하구 사진두 찍구, 면서기가 와서. 나무도 하나 심어야 해. 나무 하나 심어야 완전히 오케이. 돈 나오구. 그거 안 하면 돈이 안 나와. 그래서 전부 나가니까 화전밭에다 전부 조림을 한 거죠. 잣나무, 낙엽송 주로. 아 카시아는 여기 많이 안 들어왔어. 저 밑으로만 심구 했어. 아카시아가 연료로는 좋은데 한 번 심으로 계속 뿌리가 나와가지구 그 뭐 화전밭에는 그저 우리가 심은 게 잣나무, 낙엽송이니까 빨리 크더라구요. 박정희 대통령이 성공한 게 화전 내보내서 산이 푸러지구. 나가서 공장 설치되니까 공장에서 벌어먹구. 잘 된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 뭐 여태까

지 화전하게 되면 애들 공부시킬 수도 없구. 그 사람들 애들 공부시켜서 여기도 오는 거 보면 대학교 나와서 자가용두 타구 방문해 오구 회사 다니구 뭐. 어디가 있다? 하면 회사 들어간 사람도 있구. 노동, 공장에 서 일하는 사람두 있구. 다 나간 사람들은 성공했어요. 그때 내쫓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땐 뭐 사실 지금처럼 주먹질하구 데모 질하는 게 없었잖아요? 자기가 순순히 나가야 되구 법에서 그렇다니까. 여기 수몰 보상 탈 때도요. 땅 한 평에 얼마, 논은 얼마, 집 한 채는 얼마 가격이 매겨져서 주는 대로 받아갔어요. 더 달라고, 어떤 사람은 더 받게 좀 해달라구 실태조사하는 사람에게 술을 먹여서 자기가 조금씩 올려서 잘해 달라구. 그땐 주는 대로 받아서 나가서 살구.

— 이 동네에서 투전을 하는 사람도 있었나요?

아 있었죠. 많았죠.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옛날에는 화투가 별루 없구 질목이라구 부챗살 모양으루, 손가락 만해요. 그거 가지구 먹으루 그려서 일, 이, 삼, 사라구 해서 투전을 해. 지꾸땅이야 그제. 옛날에는 지꾸땅 많이 했어요. 돈 있는 사람 짜가지구 떨어먹구. 수 팔아먹구, 땅도 팔아먹구. 그래서 그 전에 노인네들이 그거 하면 문짝 때려부시구 쫓아내구. 이누무시키 이따위로 한다구. 지금 같으면 대항하잖아요? 옛날에는 노인네가 온디고 하면 다 감추구 안 하는 척하구. 몰래 외딴집에서 저들끼리 어느 집에서 한다, 노인네가 그 뉴스 듣고 쫓아가면 못하게 하구요. 지금 애들 담배 핀다구 하면 담배 사줬냐고 덤벼들잖아요. 옛날엔 노인네 말이라면 아주 거역을 안 하구. 무릎을 꿇구 종아리를 맞구 했지요. 지금은 학교에서 선생이 애들 때리면 폭행했다구 난리를 치구. 지금은 내가 어떻게 보면 애들 너무 길을 키워서 의욕이 없는 것 같애. 그 전에는 나두 공부했지만 선생들한테 손바닥두 맞구 종아리두 맞구 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못하잖아요. 웅덩이 좀 때렸다고 학부형들이 일어나서 뭐 하구. 어떻게 보면 교육두 엄하게 해야 하는데 선생들이 애들 훈계를 못하니.

— 동네에서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셨나요?

우리 때는 그 전에 한문을 가르쳤구. 서당방이라구 애들이 모여서 것두

서당방두 조금 있는 사람이 가르쳤지요 없는 사람은 못가르쳤어요. 훈장에서 여름, 가을 쌀을 얼마씩,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주니까 것두 못주는 사람은 못가르쳤다구, 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르쳤지. 그러다가 이 다음에 학교가 생기니까 학교에 가고, 사변 후에는 뭐 주로 학교다니면서 그렇게 했구. 공부를 못한 사람은 저녁에 야학이라는 걸 했어요. 애들 모여놓고 공부 가르치구. 저 올라가서 열댓 명 모여놓구. 내가 중학교 졸업을 했으니까 초등학교 못나와 국문도 모르는 애들 전부 가르쳐서. 그때 여긴 춘성군이었던가요? 춘성군 교육장한테 내가 문맹퇴치상도 받았어. 그때 부상으로 재떨이, 돗재떨이에 문맹퇴치상이라고 써서, 것두 다 어디로 가구. 애들 내가 많이 깨우쳤지. 지금은 그렇게 공부하라고, 밤에 와서 공부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애. 지금은 집에서 다 잘 배우고 그러니까.

_ 아플 때는 어떻게 하세요?

민간요법은 그 전에 약국이 상수리에도 있었는데 약국두 돈 있는 사람이 가지 돈 없는 사람은 못가잖아요. 주로 집에서 사약했지?

_ 사약이라뇨?

맨들어서 먹는. 토사곽란이 막 일어나서, 코사곽란이 급체거든? 뭐 먹어서 언처서 까꾸로 돌아가구 그걸 적에 그 저 딸기나무가 있구 쫄레나무가 있는데 딸기나무 뿌레길 캐다가 시어서 찢어서 찢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걸 맥이면 해결이 되구. 토종꿀 뒀다가 맥이구, 토사곽란에. 그때 당시에 먹구 언치면 사관이라고 침, 발 이런데 찌르고. 지금은 수지침이지만 그때는 넓적한 침으루, 동네에 사관하는 사람있으면 아이구 나 죽겠네 하면 사관, 풀어주구. 우리 할아버지두 했는데. 삼눈이라는 게 있어요. 눈알이 하얗게 되면서 눈이 아플 때가 있어. 그 전에 그런 게 많았대구. 삼눈은 눈알이 빨개서 빠질 것 같이 아파서 오래되면 앞두 못봐요. 지금은 안과에서 다하지만은. 우리 외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찍 오래구래. 오면 머리를 종이에 대구 그리더라구. 그 다음에 이제 머리는 나와서 종이에 눈 그리고 입 코를 그려 놓고는 바늘을 오른쪽 눈이 아프면, 반대로 하더라구. 오른쪽 눈이 아프면 왼쪽에 꽂구. 한문으로다 부적을 뭐라구 쓰더라구. 그러면 이삼 일은 나아. 삼 잘 잡는대구 소문이나.

_ 그걸 삼 잡는다고 하나요?

예. 삼 잡는다고 했어요. 그때는 안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안과에 가보면 뭐 백내장이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치료를 했고, 그 전에는 양귀비 있잖아요? 심어가지구 그제 제일 만병통치지. 그거 해서. 그때만 해두 금물이니까 몰래 심어가지구 그것두 자꾸 맞으면 아편중독이 되니까 못하게 한 거 아냐. 어느 집 있는 거 알면, 어후 죽겠다 하면 이만치 떼서 물에 타서 먹지. 아편 참 젤 좋은 거야. 급체고 뭐고 엄청 좋은 거야.

_ 어디 어디에 쓰는 데요?

어디든 다 쓰는 거야. 소두 병 날제 그것만 맥이면은 괜찮구. 사람두 그렇구. 개 참 좋은 건데 남용을 하다 보니까 중독이 돼가지구. 못하게 정부에서.

_ 아편이 먹어도 효과가 나나요?

아 나죠. 주사루 맞는 게 더 빠르는데 그때는 주사기가 없으니까 아편 침 맞는 사람은 주사기로 이제. 그 한방 맞구 그러면 토사곽란인 사람두 쪽 뻘어 있다가 깨면 멀쩡하더라구. 그러게 효력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편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안 맞으면, 약이 떨어지면 더덜이가 나구, 맞으면 또 낫구. 한방 맞으면 얼굴이 불쾌해지면서 기분 좋구. 약이 떨어지면 막 덜덜이 하구 무서와. 아프다구 돌아가구.

_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죠. 그때 당시에 마누래를 팔아 먹는 것두 보구 딸두 팔아 먹는 것두 보았는데.

_ 아편쟁이가요?

예. 아편쟁이가. 마누라 하구 딸이 있었는데, 요쪽에 윤 씨라구. 약을 달라구 해서 좀 쫓는데 약이 떨어지니까 또 와서 달라는데 안 쫓어요. 그 딸을 아예 데리구 간다구 머리채를 끌구 여까지 올라가는 거를 할때

할매 나는 못간다구 하는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 봐주라구. 내가 돈을 얻어서 좀 줄테니까, 하니까 봐주더라구. 야는 도망가서 지 집으루 가구. 쌀 줬는데 그 다음에 죽었는지 오지도 안 더라구. 중독쟁이가 마누래를 포섭하다가 말 안 들으면 팔아먹어요.

_ 아내들요?

예. 주사는 맞아야 되겠구. 돈은 없구.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거야. 훔쳐다 뭐. 아편 맞는 사람이 집안 망하는 거야. 일단 뭐 소가 있으면 소 팔아가지구 맞구. 소 떨어지면 땅 팔아 집 팔아 먹구. 아편 하는 집은 가정이 망가지는 가정이야.

_ 그런 집이 꽤 있었나 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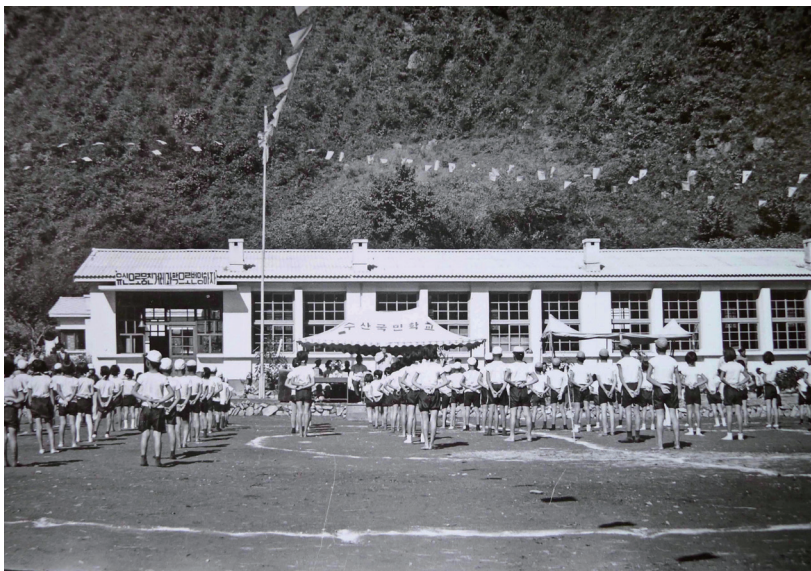
여기두 몇 집 있었어요. 우리 사랑에 와서 밥두 많이 얻어먹었지. 배고픈데 와서 달라는 데 어떻게 멕이구.

_ 댁에 사진이 많고 사진기도 있는데 사진촬영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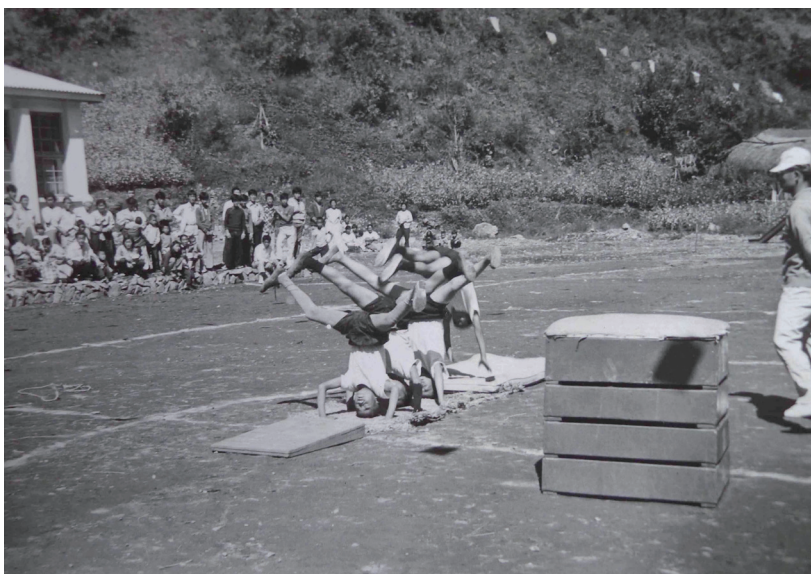
사진은 내가 중학교 나와가지구 시작했어. 처음에 하나 사서 장난을 했지.



당시에 운동회를 하는 모습을 심재영 씨가 직접 찍은 사진이다



아이들의 동작이 귀엽다



운동회 모습

_ 그때 카메라 비쌌 텐데 사실만 하셨어요?

거 미군부대에서 나온 거니까 그때 당시에 팔로가 좀 있더라구.

_ 그때 가격이 기억나세요?

기억 뭐, 하두 오래되가지구. 그 전엔 이렇게 내려다보구 찍는 게 있었구. 그 다음엔 조끄마면서 간단한 게 내다보면서 찍구.

_ 암실을 만드셔서 현상까지 하신 건가요?

예. 암실을 만들어가지구 약을 사다가 메이큐어 하구 이런 거 해서 많이 했지. 예전엔 동네에서 결혼식을 해두 사진기가 없어. 신남에서 데려오면 돈 많이 줘야 하구. 찍어달라면 내가 돌아가면서 다 찍었어. 빼다 주구. 그때 빼다 주면 돈 주는 사람두 있구 안 주는 사람두 있구. 어떤 사람은 필립값이나 주는 사람이 있구. 주면 받구 안 주면 말구. 주로 내가 여기 많이 찍었어요.

_ 주민들이 그 사진 받으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찍어서 주면 다 좋아하구. 기념사진이니까. 애들두 뭐 이렇게 찍어서 노려주구. 지금 가진 카메라는 좋은 거라. 자동으루다 불두 터지구. 그 전엔 굴 같은데 들어가면 안 됐잖아. 근데 지금은 자동으루 불 나오구. 요즘 필름이 안 나와서 사용을 못해. 필름을 살 수가 없어.

_ 집이 당시에는 무척 크고 잘 지은 집일 텐데 집 지으셨던 얘기 좀 해주세요.

집은 62년에 지었거든요. 옛날에 할아버지 살던 집이 구가옥이라 낡아서 반은 쓰러졌어. 거기 살다가 제재소 나무 켜 있다가 62년도에 짓구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 전수 블록구루 지어가지구 세면트 바르구, 근데 이 집은 흙벽에 겉에만 살짜 입힌 거야. 내내 흙벽집이지. 그래두 여름엔 시원하구, 꼭대기예다 흙바루구 밑예다가 치받으니까 여름엔 시원하구 겨울에 따뜻하구. 지붕재는 기와는 아니구 처음에는 짚으로 이엉을 해서 덮었는데 그게 넓구 그래니까 소두 맥여야 돼구 그러니까 여기 미군덜이 10군단이 지어준 게 있는데 수몰이 되니까 일루 이사를 와서



당시에 심재영 씨가 집안의 장례를 찍은 사진이다



심재영 씨가 백담사에 놀러갔다가 백담사에서 지내던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를 직접 찍었다



심재영 씨의 집이다



심재영 씨네 집을 짓는 모습이다

불하를 줘서 춘천 사람이 그 공사를 맡았길래 내가 춘천에 가서 샀어. 옛날 학교를. 그걸 뜯어다가 꼭대기 지금 얹은거지. 철판 같아요 얼마나 두꺼운지. 아주 깨끗해.

_ 철판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건 얹지만은 두껍구 못구멍두 뽀지루 쳐서 뚫어서 박지 못으르는 안 돼. 지금두 뭐 어느 사람 와서 바꾸라는데 이런 걸 어서 바꾸냐구 말이야. 페인트칠만 하면 뭐.

_ 집 짓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셨어요?

그때 뭐 오래돼서, 뭐 소 팔아 했으니까. 그때 한 세 마리 판 것 같애. 동네에서 흙 파는 것두 해주구. 세면두 저기 장남 가서 부대에서 나온 거라 등짐으로 저다가 했는데 동네에서 울력으루 한 포씩 다 저다주더라구. 그때만 해두 화전민두 많구 그러니까. 모래는 강모래 한 차 제무시로 파다가. 끝.

개가 검댕이 묻은 주인을 몰라 짓고

인터뷰 날짜 2015년 8월 6일

인터뷰 장소 이종관 씨 집

_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종관이예요. 1942년생이고. 현주소는 월학1리에요.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는 이종 관씨

화전을 어떻게 하시나요?

화전을 어떻게 하느냐면, 비알이 멋있게 돼 있다. 나무를 큰 거두 켄 거 구 베어서 제 자리에 뉘어놔. 그런데 나무를 베에서 아무렇게나 불을 놓는 게 아니야. 멩에불이라고 해서, 멩에는 소가 메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한 줄 두 줄 이렇게 놓고.

_ 띄엄띄엄 놓는다고요?

그럼, 이렇게 놓으면 공간이 나지. 불이 번져 나가지 못하게 굵어놓고. 그리고 밑에서 불을 놓으면 안 돼. 위에서부터 내려 태워야 해. 그래서 이런 막대기로 길게 해서 불을 해놓고 타잖아? 꼭대기서 불을 해놓았기 때문에 공기가 위로 올라갈 거 아냐? 밑에서 해놓으면 불 번지기가 쉽거든. 내려해 놓으면 화력이 세지 않으니까 거반 댔을 때에 칼쿠리로 밀어내려 놓으면 거기에 쌓인 나무에 불이 붙잖아. 그래서 다 타면 또 밀어 내리고, 또 밀어 내리고 하는 거야.

_ 아, 조금씩 태우는 거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발이 전수 타고 흙이 타고 재가 가라앉아요. 큰 나무는 안 타면 그냥 놔두구. 그 새벽에 날이 새면은 뭘 하느냐, 밤새 잠도 못잔 거지. 아침에 조의 줍씨를 훌훌 뿌려. 지금처럼 받고랑이 있는 게 아냐. 막 뿌려. 막 뿌리면 많이 떨어진 데도 있고 조금 떨어진 데가 있어. 김 맬 적에는 안 떨어진 매가 있으면 그곳에 발을 밟구, 김은 호미로 파서 매는 건 아냐. 화전은. 조그마한 낫을 들고 풀만 깎아. 조가 나온 데는 풀을 깎을 수가 없잖아. 조이가 나오면 풀도 못크구. 화전은 그렇게 해먹는 거야. 그리고 나면은 조이 씨가 어느 정도 묻혀야 되잖아. 그러면 켁이로 굵어서 묻어. 조이를 심고 집에 오면 집의 강아지가 주인을 몰라봐. 새카맣거든. 검정이 묻어서. 그래서 개가 주인을 몰라보고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쿵쿵 짖는 거야.

_ 옷은 어떻게 해 입으셨나요?

지금 하영 말하긴 대마초라는 거 있지? 옛날에는 그걸 삼베라고 해서

웬만한 사람은 배짜고 배웃 해 입었잖아. 그걸, 삼이라구 텃밭, 자꾸 해 먹은 밭이라 거름기가 없어서 잘 안 되잖아. 그러면 산에 가서 화전하기 위해 불을 놓은 거 재가 떨어져 거름이 되는 거야. 다른 게 아냐. 그거를 삼을 심굴 때 역시라고 그래. 그걸 뿌리구 좁씨 심듯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걸 재미라고 그래. 쟈삼을 심어야 몸매가 곱구, 머구집이라고 해서 집 근처에 심으면 실을 맨들 적에 끊어진단다가 안 되잖아. 옛날에는 그걸 심지 못한 사람은 남의 집에 가서 그걸 몽쳐 주구 옷감 맨들어서 나 반 주구 너 반 가져라. 여자들이 하나 하나 실 맨들어서 그 집 하나 갖다 주구 우리 하나 갖구,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 지금으로 말 하는 도지해주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두 있구.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갖다 심어서 생산을 해서 생산 못하는 사람과 노나뒀는 거야. 산에다 한 거는 꺼풀이 얇고 몸매가 좋아요. 그 노나먹기 할러구 가지러 하는 사람이 그런 거는 아주 백 프로 가져가도, 집에서 뭐 벌레 집이 생기고 두껍고 얇고 뭐 이런 건 잘 안 가져가. 그런 거야.

_ 삼베를 산에서도 했군요?

그게 삼이, 생바닥에다가 태워서 하면 대궁이 간간스름 하면서 매듭이 아주 곱게 자라거든. 그런데 오랍돌 자주 해먹던데 하면 아자구가 나구 그렇게 된다 말이야. 그래서 제대로 소작하는 사람들이 잘 안 가져가지. 화전이 왜 생겼냐면, 지금은 비료가 있지만 그때는 비료가 없잖아. 자꾸 곡식만 심어 먹으면 안 되니까. 집 부근의 밭은 해먹지 않고 묵혀서 내버려 두구 산에 가서 해먹구. 그러다가 비료 생기면서, 비료는 원래가 육이오 나기 전에두 있었는데 그때는 비료도 배급 주듯이, 공짜가 아니라, 지금은 자유판매편데 그때는 살 수도 읍구. 난리 난 후로 비료가 나오게 된 게 유원비료가 나오고, 충주에 달래강 옆의 비료공장이 요소를 만들어 내구, 지금은 뭐 종류도 많지만 이런 비료도 아냐. 화학품이라. 그 전에 중과석이라고 알갱이가 굵은 게 있는데 그건 갖다 뿌리면 땅우 힘을 내구. 지금도 그래 요소는 치면은 대궁은 안 커지구 키면 넓다 크는 거야. 유한은, 어느 사람을 보고 에이 저 사람은 동작이 너무 느려, 라는 식으로 유한은 그렇게 느릿느릿한 역할을 하구.

(이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종관 어르신은 줄을 삼고 계셨다)



이종관 씨가 직접 만들었다

— 무슨 줄인가요?

소 끌고 다니는 줄, 소 바를 꼬는 것이다. 밭을 가는 소는 쟁기에 붙들어 매야 하니까 바가 길어야 한다. 두 발 반이고, 그냥 끌고 다니는 소는 두 발이다. 그렇게 딱딱 만들어서 하는 거야. 바를 새끼 꼬듯이 손으로 꼬면 팽팽하게 꼬지 못한다. 흐늘흐늘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비틀어서 꼬면 팽팽하게 짜진다.

— 재료가 뭐예요?

노보. 노보라고 뭐야. 시중에서 파는 것도 있어. 그렇지만 손으로 만들면, 옛 방식에 따라 하는 거지, 세 줄로 꼬는 거야. 세 줄로 꼬면 튼튼해.

대암산 올라가면 바둑관할 꺼리는 켜어. 지금은 가볼래두 못가보구. 그 전에는 짐차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면 광치령 뚝리기 전에는 임산도로가 있어. 그 길로 돌아가다 보면은 피나무가 이런 게 있대구. 위에는 또 없어. 길 밑에만 있어. 그러면 마대자루에 톱을 싸서 싣구 밥 점심밥 자전거에 싣구 가는 거야. 거기를 가면 벌써 해가 한나절이야. 자전거 끌구 산에 올라가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피나무를 하나 해서 바둑판을 만드는 거야. 도끼루 모각이 지게 나무를 패는 거야. 마대자루에 집어넣어. 뭇뺩을 하고는 산으로 기어. 자전거 있는 데에 도로가에 와. 뚝방 밑에 댔으니

까. 올라와서 신구 타구 오는데 낮에는 못와. 킴킴할 때에 자전거 라이트
빛이 희미할 때에 그거 타구 와서 갖다 팔면 그게 큰 벌이야. 돈 만 원 받
는 게. 내가 대암산 다니면서 바둑판도 여나무개 팔아먹었어. 솔직히.

_ 나무 하나에 바둑판 하나가 나와요?

아니지. 나무 한 개 비면은 나무가 올라가면서 가늘어지니까. 밑둥에서
하나 써먹은 것은 조금 후하게 팔아먹지만 그 다음에는 조금 뽀뽀하게
팔아 먹구. 한 개 비면 두 개 내지 세 개 꼴은 찼라다 먹어.

_ 나무가 굉장히 굵은 거네요?

그러니까 나무가 직경이 뭐야, 그냥 40센치, 40센치면은 바둑판이 나
와. 그러니까 35센치면은 바둑판이 된다구. 왜그러냐면 이게 커두 되구
되는데, 바둑판에 줄을 그어 놓으면 열아홉 줄 이쪽두 열아홉 줄 다 열
아홉 줄이야. 그럼 이게 줄을 드물게 드러 놓으면 사람 촉감이 바둑알
이 드문드문 놓아지니까, 칸이 굵으면 바둑 두는 사람들이 빨리 알아챈
다구. 그래서 요렇게 좁아야 해. 바둑알끼리 닿아야 해. 다면은 이게 내
가 뭐 통로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얼척 봐가지구는 모른단 말이야.
이게 그런 거야. 바둑판에 실력이 달렸어요. 바둑알이 영성하면은 저
세간에 내가 디밀어두 내가 안 죽는구나, 이런 게 나오잖아. 하하. 그래
서 그런 것도 해다 팔아보구.

_ 여러 가지 일을 하셨네요?

내가 강에서 낚시두 안 들구 수경 하나 하구 작살을 들구 우리 일곱 식
구를 먹였어. 일곱 식구가 고기만 잡아가지구두 밥 먹구 살아봤어. 작
살 들구 쏘가리만 잡는데 쏘가리를 낚시로 잡아서 살은 놔은 그때는 전
기가 없으니까 냉장고가 없잖아. 얼음냉장고? 톱밥으로 만들어서 얼음
덩어리 이만큼씩 사다 놓구 거기에 넣어 놓는 것 밖에 없단 말이야. 그
럴 적에는 살아 있는 놔은 물두 갖다 부어주면은 며칠 살다구. 살은 놔
은 값이 비싸구, 죽은 놔은 얼음 냉장고에 들어가니까 값이 싸구. 작살
가지구 잡은 놔은 굵거든. 고등어작만 하거든. 낚시로 잡으면 작구. 그

러니까 죽었거나 말았거나 그래도 굶으니까 욕심에 사는 놈들은 사거든. 작살로 그걸 잡아들여서 가주가 팔구 먹구 살다 보니까 내 몸뚱이가 망가지는 거야. 고기를 잡으려고 물속에 쭉 들어가면 왜 우리는 여런데 보면 골짜기에 아주 물이 찬 샘이 나와.

_ 강에서요?

그럼. 이 강토에두 그래 어디 물에 들어가면 바닥에서 아주 찬 냉장고 어름보다 더 차가워. 그런 물이 나오는데 잘못하면은 마비된다고. 길에 물이 덩잖아? 쭉 들어갔다가 물이 닳치면은 사람은 이 뭐야 호흡이 콕 막혀버래. 그러면 사람이 죽어요. 이 잠수질이라는 게 그만큼 힘든 거야. 물속에 들어가보면 별루무대를 다 다니면서 구경을 해보구. 그래가 주구 물에서 그러다 보니까, 물에 들어가 돌아다니다 보면, 배가 빨리 고프고, 물에 털거덩 들어가면 맥이 빠지니까 소화가 잘 되구. 뭐야 아무리 날이 더워도 물에 어리대다 보면은 추워. 추우면 밖에 나와서 돌이 큰 게 있어. 돌이 뜨뜻하잖아. 돌이 살에 다니면 뜨거우니까 물을 끼얹어. 그럼 조금 식으면 배를 갖다 대구 있으면 뜨뜻하거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맥이 빠지구 이러다 보면은 돌에 턱 붙여서 기대구 있으면 해적해적 잠이 와.

_ 등이 뜨거울 텐데요?

그렇지. 어떻게 깜빡 잠이 들면은 태양에 등어리가 뜨겁지. 등어리가 타서 허물이 벗구. 하하. 4년 동안울, 소양댐 막을 적에 물이 저 아래는 깊어지니까 고기가 자꾸 올라오잖아. 고기도 씨가 많았었다구. 그래 잡아서 4년 동안울 고기사냥을 하구. 그러다가 고기사냥두 할려구 해서 한 게 아니구, 어느 해냐, 그때는 노가다두 없었거든. 밥 먹구 살기가 엄청 힘들었거든. 그래 내가 옛날에 어디에 살았느냐면 빨간다리께 도로변에 우리집이 있는데 불량주택이라고 해서 집이 영성하니까. 군에서 그 집을 철거를 시키려고 노란 페인트로 엑스를 벽에 킅 그린 거야. 그 철거비로 5만 원을 줘. 집이 영성하니까 그런 건지는 몰라두 5만 원이라는 게 어디 있노, 아무리. 그 5만 원을 가지구 어디가서 집을 사. 그래

서 덕산리에 방 두 칸짜리가 있어. 난 돈이 이거뿐이니 그 집 줄려면 주구 팔려면 말아. 안 주면 나 한테서 생활하는 거구 주면 난 그래두 집이 들어가는 거니깐 맘대루 해. 5만 원 받구 주는 거야. 그래 들어가서 거기 이사를 갈 때 정부양곡이라구 암맥이라구 보리쌀을 기계루 누른, 납작한 게 있어. 그거 섞어진 게 쌀에 40킬로짜리가 요만해. 그거 한 푸대를 사서 빨간다리께서 덕산리루 이사를 갔는데 해, 동네 사람들 얼굴은 알지. 이쪽에 살구 거기 사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이사를 갔을 경우 내가 돈 많은 놈인지 없는 놈인지 거기 사람들은 모르잖아. 쌀을 가지구 갔는데 그거 먹을 동안에 또 벌어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구 대천장마가 졌는데 그러니 그거 갖다가 밥 해먹는 동안에 비가 왔어. 쌀이 떨어지구 비가 그치구 하하.

_ 그때 애들을 두셨나요?

야, 돈은 없지. 그때 당시에 이사갈 때 한 달 만에 낳아서 이사갈 때 데려간 애가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는데, 하하. 그땐 우리 아버지도 계셨는데 돈은 없구. 큰일난 거 아냐. 야, 그래서 머리 쓰는 건 잘쓰는 거야. 굶어두 굴뚝에 연기를 내야지 연기를 안 내면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니까 연기를 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술에 맹물을 넣구 덩병덩병 끓는 거지. 쌀이 있어야 밥을 해먹을 거 아냐. 자, 아주멈내는 애기는 젓맥인다구 드러누워서, 밥을 먹지 않았는데 잠이 와. 내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니까 백 원짜리가 딱 하나 있더라구. 이거 가지구 뭘 하느냐? 인제에 지금 그 대한사진관 있는 거기에 철물점이 있었어. 덕성상회라구, 인제 바닥에서는 제일 크게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쇠꼬챙이 하나를 샀어. 그게 백 원이더라고.

_ 왜 사셨어요?

왜 샀느냐? 봉양 꼬쟁이를 해서 산에 가 봉양을 캐려구. 그래서 집에 오니까 불을 때니까 알불이 이글이글 하잖아. 쭉 들이미니까 벌겋게 달아. 망치로 두들려. 뼈죽하게 만들면서 생각하는 거야. 이게 밥두 안 먹구 산에 가서 땅을 쭈신다는 게 쉽지는 않아. 그래서 에이 이렇게 할 게 아니다. 작살을 만들어야 된다. 작살을 만들어 고기를 잡아야 된다. 이게 쏘는 건 만들었는데 고무줄이 있어야 쏘면 털커덕 털커덕 할 거 아

냐? 그래 고무줄 살 돈이 있나. 그 전에는 꺼먹고무줄이라구, 아주 늘어나기는 잘 늘어나는데 오그라드는 데는 힘이 없어. 그러는 게 하나 있더라구. 그걸 서너곱을 해보니깐 잡다 당겼다가 노면 픽, 잡다 당겼다가 노면 픽, 이런 걸 가지구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야.

_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갔느냐면, 지금 검문소께서 구길로 갈라지구 새로 닦은 길 그 밑에 다리발을 박은 데가 쏘가리가 있어. 그 밑에 돌에 들었거든. 들었다 하면 크다구. 그래서 고질 잡아서 장은 있으니까 매운탕이라도 끓여 먹어야지. 이래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야. 가는 과정에서 그때는 담배를 내가 태웠다구. 근데 담배가 없어서 아버지가 밖에 나간 사이에 담배를 훔쳐어. 새마을담배라구 필터두 없구 별거무래한 곳은 독하구, 푸른 데는 덜 독하구 그랬어. 한 값을 훔쳐서 그걸 태우면서 빠리 사다 놓아야 되거든. 가서 담배를 한 개 피우면서 작살을 만들다 보니까 한나절이야. 뭐 볼게 없지. 애들은 학교를 보내는데 밥두 못먹이구 막 두들겨서 보냈어. 그러니 사람 꼬라지가 뭐야. 그래 고기를 잡으러 가서 내 혼자 신세타령을 하는 거지. 저 바위 밑에 고기가 들었으면 내가 살고, 안 들었으면 내가 죽는구나. 이러면서 담배 한 대를 피우면서 그 고기를 잡으러구 거기를 쭉 바위 밑에 들어가서 보니까 고기가 커, 이보다 커. 하여튼 큰데 쭉 들여다보니까 뒤로 슬슬 물러나더라구 쏘가리가. 내가 벌써 고기에 야코가 팍 줄었어.

_ 왜요?

아, 고무줄이 약한데 이게 물에 들어가면은 뭐야 탄력이 더 약해. 그러니 이걸 가지구 찢러서는 뚫지 못하니까 못잡는구나. 그 생각이 피떡드는 거야. 그래서 나왔어. 이 작살을 말하자면 수동식으로 바꾼 거야. 그리고는 고기가 있는 구멍 뒤에서 들여다 보고는 작살을 꼭 찢르니까 뿌드득 하는 소리가 들려. 작살 들어가는 게 아주 으지직 하는 거야. 찢러봤는데 이게 소동을 하는데 요만한 구멍으로 꼬낼 수가 있어. 그래서 찢갈기거든. 후벼 파는 거지. 숨이 가쁘면 밖에 나와서 오래 후우 하면서 호흡을 들이쉬면 오래 참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후 하고는 또 들어

가 그리고는 또 나와서 후 헤헤. 물속에서 들었다 나왔다 하나까 아침도 안 먹어서 맥이 빠지지. 사람이 아주 말이 아니지. 그냥 이렇게 잡아다니면 작살만 놓치잖아. 이렇게 끌어내서 가지구 나와서 보니까 고기가 커. 갖다 놓고는 버들을 꺾었는데 이게 털썩털썩 하더니 작살을 끌고 물로 들어가. 아 쫓아가서 발루 밟구 버들을 꺾서 들었지.*

* 옛날에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가지가지였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항이 있다. 가게에서 파는 이 도구는 작은 통처럼 생겼다. 어항을 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돌로 괴어놓으면 물고기가 뚫린 구멍으로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갇히고 만다. 좁은 곳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물고기의 생리를 이용한 도구라나. 시골에서는 어항의 원리를 차용해서 사발에 비닐을 씌워 구멍을 뚫은 뒤에 그 안에 미끼로 된장을 넣고 물에 넣어두어 고기를 잡기도 한다.

메기굴냥시라는 것도 있다. 낭창낭창한 버드나무가지나 싸리나무가지를 1.5미터 정도로 자른 뒤에 끝에 한 뼉 정도 되는 줄을 단다. 그 줄에 달린 바늘에 지렁이를 달아 물속의 돌과 돌이 쌓인 사이의 구멍에 넣고 기다린다. 그러면 메기가 물게 되고 이때 낭창낭창한 가지를 타고 손에 고기가 걸린 느낌이 전달되어 재빨리 낚는 방법이다.

주낙이라는 것도 있다. 밤에 햇불을 만들어 들고는 긴 줄에 한 뼉 간격으로 바늘을 70여개 정도 달아서 강을 가로질러놓는다.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물고기가 걸려 있게 된다.

이종관 어른신이 한 것처럼 작살을 들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 작살총은 삼지창 작살을 아기고무줄에 달아 쏘는 방식과 우산대를 총처럼 만들어서 쏘는 방식이 있다. 작살도 세 가지가 있다. 속에 날개가 하나 달린 작살은 물고기를 정통으로 뚫어도 물고기가 요동을 치면 작살이 빠져서 물고기가 달아날 수 있다. 날개가 두 개 달린 작살도 빠지는 경우가 있다. 가장 확실한 보중수표는 삼지창 작살이다. 이 작살은 대장간에서 특별히 맞추어 야 한다. 사람들은 이 중에 하나를 들고 물로 들어가 잠수를 해서 돌 틈에 난 굴을 찾는다. 어두운 굴속에 수염이 보이면 메기가 있는 표시다. 어림짐작으로 작살을 쏘아 메기를 잡았다. 만일 숨이 찬 가운데 메기를 보았다면 우선 쏘아놓은 뒤에 물에 올라와 숨을 들이키고는 다시 잠수를 해서 현장에 간다. 작살을 쓸 때 잠수를 하다가 숨이 필요하면 입으로 물을 먹어야지 코로 물이 들어가면 죽는다고 한다.

찌가사리라고 부르는, 배가사리의 사촌 짝 되는 물고기도 수경을 쓰고 물에 들어가 잡는다. 산란철이면 이놈들은 450마리씩 떼로 다닌단다. 물에 들어갈 때 목장갑을 끼고 양파자루를 가지고 들어가 손으로 잡아 자루에 넣으면 된단다.

월하리에 군인이 많았으니 수류탄으로 잡는 방법도 있다. 마을 근처의 부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연습용 수류탄을 가지고 나와 멀리 떨어져서 소탕에 던진다. 큰 폭발음과 함께 흩먼지가 내려앉는다. 죽은 물고기들이 물에 떠내려가 보에 걸리고, 이걸 아이들이 건져내어 군인들과 나눈다. 큰 물고기는 아이들이 잠수를 해서 물의 바닥에 돌로 눌러놓는다. 큰 물고기는 죽지 않고 기절한 상태라 나중에 살아난다나. 작은 물고기를 잡은 군인들이 희희낙락 돌아가면 영악한 아이들은 잠수를 해서 눌러놓은 물고기를 건어다가 먹었다고 한다.

가장 수준이 낮은 방법은 '돌땡'이다. 큰 돌을 들어 물에 내리쳐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다. 효과는 별로 없고 힘만 든단다.

겨울에도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있다. 먼저 얼어붙은 빙판에 구멍을 뚫고 강을 가로질러서 그물을 친다. 그리고 상류에서부터 빙판을 띄메로 치며 내려온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놀라서 아래로 도망가다가 그물에 걸리게 된다.

이종관

아 이걸 가져가 팔아야 된다. 그때까지두 고기사냥을 안 했거든. 인제에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1번지라고 있어. 매운탕 장사를 한 곳인데 거기 가져가서 만 원을 받았어. 난 이렇게 살아 온 사람이야. 이렇게 망가져서 죽게 되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서러워. 아무튼 애들은 학교에 밥도 맥이지 못하고 보냈지. 집에서는 노인네가 뭐 때가 되두 밥을 안 들이니까 괜히 나갔다 들어갔다, 말은 못하구. 이러는 거 아냐. 또 아줌마네는 밥을 못하니 속이 상하구. 나는 돈을 못버니 쌀을 못사가 대니 속상하구 하하. 고기를 팔아서 만 원을 받았는데 내 배가 고픈 거 아냐? 일단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 밥을 드셨어요?

그때에 중국집이 동해반점이 있구, 산동반점이 있구. 산동반점 주인이 호덕산이야. 중국성이란 말이야. 중국사람이야. 내가 다 아는 사람이니 까, 가서 짜장면 곱빼기 두 개만 주세요. 그랬더니 야 빨리 해줘라. 배가 고픈 모양이다 야. 두 그릇을 한 그릇에 담아다우 했지. 막 먹어댔어. 먹어댔더니 다 먹고 나니까, 주인이 똥똥하니 배가 컸단 말이야. 야 거 기리빠시 남았거든 더 갖다줘라야 더 먹겠는데, 주인이 그래. 가져온 게 도로 곱빼기 한 그릇이야. 그래 뭐 다 먹구. 먹구 나니까 밥에 취하는 거야. 헬렐렐 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구 정신을 차리구는 또 가서 정부양곡 혼합곡, 보리쌀 섞인 것을 40킬로짜리를 한 푸대 사서 자전거에 싣구. 또 빵을 크림빵을 둥그란게 납작한 게 있었어. 그 빵을 댓개 사서 인제국민학교에 가서 애들 몇 학년 몇 반 아무개, 교무실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왔더라구. 이거 가져가서 먹구 공부를 열심히 해라. 학교는 뭐 선생들한테 사연을 다 말해줬지. 사연을 말해줘야 애들에게 빵을 먹게 할 거 아냐. 수업시간이니까 그래서 애들 빵을 멕이구 집에 오니 해가 한나절이 훌렁 넘은 거 아냐. 쌀 사가주구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불은 다 꺼지구 솥에 물만 매세에에 하더라구. 물이. 그래서 아주먼네를 불러서 쌀 사왔다 밥 해먹자. 이러니까 일어나. 내가 불을 살리구 이래서 나는 밥 먹구 기동을 했으니까 집의 식구들은 다 굶었잖아. 밥을 해서 하여튼 한 끼에 다 해먹어도 좋으니 꾸밈하게 해서 어

른들이란 드리게 해라. 밥을 해서 먹구. 그러고 나니까 거 밥을 해 먹구
밥에 떡 나서니까 나 쏘가리 잡던 그 산비탈에 이 우리 인제 그 지금 쓰
는 전기가 처음 들어오는 거야. 측량을 하는 거지

_ 그게 뭔데요?

멀리서 보니 빨강고 하얀 빨대가 알썩알썩 하더라구. 저거 뭐하는 거
지? 가서 보니까 윤 기사라구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전기기사가 된 거
야. 이 사람이 오길래, 아유 아무개 아니야? 그러니까 그랬대. 나보고
내일 일을 나오래. 그래서 나갔지. 그때가 음력으로 8월 7-8일 됐어. 일
나가서, 그래도 안 다구 좀 나온 걸루, 돈을 조금 더 주는 걸루 시키더라
구. 전주산대를 팔 때 에이치산대를 두 개를 파야 돼. 이 선이 갈 때에
땅을 잘 파야 해. 그래서 요거 방향 잡는 거를 하라고 해. 멀리 깃발을
보고, 깃발이 팔락팔락 하거든. 그걸 보고 양쪽에 깃발을 꽂아 주고 이
렇게 파라, 하는 거야. 그 일을 하고 하루에 6천 원을 주더라구. 6천 원
이면 상곡가야. 땅구덩이 파는 놈은 3천 원. 그래서 한 일주일 했는데
추석 때가 되니까 추석 쇠러 간다구 돈을 달라는데 나는 일을 몇 개 하
지 못해서 돈 달랄 수 없잖아? 말도 못하고 있는데 윤 기사라는 사람이
그래두 아는 게 안면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더라구. 날 보구 그래 야, 날
좀 보자. 며칠 일도 하지 않았으면서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썩 그러
더라구. 그래서 말도 못하고 지금 앉아있는 거 아냐. 나오래, 나가니까
돈을 오만 원을 착 주면서 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돈이면 추석은 지
내겠지. 추석이라도 쇠라 야. 여느 놈들은 차비만 주었던 말이야. 나는
아무소리 안 하구 그 돈 가지구 와서 8월 추석 잘 쇠구.

_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하셨어요?

그때서부터 전주를 따라다니는 공사를 시작한 것이 인제에 전기가 두
번 들어왔잖아. 먼저에는 양구에서 만이천 볼트를 양구변전소에서 독
선을 따와서 인제에 내려가면서 전기를 다는데 4천 원이야. 다마를 하
나 갖다가 빼주구 계량이라는 것도 없구. 켜다켰다도 다마에 있는 걸로
해야 하구. 이렇게 해서 전기를 끌어왔거든.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

니까 전기 다는 놈은 자꾸 늘구 전기는 자꾸 약해져. 아침에 켜 봐야 저녁에 잘하면 불이 잠깐 들어오구. 저녁에 이렇게 하면 불 못얻어. 사방에서 전기를 땡기니깐 힘이 약해서 불이 안 와. 그래서 육만육천 볼트를 남북리에 변전소를 세우려고 맨들면서 전기공사를 하는 게 그 공사를 할 때두 윤 기사가 또 와서 하게 돼서 내가 참 그때는 내가 완전 기능공이라. 무허가. 전공이 돼서. 꿈무니다 치차구, 도라이바 차구. 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내가 돼. 안전벨트 매구 덜거덕 덜거덕 다니면서 전주 타라 하면 타구 남하는 대로 하고. 같이 일하는 놈들하구는 나도 자격증 있는 척 하구 말아야. 이렇게 같이 일을 해 먹구 말아야.

— 문제는 없었나요?

들어봐. 이평리 만남의 광장에서 조금 내려가면 버치골이 있는데 거기에 전주가 사각으로 네 대가 있어. 전공 한 놈이 한 스물서너덜살 됐나. 원래 전공은 젊은놈이 해 먹는 거야. 전주를 타야 되니까. 하다가 늙으면 다른 걸 해. 나는 마흔이 돼서 하지만. 나만 전주 타는데 매달렸는데 그 전주 타는 놈이 나랑 짝꿍이 돼서 젊은 놈이지, 하는데. 아침에 털털 하민서는 아 기분 나쁜데, 어찌구 그래. 그래서 기분이 나쁘면은 오늘은 쉬라. 나도 오늘은 다른 사람하구 짝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할 게. 이래구서는 일 나가는 차를 탔단 말이야. 뭐 그 놈이 안전벨트를 둘러매고 차에 올라타더라구. 타구 와서 지금 얘기한 버치골에서 일을 올라가서 하는데 선을 달게 돼 있는데 전주대 앵글을 해놓구는 선을 끄는 사람이 선을 땅에 끌어놓구 간 게 아니라 걸어놔. 이 놈이 전주를 올라가구 나는 무섭다구, 산비탈이니까. 그래서 이쪽에 올라갔어. 그런데 난 올라가서 죽을까봐 안전벨트를 땀어. 그런데 이 놈은 그것두 안 붙들어 매구 엉덩이를 선에 대구 일렁일렁 하다가 든든한데 뭐 그래. 그래서 난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앵글 사단짜리가 무거워요. 이걸 구멍에 걸어야 해. 구멍에 걸려고 하다가 선이 훌쩍 벗겨진 거야. 사람이 나간 거야. 바닥에 전주 구멍이를 파는데 돌이 나와서 발파를 해서 돌이 가득해. 거기에 뭐이 툇 떨어져 툇 하구 자빠지니, 밑에 있는 놈들은 벌벌 떨구 뭘 하지두 못해. 꼭대기에서 내려오려구 벨트를 푸는데 점점 조여. 아유, 그러하다가 어떻게 풀구 내려왔어. 내려와 보니까 애가 명치

부근이 발락발락 하는데 콧구멍에 피만 쪼제하게 나왔어. 이게 뇌진탕 이야.

_ 죽었나요?

볼 게 없는 거야. 차가 있어? 그때는 인제에 뭐야 남평우집 옷가게 하는 그 뒤에 삼층인가 사층인가, 지금 그 집이야. 그 집 저기에 있는 가가 새 나라택시를 했어. 중고를 다섯 대를 가져와서 사업을 해. 그누무 택시를 기다리니 전화가 있어야 전화를 할 수가 있나. 오투 내려와서 도로에 기대서 놓구 거기 앉아서 얼마큼 기다리다 보니까 새나라택시가 하나 오더라구. 길을 건너 막구는 돈을 달라는 대로 드릴 테니까 이렇게 좀 해 달라구. 그래 인제 사무실이 지금두 한전 사무실이 있는데가 그때도 현장사무실이었어. 거거다가 가니까 아, 병원으로 빨리 빼야지 안 된다, 이기야. 그 택시에 실구 홍천에 갔다. 병원에서 안 된다, 다 죽었다 이기야. 그래두 명치는 발락발락 하거든. 나는 끌어왔구 택시를 타구 홍천에서 춘천으로 넘어가는 길이 거기가 고개를 올라가는데 마을 이구 사람이 살더라구. 쪽 나가는데 사람이 죽으면 기지개를 켜요. 잠자다가 하는 기지개. 사람이 죽기 전에 기지개를 하게 돼 있어. 내가 그래서 아는 거야. 가가 우우우웁 그러더라구. 아 이거 살아나는구나. 난 아주 기분이 좋았던 말이야. 그리구는 명치를 만져보니까 멈췄어. 죽은 거야. 그래서 무릎에서 죽으니 죽은 걸 데리고 병원에 갈 수도 없구. 뒤로 돌려라. 돌려서 도로 인제에 와서 사무실 앞에 마당가에 놓구 거적을 덮어 놓구. 차. 유가족에게 연락을 했더니 색시가 있더라구. 애를 가져서 배가 부른 게 와서 대성통곡을 하지. 같이 일하던 짝꿍이 그렇게 돼서 죽으니 일할 몇대가리가 없는 거야. 날 보구 윤 기사라는 놈이 하는 말이, 내가 다음 공사에 너 가야 된다. 가자. 어디매냐? 외국을 가는 거지. 이란이야. 야 임마 나는 자격증도 없는 놈이 어딜 가니? 여기서 나 친구 바람에 이렇게 해먹는 거지. 자격증은 내가 내주면 되잖니. 이런데 그 떨어져서 죽는 꼴을 보구 내 손으로 송장을 안구 다니며 놓구 내가 이란으로 돈 벌러 따라 갈 수가 없다는 거지. 난 구만 둔다. 여기서 이 공사 끝나면 내 일생 전주공사 해 본 거니까 끝난다. 거기서 사고만 안 났어도 내 이란구경도 했다가. 죽는 걸 보니까. 그거 걸어치구 이

노가다가 생기기 시작해서 하루 목수라는 게 하루 일해봐야 돈 만오천 원. 그 만오천 원이 커가지구 커가지구 십오만 원까지 올라갔어. 그러다가 또 아이에폰지 뭘지 뚝 떨어져서 칠만 원으로 내려가더라구.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서 십이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내 허리 부러지니까 그만, 이러구 말았지.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왔어, 네가. 애기소리를 들어 보면 재미 있구 어떻게 보면.

_ 참 큰일을 겪으셨네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시절에 불을 어떻게 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옛날에는 등잔불도 없었고 코쿨이라고 늘 내가 얘기했지?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캐다가, 사람으로 말하면 뺨다구만 남은 거지? 그걸 갖다가 송진이 스며 있기 때문에 뽕개서 말려서 불을 놓으면 오래 타면서 꺼지지 않고 잘 타고, 그래서 코쿨불이라고 했거든. 내가 어렸을 때에 코쿨불이었고.

_ 여름에는 코쿨불을 켤 수는 없잖아요?

여름에? 여름이고 겨울이고 불이라는 것은 지금도 전기도 여름이고 겨울이고 없이 쓰잖아? 그것과 똑같은 거지.

_ 코쿨을 여름에도 썼어요?

여름에도 불 안 키나? 하하. 여름에는 밤에 수면시간이 짧으니까 일찍 자니까 조금 해놓고 뭐 하다가 자고. 겨울에는 시간이 많으니까 할머니들이 삼베 삼느라고 할 적에 무릎에 대고 스멀스멀 실을 잇고 비어서 삼잖아? 그렇게 할 때에 무릎을 대구 코쿨불 앞에 앉아서 하면 그제 일거양득이야.

_ 왜요?

불 환하게 켜서 좋고 무릎을 써서 삼베를 이스면 일라니까 무릎이 아플 거 아냐? 그러면 고쿨 앞에 대니 불이 뜨뜻해서 무릎이 안 쓰러서 좋구.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는 불이 코쿨이었고, 또 어른들 얘기, 할머니들

얘기로는 코쿨불 전에는 그 외외 아주까리 기름이라고 있어. 아주까리 기름을 불에 타도 깨지지 않는 뭐 접시 같은 거나 뭐 옛날에는 접시두 없구 한껏 있어야 낭구밥그릇, 낭구로 깎은 거를 두가리라고 그래요? 밥그릇을. 낭구두가리, 거 어른들 밥그릇이라고, 합주발이라고 해서 밥 넣고 덮는 거, 그런 식으로 낭구로 깎았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거 깎는 거 도사야.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알아.

_ 어떤 모양인가요?

어른들 밥그릇은 우묵하게 깎았고, 젊은 사람들 밥그릇은 그냥 해벌렁하게 되구말구 막 깎은 거고. 이렇게 해서 밥그릇 두가리에다 해먹은 세상이고. 그럴 적에 아주까리 기름이나 동박이라는 거, 지금의 동박은 꽃도 이상하지만 옛날에 산에서 열리던 동박을 따다가 기름을 짜면 그 기름을 그릇이 해벌렁한 데 놔야 해. 많이 따라 놓으면 안 타요. 조금만 따라놓고 실을 한 두어 개 띄워 놓으면 실이 젖을 정도로 기름을 따라 놓고 그러면 기름이 실을 따라 내 피잖아? 그거다 불을 다라 놓으면 우리 여름철에 개똥불이라고 하잖아? 개똥불이라고 날아다니는 거 땃마리 잡아 놓으면 앞이 흰해. 그래서 그거와 똑같은 거야. 아주아주 옛날에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코쿨이 나온 거야. 코쿨불이라는 건 내가 아주 들구 꿰구 있는 거구 아주까리 불을 얘기만 들은 거구.

_ 아주까리 기름이 진짜 타나요?

아주까리 기름을 내가 내 손으로 접시에 따라서 실을 놓고 불을 놓아보니 불이 타더라고. 체험을 해 봤지. 내가 귀둔리에서 태어났거든. 귀둔리 오작동이라는 데서 탄생을 했던 말이야. 거기서 일곱 살이 되니까 학교를 다녀야 된다 해서, 그때는 거기가 다 이북이야. 육이오 나기 전이니까. 이북시절에 인민군들이 숫자만 맞춰서 이름만 적어서 가지. 그래서 학교가 어딘지도 모르고 동네마다 뭐 애들이 조파만 개 대어섯이 되면은 인민군들이 와서 딱쿵총을 까꾸루 둘러 매진 못하구 길으니까 질질 끌리잖아. 그걸 착 둘러 미구 수첩 모양으루, 지금 우리가 노트 조그만 거 같은 거를 넣구 다니다가 글자를 몇 자 적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우린 1학년이라고 뭘 알아? 그러니까 애들 한 댕 되면은 마 농구 마 농구 어디다 마 놓으냐? 여느 데는 모르겠는데 우리 귀둔리에는 마을 부분에 산비탈을 보면은 이 저저 뭐야 마사 딱딱한 마사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걸 방공호 식으로 파버렸어. 파서 방만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비가 와도 걱정이 없구. 그거에 애들 댕 마 농구 거기서 뭐 김일성 아버지 뭐 어 찌구저찌구 가르치는데 말로만 떠드는 거지 뭐 뭐 연필이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북놈들 하는 얘기가 뭐 사회안전성이라는 말이 생생해. 뭐 민부성정찰국 뭐 이지랄 하더라구. 그러면서 가르친다, 해. 뭐 1학년 들어가서, 우리가 조그마니까 옥수수가 우리 키 정도 됐나, 개꼬리가 나오지 않은 때니까, 우리가 학교 들어간 지 한 삼사 개월 됐어. 그래서 월남을 하는 거야. 남쪽나라에 가야 산다고 해서. 자꾸만 마을 사람들이 도망을 가니까 인민군들이 밤에는 야간동초를 서요.

— 동초가 뭐죠?

둘씩 짝을 지어 보초를 서는 거지. 동초를 서는데 마을을 한 패가 한 바퀴 돌으려면 한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두 패가 반을 나눠서 하니까 삼십 분이면 돌아오잖아? 둘이 시계바늘 돌아가듯 하니까. 그래놓고는 그 세간에 내빼는데, 월남을 하는데 우리 살던 앞산이 삼팔선이야. 그거를 넘어가면은 기린면 진동리로 나가게 되거든. 그래 진동리로 넘어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내빼니까 그 사람들이라구 눈치를 모르나. 그러니까 갈 건가 안 갈 건가 순찰을 하거든. 그러면 애덜은 자지는 않아도, 어른들이 수군수군 하니까 애들도 잠이 안 올 거 아냐? 우리는 일어나서 웅성거리면 들통이 나니까 자는 척을 하라구 아주 입을 틀어 막구 막 그러더라구.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 코쿨불을 환하게 켜. 관솔을 많이 집어넣으면 환할 거 아냐. 그러니까 동초를 서던 인민군들이 아 저놈은 안 가는 게로구나. 환하게 불 켜 왔구나 이러거든. 그런 시간에 도망을 가서 산을 넘어 가는데 하하.

— 굉장한 지혜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산을 넘어 가는데 30분 동안에 넘어 가는데 어른들은 부지런히 넘어 가

지만 우리는 뛰어두 못따라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 팔을 잡았는데 나
 를 책 집어 던지면 한 두세 발짝 앞에 떨어지면 또 와서 집어 던지고 이
 런 식으로 해서 도망을 가는 거야. 그래 넘어 가니까 그 삼팔선 중턱을
 넘어 한 철부 능선을 올라가니까 이패들이 돌아 온 거지. 돌아오니까
 관솔밭도 그 사이 다 타서 꺼질 거 아냐? 그러니까 아 이거 벌써 내뺐구
 나, 저 산을 넘어갔을 테니까 저기다 사격을 해야 된다 이기야. 그래서
 딱쿵총을 쏘는 게 우리 저저 뭐야 남한의 총들 에무환 식으로 총알이 자
 동으로 나가는 게 아니구 이걸 꼭 한 발 한 발 채워서 쏘야 되는데 한 발
 쏘고 한 발 쏘는데 엄청 빨리 쏘는 거야. 한 발자국 옮겨 놓을 때 한 방
 썩 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너댓이서 들이대구 쏘 대면 총소리가 그냥
 뭐 딱쿵 딱쿵 그러지. 하하. 그래서 그게 딱쿵총이야 이북 총이. 그런데
 발자국을 옮겨 놓으면 발자국이 닿던 부분에 총알이 와 팡팡 떨어지는
 거지. 그래두 총에 안 맞구 월남을 했어. 월남을 해서 진동리 상치전이
 라고 해. 맨 꼭대기 동네라 상치전이라고 했거든. 거기에 937번지가 있
 어요. 그 937번지가 우리 호적, 본적이야. 거기서 그렇게 한 해 여름 나
 고 이태 켜 돼서 그랬나? 육이오 전쟁이 나더구만 뭐. 우당탕우당탕 그
 러다가 전쟁 후에 또 수복이 되니까 귀둔리에서, 전쟁 때 동해안으로는
 조금 뺐구 서해안으로는 조금 뺐기구 그랬잖아? 지금 속초시는 옛날에
 는 이북이었는데 뺐었으니까 우리가 살고 그랬는데. 귀둔리 땅덩어리
 는 이북으로 안 갔으니까 우리 농사 지어 먹던 거 우리가 들어와서 농사
 라고 짓구 살다가, 그걸 적에두 불을 켜야 하니까 어른들이 코쿨을 방구
 석에 만들어 놓구 불을 땀어. 수복 당시에두 우리가 코쿨불을 켜어. 시
 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석유등불을 켜는지는 모르지. 어른들 따라서 산
 골짜기에서 커는 게 뭘 알아? 우리 사는 데서만은 육이오 후에도 코쿨
 불을 켜어요. 지금두 그 저 코쿨이 어디 있느냐면, 흑 땡기다 한 번 가
 봐. 저 기린 진동리에 올라가는데 방동1리 막국수집 가기 전에 양원이
 고개라고 있어요. 그 양원이고개 넘는 길에 아주아주 옛날 기와집이 있
 는데 그 기와가 다 썩어서 비가 새니까 지금 갑바를 덮어놓고 골동품으
 로 놔둔 게 있어요. 그 집에 보면 방마다 코쿨이 있어. 그 집에 가서 살
 펴보라구. 거기에 가면 있어요.

_ 네 가봐야겠네요. 코쿨시대가 지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코쿨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석유불을 켜는데 석유장사가 와요. 육이오 난 뒤에 짙어지고 와서는 땃병에, 한 되 들어가는 병, 그 병에 하나에 뭐 얼만지는 모르지. 그 한 병씩 아주 고깔을 대고 따라서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못하게 하구 팔면은 그 기름을 가주구 노인네들 있으면 사랑 방에 안방에 한 병으로 아껴써야 한 달을 써. 한 칸에만 켜면은 한 달 더 쓰구. 이렇게 오늘날까지 살다가 인제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호야불 이라고 있어. 호야불이 67년도까지는 호야불을 켜어요.

_ 석유를 쓸 때는 호롱불이었나요?

석유등잔이지. 등잔불을 아무리 맑은 기름이라도 끄름이 나잖아? 그러니까 그게 발전이 되니까 호야를 켜우면 더 밝다 해서 호야가 나온 거야.

_ 호야불은 뭔가요?

똑같은 기름 불 때듯이 때는 건데 지금 전구다마 식으로 유리로 그렇게 돼 있지. 그걸 갖다가 썬워 놓은 거야. 그걸 호야라고 해. 지금 우리집 에두 호야등불이 하나 있어.

_ 그럼 남폿불은 뭔가요?

남포가 호야지. 호야등불이 남포야.

_ 그걸 박박 닦아야 된다고 하던데요?

끄름이 끼면은 그걸 비눗물에다가 닦아야지. 우리도 안경 썼다가 뿌영게 어리면 닦잖아. 그 식으로 싹 닦아 놓으면 아주 밝지. 그걸 닦다가 호야가 깨지면 가서 사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인제에 우리가 켜는 전기가 들어온 거야. 가장 빨리 들어온 전기가 45년 됐어. 제일 먼저 들어온 전기가 양구변전소에서 12000볼트를 끌어온 거야. 그 전기선에서 선을 따서 전기를 집에 들이는데 드는 비용이 그때 돈으로 4천 원이야. 돈 4천 원이 없어서 전기선이 내 집 마당 앞으로 지나가도 못다는 집이 있었구.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자기발전기로 돌렸단 말이야. 11시 반만

되면 불 나간다고 싸이렌이 울리면 촛불을 준비해서 불이 나가도 밥도 먹구 하니깐. 그렇게 살다가 자기발전기는 없어지구 자기발전기는 원통으로 왔어요. 그 뒤에는 양구 해안으로 갔어. 그때 해안은 인제군 서화면이었어. 거기 해안에 가서 발전기를 돌려보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시궁창에서 썩어자빠졌는지 어느 옛장사가 쥐가구 말구 그러구는 12000볼트 전기를 계량기도 없이 마구 쓰니까.

우리집은 방태산으로 피난을 갔어. 거기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불당골이라고 그래. 그 불당골을 조금 지나면 귀룽목이라고 해. 거기 바위 어귀 밑에서 피난생활을 했어. 피난을 할 때 먹구 산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히지. 그때 3군단 사령부가 있던 그곳이 지금의 사령부 자리야. 지금 덕다리에 관사가 있는 곳에 미군부대가 있었어. 지금은 미국사람 미국사람 그랬거든. 미국 사람들은 잘 먹었어. 지금은 찜밥통을 만들어 놓고 퍼가지만 육이오 때는 땅구덩이를 파놓고 막 썰어 넣고 하나 차면 물어 버리고 그러더라고. 그때 우리는 먹구 살 게 없으니까 낮에는 그 밥이 썩어도 가지러 가지도 못하지. 꼭대기에서 내려보고 있고 총에도 맞아 주는데. 밤에 가는데 찜밥을 푸러 가는 거야. 먹을라고. 혼자 가서는 찜밥을 못가져와. 나는 그때 여덟아홉 살일 때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가시는데 밥을 담는다고 함지박 같은 거를 가져가면 밥 못가져와. 자루, 자루를 가져가야 돼. 찜밥구덩이가 깊어. 우리 어머니가 내 팔을 붙들고 나를 찜밥구덩이로 집어넣어. 그러면 나는 찜밥구덩이서 자루에 대고 밥을 퍼 넣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자루를 주면 어머니가 자루를 들어올리고 나를 손목을 땡겨 올려서 올라오고. 혼자 가서는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지를 못해서 못하는 기야. 하하. 그래서 우리는 두 모자가 당기면서 밥을 가져오는데 자루에 왜 밥을 가져오느냐? 함지박 에다 해서 이구 오다가 보면 그냥 뭐 후당당 댄다던가 하면 다 쏟아질 거 아냐? 자루다 넣을 때는 획 던져도 데굴데굴 굴러도 집어서 가져오면 되거든. 그렇게 해서 바위 밑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내 위의 누나 내 밑의 동생 해서 일곱 식구가 찜밥을 먹구 사는 과정에 오늘날까지 죽지 않고 살아왔어.

— 태평소를 잘 부시던데 어떻게 배우셨나요?

지금은 태평소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새납이라고 했어. 소리 ‘새’ 자가 있더라구. 그래서 ‘소리가 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새납이라고 불러왔거든. 그 전에는 농악이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농악이야. 지금 하는 건 똥 묻은 개 대가리 흔들듯 하는 거구 옛날에는 타령조로다가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노는 것을 굿중패라고도 하고 농악이라고도 했지. 지금껏 사물놀이라고 해서 그건 뭐 가락도 아니고 그저 우당탕통땅 우당탕통땅 하고 두들기구 그리고 그저 열 사람이구 스무 사람이구 한 사람 앞에 하나 씩 장구구 쇠구 하나 씩 둘러매구 똥땅거리는 거구. 옛날에는 벽구잡이가, 벽구라는 것은, 지금은 애들이 드는 소고를 옛날에는 어른이 가지고 있으면 벽구라고 했어. 벽구잡이라구 하는데 상모 돌리는 것두 외상이 있구, 양상이 있구, 꼭두상이 있어. 외상은 한쪽으로만 빙글빙글 돌리는 것을 말하고, 양상은 이쪽으로 두 번 저쪽으로 두 번 좌우로 빙글빙글 돌리는 것이 양상이고, 꼭두상이라는 건 돌리며 뛰어가다가 “야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절을 하게 되면 상모조리가 꺼둑하고 절을 하는 게 꼭두상이구. 어른들이 이렇게 노는데 우린 찌꺼할 때 보니까 새납을 부는데 호들기가 그때 당시에는 호밀 짚대를 가지고 호들기를 만들어서 넣어 가지구 당기는 게 마땅치 않으니깐 그때 당시에 성냥곽은 낭구로 만들어서 곁에 종이를 붙이구한 성냥갑이 있었다구. 거기다 넣어 가지구 다니면서 부는데 그게 그렇게 붙어보고 싶었어 내가. 나중에 붙어보니까 뽁뽁 하구 소리가 나더라구. 그래서 아 그게 그렇구나, 그러구. 또 통소라고 있거든. 지금은 이름을 달리 부르는데 구멍이 다섯 구멍이거든. 그 통소 부는 소리를 들어보면 처량하더라구. 그래서 통소도 붙어보구 내 손으로두 만들어 보구. 이렇다 보니까 뽁뽁 소리가 다더구만. 그래서 내 인생 살 때가 되구 이럴 적에 열한 일곱 여덟 살 이럴 때 새납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붙어 보는 즉 그것도 뭐 강사도 없이 그저 혼자 뽁뽁 그래 온 거구. 그러다가 그것을 이렇게 붙어보면서 해명을 하기를 내가 뽁뽁거리는 소리로 보면 옛날에나 지금이나 배고플 시절이니까 할면네들이 노래를 할 때에 못살겠구나 못살겠구나 출구 배고파 나는 못살겠구나, 이러면서 노래를 하더라구. 그 노래를 하면서 꼬불랑꼬불랑 붙어본 즉 그 노래가 되는 것

이지. 그래서 내가 분다는 것은 그거 한 가지. 또는 뭐 요즘 국악에 보면 아리랑이 있잖아. 아리랑 소리도 조금 불러보구. 난 그뿐이야. 크게 뭐 하는 것도 없구. 내 혼자 자작을 한 거구. 누가 가르쳐 준 일도 없구. 그래서 한 번 불러 봤던 거구.

_ 옛날에 동네에서 농악을 많이 했나요?

그전에 농악을 할 적에는, 내가 귀둔리에 살았으니까. 육이오 전쟁 수복 당시에도 귀둔리에서, 거기가 우리가 살던 데니까 들어와 살았는데 그때 우리가 기린면 현리로 농악놀이를 나와가지구 거기서 뛰드리고 놀다가 방동리로 들어가는 거야. 방동으로 해서 진동으로 해서 귀둔리로 넘어가거든. 그렇게 가는 과정에 산골길이니까. 그때 내가 농악할 때에 따라다닐 때에 끝무동이라고 제일 쪼그만하지. 북통 쪼맨한 걸 짚어지구, 북통에 꽃다발을 단 거를 짚어지구 춤을 추며 따라다녔거든. 그럴 적에 따라가면서 뚱뚱뚱뚱 하며 가며 올라가는데 그 방동을 지나 진동리로 올라가는 길이 아주 산골 외딴 곳이야. 지금은 거길 다리를 건너와서 잘 돼 있어. 그 전에는 다리가 없구 말등바위 다리라구 해서, 돌이 꼭 말 등처럼 생겼거든. 돌꼭대기에다가 낭구를 척 건너 놓으면 다리가 되는 거야. 옛날에는 그래놓구 건넜으니까. 그래 거기를 별명이 말등바우다리라고 했지. 그런데 징을 덩딩하며 올라가니까 그 좁은 고래를 올라가니까 산울림이 나니까 산속에서 노루가, 산이 지렁지렁 울리니까 산꼭대기에서 지내를 잡으러 오는 줄 알구, 징은 밑에서 두드렸는데 꼭대기에서 우리 있는 데로 내려오는 거지, 노루가. 한 마리가 내려 뛰어서 급하니까 후닥닥뚝뚝 하더라구. 우리가 한 삼십 명 되니까 예라 농악놀이구 나발이구 저걸 잡아야 된다고 쫓아가서 저걸 잡았어. 그래서 노루 한 마리를 잡아서 짚어지구 가서 노루 고기 먹은 생각이 나구. 하하.

_ 농악을 많이 하셨으니까 마을 분들이 악기를 배우기도 하셨겠네요?

그 농악문제두 내가 그때 당시에 따라하던 것을 요즘에 뺑과리 두들기는 쇧가락 소리를, 옛날에 두드리는 것은 일번지가 천부당만부당천부

당만부당, 이렇게 두드리는 게 일반지구. 옛날에 성황당이라구 있잖아. 성황당에 갈 적에는 팽과리 소리를 서낭님 서낭님 동네 밖에 서낭님, 이렇게 두드리면서 한 번 냅다 춤을 추고 똥땅거리고 지내가구. 뭐야 서낭굿이라는 가락이 그렇구. 또 강가에 가다보면 지금 얘기한 나무다리, 외나무다리 식으로 된 것도 있구, 십다리라구 해서 나무 놓구 흙 떠다 얹어서 글로 건너다니는 다리도 있는데 그런 다리 건널 적에는 다리를 잘 봤다구 잘 만들어졌다구, 어따 그 다리 잘 봤다 치렁치렁, 쇠가락 두드리는 소리가 이렇게 나거든. 이렇게 다리굿을 하고 건너가구. 길구낙이라구, 길을 갈 적에 빨리 두드리면 쇠를 두드리는 소리하구 발이 맞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느린 가락으로 팽아작작 쿠작자, 이런 식으로 두드리면 발과 손이 맞는 거거든. 이렇게 뛰들고 가다 놀구. 마당가 들어가서는 벽구잡이가 한창 신나게 뛰들고, 무등이 춤을 추고. 내가 그 가락을 살려보려구 애걸을 하구 그래두 지금 노는 사람들이 그 사물놀이라구 각자가 장구나 북을 가지구 두드리는 것만 좋아했지 그렇게 노는 것은 좋아하지 않더구만. 그래서 사물놀이라구 두드리는 소리가 땅두 땅두 내 땅이요 저 땅두 내 땅이라, 이러면서 뛰들더구만. 지금 노는 건 그렇구. 우리 강원도에서 옛날 구식으로 노는 때는 평창군에 매밀축제 하는 면이 무슨 면이야? 그 면에서 하는 게 구식이야. 그 면에서 왜 구식으로 하느냐? 강릉단오제에 일반지루다가 출연을 하게 되어 있대요. 그 때들은 머리에 쓰는 상모두 시중에서 사온 게 아니구 짚으로 멍석 매듯이 만들 걸 쓰고 다니구. 옷도 옛날에, 지금 저저 대마초 껌데기로 만든 옷을 입고 해. 그러니까 민복이지. 배옷으로 싹 해 입히구 한 패가 나와서 깃대를 천하지대본이라구 써서 나오면 그게 완전히 구식이라. 그래 똑딱거리며 놀구. 강릉단오제에 가면은 구식으로 노는 걸 볼 수가 있구 여느데에 가서는 볼 수가 없구.

— 동네에서 언제 농악놀이를 하셨어요?

내가 할 때는 육이오 나고 수복된 뒤니까 표준이 60년이지. 당시에 내가 어른들 따라 다녔구. 그 다음에는 살림이라고 하면서 먹구 살아야 하니까 거기까지 신경 못쓰고 그저 덩병덩병 이렇게 살아오다가 요즘 년에 여기 살려 와서 여기는 냇강마을이라 해서 농악놀이를 할 적에 구식

으로 한 번 해볼라고 하니까 구식은 안 좋은 걸로 생각하더라구. 그래서 알았다구. 그럼 사물놀이를 해라, 난 사물놀이는 할 줄 모른다, 그래서 사물놀이는 다른 강사가 와서 가르치고 해서 사물놀이패가 있었구.

— 옛날에는 동네에서 어떤 때에 농악을 하셨나요?

내가 따라 다닐 시절에는 열다섯 살 먹어서 첫 출연을 해서 7년을 따라 다녔으니까 스무 살 넘게 다녔지. 농악이니까 농사 질 적에 일하다가 심심하면은 쉴 참에 뚜드려보구. 겨울철이 되면은 농악 시작하자, 해서 땡기면 걸립이라구 해서 집집마다 다니며 지신밟기라구 마당에 가서 뚜드려주면 돈도 몇 분 내놓구 쌀두 몇 톨 내 놓구. 이러면 그거 갖다 놔줬다가 음력으로 2월 초하루에 폐제라고 해서 그날 농군의 날이라고 해서 뚜드려 놀려구 쌓아놓는 거지. 마을에서 지신밟기하면 쌀이라두 한 말씩 시주를 하구, 이런 사람에 한해서는 이름을 적어서 갖다 놔둬. 쌀 한말 내놓든 뭐 내놓든 대주라고 해서 주인이 대주야. 쌀을 한 주발을 별도로 담아서, 쉽게 말하면 물을 떠다놓지. 옆에. 정한수라고 해서. 토지지신께 빌 적에 금년 농사 잘 짓게 해달라구. 또 수명장수하게 해달라구 실을 한 타래 놔요. 그리고 문 바르는 한지를 한 장 찢아서 그 위다 올려주거든. 이렇게 해서 2월 초하루 날에 만단지수를 차려 놓구, 막걸리를 차려 놓구 둥둥둥둥 두드리면서 마을잔치가 되는 거야. 소지도 올리구. 마을에 돌아다니며 걸립할 적에 도와준 사람은 다 소지를 올려주구. 아무개 소지 잘 탔어. 그러구. 그렇게 2월 초하루 날에 폐막식이라구 해서 놀구 올 여름 농사 잘 되게 해달라구 그러는 거구 농악은 그런 거야. 이렇게 6년을 따라다니구 7년 때는 상쇠가 있구 부쇠가 있는데 부쇠 칠 사람이 없다구 내가 해봐라. 내가 늘 따라다니며 팽과리 치구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내가 뚜드려 보구 이러니까 내가 몇 가락 내가 뚜드린다는 것을 알거든. 하지요 뭐. 아주 제일 막내나마나지 뭐뭐. 그 때 부쇠잡이루 딱 한 해 따라다니며 쳐 보구 오늘날에 옛날에 치는 것을 한 번 뚜드려보니까 되더구만. 장구도 그래. 지금 우리집에 장구구 북이구 팽과리구 농악놀이 한 벌 정가 집에 있어. 그래서 심심하면 장구도 뚜드려보구, 팽과리도 쳐보구, 새납도 붙어보구. 그저 혼자서 별 거 다 해보는 거야.

_ 장구도 잘 치세요?

장구는 내가 두드리는 것은 사물놀이 장구가 아니구 구식장구야. 썰과 리 소리하구 똑같이 두드리는 거야. 거 뭐 가짓수는 많지는 않아. 한 대 여섯 가지 되구. 구식이라는 건 그렇구. 새납두 내가 불다 보면은 어떤 게 더 좋은가 하나 더 사구.

_ 2월 초하루에 놀고 또 연습하시면서도 노시겠네요?

그럴 적에 고사반(걸립패에게 베풀어 줄 물건을 차려놓은 상)이라고 있어. 고사반이라는 건 지신밟기라고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잘 되게 해 달라고 비는 게 있거든. 요즘에는 사물놀이하면서 고사반을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고사반이라는 거는, 시화연자 연풍이 연연히 당도하니 일년농사 지어보세 일년이면 열두 달 과녁이면 열두 달 삼백은 육십오일. 이래서 가중가택이다, 하게 되면 그 집을 말하는데 집주인의 성이 박가든 김가든 가중가택에 박 씨면 박 씨 금년 신수나 잘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못된 액이 들어오면은 물리쳐 달라는 거. 예를 들어서 정월달에 드는 액은 막아주고, 이런 식으로 열두 달을 죽 풀어나가면서 나중에는 딱 끝나면서 그걸 다 외고는 썰과리를 땡땡땡 치구 똑딱 거리면 마당을 한바구 빙 돌아 나오면 끝나고 다른 집으로 가는 거구. 한 집에 끝나면 다른 집에 가서 고 식으로 두들겨 놀아주구 가구. 고사반 들이는 것두 곧잘 했었는데 안 해 놓니까 서먹서먹 하구 그렇더구만.

_ 그때는 마을마다 농악이 있었나요?

그전에는 일개 리에 하나 쫓은 있었는데 없는데도 있구 있는데도 있구 그랬어.

_ 여름에는 어떻게 노세요?

여름에는 봄에 농사 지어놓고 씨앗뿌리기 하구 여름에 모 심굴 때, 지금은 농악을 치구 풍악을 치지만 그전에는 호미루 파구, 김매듯이 땀단 말이야. 그럴 적에 힘들면 막걸리 한 잔 먹구 논두렁에 음식 차려 나와서 새참 먹구 이러면 정자나무 같은 것두 있다던지 뭐 편편하게 만들어

농구 거기서 논 들판이니까 이패저패 잠깐 쉬구 이러는 장소가 있잖아?
그런데서 악기 갖다가 뛰들구 놀구 춤을 덩실덩실 추구 한참을 놀다가
가서 일하자, 하면 일하는 거구. 그러다가 가을에는 벼를 다 걷어 놓구
는 농악놀이 시작하자, 그러면 뚝뚝거리며 연습해서 돌아다니며 뭐야
모아 들이는 거지. 동냥을 하는 거야. 걸립을. 그 마다 났다가 봄에 가
서 차려놓구 한 잔 먹구 해야지 하는 거구. 그렇게 살아온 거야.

_ 가을에 추수할 때는요?

때로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구 때로는 같이 놀던 패들이 모여서 한참 놀
아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구 추수가 딱 끝나서 조용한 시간에 다시 시
작하는 거지 뭐. 추수할 때는 바쁘니까 일하느라구. 여름에 씨앗 뿌려
서 저게 잘 되겠나, 하구 추수할 때는, 얼마나 많이 나왔나, 하는 생각에
일하는 정신에 농악놀이두 안 하구 그래. 참 그렇게 저렇게 한 세상이
지났어. 하하. 끝.

죽지 못해 살았지

인터뷰 날짜 2015년 7월 10일

인터뷰 장소 하추리 노인회관

_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조학봉이에요. 84세요. 현주소는 하추리 371번지.

박병래예요. 82세고. 현주소 하추리 405번지.



조학봉 씨



박병래 씨

_ 수복이 되고 이곳의 형편은 어땠나요?

조학봉

쭉대밭이었어. 차츰 개간을 하면서 바뀌었지. 그때 할아버지가 못하게 하셨어. 그래서 이북이라고 다 죽냐구, 돌아가신 지 상당히 오래 됐는데. 뭐 쭉 그렇게 살아왔지. 여기 와서도 고생 많이 했어. 뭐 먹을 게 있어야지. 뭐 칠팔리 캐먹구, 송구 그거 해먹구. 살아온 세월이 기가 막히지. 먹을 게 있나 입을 게 있나. 지금은 없는 게 없거든요. 그때만 해두 수건두 없었어. 수건두 없구 장갑두 없구 양말두 없었어. 지금은 흔해 빠진 게 양말인데 양말두 없었어. 신발두 없구. 하하하하. 고무실발, 꺼먹고무신. 나 제대하고 여기 왔는데 원래 집이 기린 서리예요. 빈 몸으로 왔지. 우리 식구하구 큰애 업구. 여기 와서 죽을 고생 많이 했수.

_ 언제 들어오셨어요?

박병래

수복되고 들어왔어요.

_ 어떻게 이곳으로 들어오시게 됐나요?

박병래

원래가 북면이 이북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이북이지만. 피난을 나갔다가 고향으로 들어간다고 하다가 여기와서 들어온 거예요.

_ 여기 하추리가 사는 데 어떤가요?

조학봉

지금은 괜찮죠. 지금은 꽤찮은데 그때만 해두 집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품팔러 가구, 이렇게 살아왔죠.

_ 화전하던 말씀을 해주세요.

조학봉

화전이요? 화전은 국유림에서 해먹었는데 박 대통령이 못하게 했어요. 화전이 아니면 못살ですよ. 그런데 정부에서 딱 막아버리니, 원. 지금은 잘 먹지만 그때는 먹는 게 아침을 먹으면, 점심 없어요. 저녁먹구. 그때 밥이 아니라 국수, 나물 삶아서 먹구. 그러다가 쪽 자유당 때지 그때두 국수야. 국수 사다 먹구 살았지. 산에 복령이라구 있어.

_ 복령이요?

조학봉

예. 복령. 그대는 산에 맨 복령 천지야. 나중에 다 없어졌지만. 복령 캐다가 국수 사다 먹구. 그게 끝나구 황옥수수 먹었지. 쌀이 있어야 화전에 점심을 가져가죠. 그때는 복령 캐서 먹구 살았지요. 지금은 복령 캐래두 없지만은. 그때는 복령이 아니면은, 이 집이 복령 깎았다고.

_ 복령을 깎아요?

조학봉

네 칼루다. 그 얼마 받았는지 모르는데.

_ 봉령을 깎으셔서 장사를 하셨어요?

박병래

봉령을 파오면 사서 곁집데기를 깎아요.

_ 잘 깎아져요?

박병래

물에다가 봉령을 한 일주일 담귀 불귀. 그렇지 않으면 딱딱해서 못해. 한 일주일 불구면 시방 나무 미는 대패처럼 대패로 밀어야 해. 이를 테면 봉령을 미는

대패야. 그때 봉령 한 근에 뭐 삼백 원 삼백 오십 원 그랬거든. 그걸 깎아서 팔면 육백 원 했다고. 품값이 들어가야 남지. 그걸 깎아서 팔아가지구 해먹구.

_ 누가 사가나요?

박병래

장사꾼이 이제 시장에 나가면 사러 온다구. 봉령 사러. 그럼 밀가루 포대 에다 넣어서. 그게 스무 근이니까 15킬로 이렇게 담아서 파는데, 그때는 노동력이 없어서 품팔이도 없고, 그런데 이진 산에서 캐다가 팔구, 그거 살다가 깎아서 팔구. 그래두 연명을 해가는 거지요. 돈 벌 일은 아니야. 시방 같으면 뭐 고추래도 심으면 고추라두 따서 품을 팔지만 그때는 품 팔 일이 없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노력해서 먹구 살아가야 해.

_ 봉령을 어떻게 캐나요?

조학봉

봉령이요? 지금은 꼬쟁이가 많아요. 그때는 철근이 굵은 게 있구, 가는 게 있는데 철근을 불에 달궈. 그리고 망치로 두드리. 한참 두드리면 늘어나요. 그리구 자루를 박아. 지금은 꼬쟁이가 좋지. 그전에는 그 꼬쟁이를 만들어서 땅을 자꾸 쭈시니까 끝이 달아. 그러면 와서 불을 해놓구 달궈서 두드리구. 지금 뭐 철이 좋아서 좋지. 그때는 뭐 없었거든. 달궈서 뽕죽하게 해서 산에 올라가는 거여. 쭈시면 봉령이 찢뜩하다구. 끄트머리에 하얀가루가 묻어 나와. 그럼 그곳을 판다구. 그럼 이렇게 생긴 것두 있구 개불알처럼 생긴 것두 있구 가지각색이지. 잘 캐면 품값이 되구. 그때 봉령 한 근에 5원 했어. 차츰 올라갔지. 10원 하다가. 지금은 한 6천 원 할 거야. 그때는 품팔래야 할 게 없구 그것 아니면 돈 벌 게 없어.



령을 캐는 꼬쟁이다

_ 봉령이 잘 나올 자리를 아세요?

조학봉

그렇지. 소나무 썩은 거, 허엿게 은 거 툭 치면 부러져. 그 아래 봉령이 있다구. 그래서 이 집에 갔다 파는 거야. 다른 집이두 하는 데 가 있었지만 이 집에 많이 갖다 팔았지. 비료포대루 싸서 미수꾸리 해서. 그럴 팔아다가 국수 사 먹구. 쌀은 그때 귀했어. 옥수수 그런 거 먹구. 지금 애들은 그걸 거 안 먹어. 내가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콩나물죽, 그게 젤 싫어.

_ 백봉령은 뭐에 쓰는 약제인가요?

박병래

보약이에요.

_ 화전에는 뭘 심으셨어요?

조학봉

조두 심구. 콩두 심구 팔두 심구. 그때는 고라니가 있지만 그때는 고라니가 없었다구. 농사를 저서 가을에 지구와야 하는데 우력을 해. 여섯 시는 일곱 시에 가서 지구와. 집집마다 그것두 돌아가며 하는 거야. 다 화전을 하니까. 갖다 떨어봐야 몇 알 안 돼.

_ 화전을 몇 가구나 하셨어요?

조학봉

여기는 화전 안 한 사람이 없어. 다 했지. 한 집만 안 했지 다 했어.

_ 화전하시다가 불을 내신 적은 없으세요?

조학봉

산을 태워야 되거든. 그때는 불싸질러도 괜찮았거든. 화전하다 불 나는 거 많죠. 인제 하나 둘은 안 돼구 여럿이 가서 하지. 그것도 땅 보구 될 만한 데다 하지 아무데나 안 해.

_ 뭇만한 데가 어떤 데예요?

조학봉

응달에 땅심이 깊은데.

_ 흠이 많은 데요?

조학봉

네. 보면 아주 뿔런지 알 뿔런지 알아요.

_ 양지보다 음지가 낫나요?

조학봉

음지가 낫지.

박병래

그것도 해먹다가 박정희가 못하게 했어.

_ 그때 이주비 나왔어요?

조학봉

나온 거 없어요. 별 거 없었구. 아무튼 그때 식구는 많이 먹을 건 없지. 또 화전도 맘대루 못해요. 수확도 적고. 힘만 빠지구. 지금 그런 거 하려면 못해요.

_ 장리쌀도 드셨나요?

조학봉

장리쌀요? 장리쌀두 있는 사람이나 먹지 없는 사람은 먹지두 못했어요. 갈을 꺾어다 눈에 넣는 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지만 하루 품값이 벼 한 말 이야. 구두. 쌀이 한 되 나올까 두 되 나올까 그래요. 식구는 많지 그러니까 줌을 뜯어다가 밥에 넣어 먹지. 지금 아이들은 저게 뭘 소린가 한다구.

_ 할아버지도 가난하셨겠네요?

박병래

가난하니까 이런데 와서 살지.

_ 지금은 하추리가 얼마나 좋은 텐데요. 요즘은 서울 사람들도 와서 살잖아요.

조학봉

아 그렇요. 요즘은 서울 사람들이 많이 와요. 옆에 사는 집이 누가누군

지 몰라요. 말을 한 하기 때문에. 부락에 오면 이장 반장 찾아봐야 하는데 안 찾아보고, 이사 온 집이 이 집 건너 두 집이나 있는데 나와 몰라.

_ 저런, 어느 날 보니까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조학봉

그럼요.

_ 그 시절에 대해 생각나는 일이 있으세요?

박병래

농사짓는 게 재미난 것두 없구 맨날 힘들지.

_ 화전을 하셨어요?

박병래

화전을 했지요. 화전을 해서 여기서 먹고 살고. 시방은 뭐 남의 것을 안 사 먹으니까, 먹구는 사는데 그만치 고생을 했죠. 우리는 이북서 피난 나오느라구 뭐 하나 가져온 게 없어. 여기서 개척해서 사는 거여. 화전도 해 먹구, 콩두 팔아 먹구, 남의 일두 해구. 그래두 화전정리 하는 바람에 산골짜이에서 살다가 여기루 내려왔는데 게 뭐 살림이 돼유, 아무것두 없으니께.

조학봉

죽지 못해 사는 거야.

박병래

고생께나 하구 지금은 살긴 사는데. 뭐 옛날 얘기래야 할 것두 없구, 그 것두 잘살아야, 호강을 했어야 옛날 얘기도 하지 못살구 뭐.

_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조학봉

7-80살 먹은 사람은 고생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50살 된 사람도 잘 몰라요. 하여튼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도 못해. 요즘 사람에게 옥수수밥 먹으라면 먹어요? 안 먹어요. 딱딱하다구. 지금은 쌀밥도 개도 안 먹는데 그때는 쌀밥을 먹으려면 하늘에 별따기예요. 쌀두 귀하지만 돈도 없구. 그땐 돈두 귀했다구. 그때 십 원짜리 지폐가 냄새를 맡으면 그게

진짜 돈 값아. 이런 옷두 없었구, 배옷 누에고치 쳐서 명주, 목화도 밭에 심어서 실을 뽑아서 옷을 만들구.

_ 여기도 목화를 했나요?

조학봉

아 그럼요. 목화밭이 따로 있어요. 지금은 할 필요두 없지만은.

_ 옷을 직접 해 입으셨어요?

조학봉

그럼, 재료를 가지구 해 입었지. 지금은 돈만 주면 없는 게 없지. 그때는 돈두 귀하지만 옷우 귀했어. 신발두 없구. 어릴 때 나이를 먹어두 신발이 없었는데 생일날에 꺼먹고무신 하나 얻어 신었어. 별표. 운동화는 없어.

_ 주로 짚신을 신으셨겠네요?

조학봉

그럼, 짚신을 신었지. 짚신두 잘 삼으면 며칠 신어요. 45일 신어요.

_ 밤마다 짚신 삼으셨겠네요?

조학봉

밥 먹구 신 삼는 게 일어요.



짚신

__ 코쿨도 커셨어요?

조학봉

그럼, 구석에 해놓구 속갱이 넣구. 그게 방이 뜨셔요 그게. 지금 뭐, 그 때는 초두 귀했어요. 초 두 없었어요. 들기름인가에 문창호지 푼뿔 말아서 심지처럼 사용하면 그게 타요. 불이 밝아요. 초도 없었어요. 전기 불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 지금은 인제군에서도 사라진 코쿨은 강원도인의 삶을 말해주는 중요한 생활도구다. 코쿨이 난방기구라고 아는 사람이 있다. 사실은 조명이 주요기능이고, 난방이 보조기능이다. 방 벽의 구석에 만들어진 코쿨에 관솔을 태워서 조명을 대신하며 난방도 겸한 것이다. 강원도에서는 산에 관솔을 하러 가는 일을 '속갱이 하러 간다'고 했다. 사철 내내 관솔을 하지만 주로 겨울이 오기 직전에 산에 가서 썩은 소나무를 잡고 손으로 흔든다. 그러면 나무가 흔들리면서 뿌리가 땅에서 빠진다. 빠진 뿌리에서 뿌리가지는 도끼로 잘라버리고 몸뚱이만 지게로 저서 집에 가져다가 잘 말린다. 잘 마른 뿌리는 송진이 먹어 무겁고 향긋하다. 이 뿌리를 작은 도끼를 사용해 가운데 손가락 정도의 크기로 쪼갬다. 쪼갬 뿌리를 삼태기에 담아 방으로 들여와 코쿨 아래에 놓고 코쿨 아궁이에 하나씩 넣고 태웠다. 태우다보면 연기가 나서 콧구멍이 새카매지기도 했다.

속생활용품제작 기능보유자·월학1리) 어르신은 코쿨을 만드는 과정을 잘 알고 있다.

"그때는 진흙과 나무와 수수대 같은 것으로 집을 지었어. 그러니까 방이 모두 흙집이라 건강에 좋았지요. 코쿨은 그 흙집의 네모난 방의 벽과 벽 사이의 모서리에 만들어요. 모서리 바닥에서 35~40센티미터 띄운 곳에 우선 자 같은 나무를 흙벽 양쪽에 걸쳐 박아요. 그런 뒤 그 나무 위에 망가끼놀이(에 쓸 만한 넓적한 돌을 얹는데, 나중에 이 돌에 관솔을 놓고 태우는, 말하자면 아궁이 바닥이 돼요. 그런 뒤에는 돌 위로 자 같은 나무를 돌 밑에 박은 방식으로 띄엄띄엄 양쪽 벽에 박으며 올라가요. 그렇게 위로 1미터 정도 올라가다가 벽에 작은 구멍을 뚫어요. 연기가 나가는 구멍이에요. 여기까지가 굴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연통이나 쇠가 없어서 따로 굴뚝을 만들 수가 없었어. 집에 있는 굴뚝도 나무의 속을 판 뒤 쪼개서 다시 붙여서 굴뚝으로 썼어요. 나무를 박은 것은 진흙을 바르기 위해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에요. 다음으로, 수수줄기를 가지고 벽과 벽에 박은 나무끼리 위아래로 서로 연결시켜요. 역시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뼈대가 완성되면 안쪽부터 진흙을 발라요. 밖을 먼저 바르면 안쪽을 바르지 못하니까 순서를 지켜야 해요. 안쪽을 다 바르면 바깥쪽의 아궁이 입만 남기고 모두 발라요. 이렇게 안팎 전체를 진흙으로 덮으면 완성이에요. 아궁이는 부엌에 있는 아궁이 모양의 축소판이 되어야 해요. 한편, 연기가 나가는 구멍의 밖은 보통 부엌이 있어서 바람이 직접 구멍으로 들이치는 것을 막아줘요. 바람이 들이쳐서 연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방안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천을 둥그렇게만 것으로 구멍을 막았다가 다시 열어 놓으면 됐어요. 코쿨에 불을 지피면 천정까지 밝게 하지는 못해도 일을 하거나 책을 읽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또 이게 굉장히 따뜻해요."

이 불 앞에서 여자들은 길쌈도 하고 해진 옷도 꿰맸고, 남자들은 고담소설도 읽고 새끼도 꼬았다. 놀러온 사람들과 이야기도 했다. 그러다가 목이 마르거나 출출해지면 항아리에서 동점(동치미)을 떠다가 무수(무)를 깨물어 먹기도 했다.

코쿨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건 편리한 석유가 나오면서다. 그 뒤에 한국전쟁 중에 집들이 파괴되면서 코쿨도 같이 사라졌다. 전쟁이 끝난 뒤에 멸절한 집에는 코쿨이 있었다고 한다. 이런 집들도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집을 다시 지으며 코쿨이 완전히 없어졌다. 산촌 생활을 알려주는 문화재는 이렇게 사라졌고, 이제는 산촌박물관에나 볼 수 있다.

_ 뭐하고 노셨어요?

조학봉

그때 노는 건 얼음 위에서 썰매 타구. 얼음 위에서 팽이 치구. 돌아다니다가 신발을 물에 적신다구. 그럼 말려야지. 지금은 갈대밭이 없지만 그때는 갈대밭이 많았대. 거다 불 해놓면 말리다가 신발을 태우기도 하거든. 신발 태웠대. 되게 맞았네. 이노무 새끼, 하라는 짓은 안 하구 신발을 태웠대. 우리 할아버지가 삼아준 거거든요. 우린 신발 삼을 줄 몰라요. 나이나 먹구 이제 식을 알았는데. 이북에서 중공군, 전쟁 때 나왔다가 쫓겨 왔는데 그 새끼들 신발이 좋더라구.

_ 뭘 신었는데요?

조학봉

운동화지 가들. 이게 속이 물렁물렁 해. 한국 거는 농구화. 중공군 신발이 좋았어. 그때 얘기 하려면 뭐. 우리 고생한 거 누가 알아.

_ 술담배도 하셨어요?

조학봉

그때는 제사를 지내면 제삿밥을 먹으러가. 자정쯤 되면 제사를 지내. 그러면 떡을 주거든. 옥수수로 한 떡. 그거 얻어 먹으러구 가는 거야. 배고프니까. 보리쌀 막걸리와 옥수수막걸리를 먹었지. 지금은 내가 술담배 아예 안 먹지만은 그때는 잘 먹었지. 술담배 끊은 지 벌써 오랜대. 그야말로 술을 지구 가지는 못해두 먹구는 간다구, 내가 그랬어.

_ 그런데 어떻게 끊으셨어요?

조학봉

쉽지 뭐. 담배두 하루 한 갑이 모자랐어요. 지금 담배 피는 사람, 아주 싫어. 우리집 막내가 담배 피거든요. 내가 그렇게 말해두 안 들어. 내가 나가면 피다가 땀 데로 가지요.

_ 옛날에는 담배를 말아서 피셨겠네요?

조학봉

어어, 대초라고 있어. 심어서 밭에 심어서. 종자 이름이 대초야. 밭에 심어서 잎사귀를 따서 말려서 쓰러. 말리기를 몇 번 해야 해. 응달에다 말려야 해. 아무튼 그때는 이도 많았어. 이 잡는 것두 일이야. 옷을 벗어서 하하. 얼마나 개러운지. 빈대라고 또 있어. 빈대는 꼭 진드기 같아요. 붙으면 떨어지지도 않아. 피 빨아 먹구 사는 건데. 냄새도 지독해. 지금은 한껏 살기 좋은 때야. 그때는 비료도 없었어. 비누도 없어서 메밀 삶은 물로 빨래를 빨았어. 우리 어머니도 그거 하시다가 돌아가셨어. 마흔여덟에.

_ 마흔여덟예요?

조학봉

예. 청춘이지 청춘. 내가 팔십이 넘었는데. 칠십만 넘어 돌아가셨어도 내가 원이 없어.

_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조학봉

내가 혼인을 스물한 살에 했지. 서리에서 했어. 결혼해서 집사람을 두고 군에 갔어. 제주도로. 근데 제주도 물이 나빠서 배탈이 그렇게 나요. 혼련 받다 말고 부산으로 나왔네. 부산의 병원 이름을 지금도 기억해. 569병원. 한 달 있었지, 병원에. 부대에 또 가라는 거야, 혼련 받으러. 죽어도 전방 간다구.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 찬가지잖아. 제주도에서 하두 배가 아파서. 전방에 가서 고생 육시라게 했네. 이 양반두 군에 갔다 왔지만은 군대 얘기 하려면 한이 없어. 한이 없어.

_ 전방 어디로 가셨는데요?

조학봉

화천.

— 그때 전쟁이 난 거예요?

조학봉

그때 전쟁을 할 때지요. 일부 전쟁을 하고 일부 훈련소 들어가구. 내가 5사단에 있었는데 가니까 여섯인가 있더라구. 중대장, 소대장, 여섯인데 한 달인가 돌구 먹었지 거서. 그러자 한 명씩 뒤로 들어와. 들어오니 한 백한 칠팔십 명이 되더라구. 저녁인데 가을이야. 전방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가야지 어떻게. 골짜구니로 몇 십리 걸어서 올라가는데 그 놈들이 와서 총을 쏘는데 대낮같지 뭐.

— 밤에요?

조학봉

밤에. 저 새끼들도 총 쏘고 우리도 박격포 쏘고 우당탕 저 야단이지. 사람이 죽을래두 안 죽어. 초소를 돼지우리처럼 지었어.

— 한국군이요?

조학봉

그럼. 보초를 세웠는데 글로 들어간 거야. 뭐가 황 하더라구. 보니까 재들 폭탄이 떨어진 거야. 다시 주웠지. 나는 휴전 되구 백마고지 앞에, 비무장지대에 또 들어갔어. 그때는 휴전선이라구, 철사 하나 두었어. 경계. 지금은 텔레비 보니까 엄청나게 잘 만들었더구만. 그때는 외줄 철사야. 뭐뭐 얼마든지 들었다가 나갔다 하지. 거서 인제 전라도 지리산에 공비가 많다고 하더라구. 또 공비 토벌하러 간다고 그래요. 지금 중앙고속도로야. 비포장도론데. 야 이걸 뭐 제무시 타구 가는데 덜컹거리는데 수백 대가 가니까 먼지가 나는데 개 같애. 지리산 가서 참 죽을 뻔 두 많이 했네. 저 빨치산은 대나무 창이지 대나무 창.

— 작전을 어떻게 하셨어요?

조학봉

중대장에게 무전이 와. 그러면 어디 있다구 하니까 올라가지.

_ 지리산에 얼마나 계셨어요?

조학봉

가을에 가서 그 이듬해 봄에 왔어요.

_ 다 끝내셨어요?

조학봉

어. 부대는 가서 경계만 하고 있는데 수색대는 만날 돌아당기요. 배낭 짊어지고, 지휘관이 이제 명령하면 호를 파고 천만 치고.

_ 호를 파요?

조학봉

호, 구덩이를 파아쥬.

_ 거기서 잠복하는 거예요?

조학봉

그럼요. 재들은, 이북 애들은 언제 나타날런지 모르거든. 우린 5사단이거든. 난 양구서 제대했어.

_ 제대하시고 서리에 가셨다가 다시 이리로 오셨어요?

조학봉

그럼요. 원래가 기린사람이야. 여기가 이북이거든.

_ 여기는 왜 오셨어요?

조학봉

아 수복되구 살기 좋으니까. 여기는 묵은 땅두 많구.

_ 묵은 땅이요?

조학봉

안 해 먹는 땅.

_ 오셔서 집을 지셨어요?

조학봉

그럼 졌죠. 토막으로 나무 베다가. 도끼루 깎아서. 초가집을 진 거야. 벧짚을 엮어서 올리구.

_ 집 질 때 먼저 땅을 다지시죠?

조학봉

그 전에는 안 다져요. 초가집 그래봐야 얼마나 무거워요. 기둥 놀 자리 거기에 돌을 갖다 놓구. 집두 잘 저요. 우리 장인이, 지금은 돌아가셨고 나도 그렇게 살다가 늙었고 뭐. 끝.

엮은이

정 무 교

전 인제인터넷신문 취재부장 역임

전 한림성심대학교 출강

전 인제문화원 논술 강사

저서 『인제 사람들이 전통음식』

화전^{火田}을 일군 사람들

인 쇄 2015년 12월 28일

발 행 2015년 12월 30일

펴낸이 남덕우

기획인 백창현

엮은이 정무교

펴낸곳 인제문화원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44번길 100
TEL 033)461-6678

편집·인쇄 도서출판 산책

※ 이 책은 군비보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